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뉴스타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www.newstarrealty.com
Dian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공화당 주지사, 민주당 의회 체제 복귀

관련기사: 8,9,11,12면

베이커 주지사 당선,
최고 경영자 출신 비즈니스
친화적인 정책 펼 듯,
롬니, 패트릭과 달리 한인사회와
특별 인연 없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찰리 베이커(57)후보가 2014년 11월 4일 치러진 매사추세츠 주지사 선거에서 마사 코클리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주지사에 당선됐다. 매사추세츠는 8년만에 다시 공화당 주지사 민주당 의회 체제로 되돌아가게 됐다.

이날 두 후보는 시종일관 근소한 표차로 앞치락 뒤치락 겨루었다. 한 순간에는 100표 차이였던 적도 있었다. 결국 5일 새벽 98%의 개표가 지나서야 베이커 후보의 승리가 확정됐다. 코클리 후보는 5일 새벽 패배 수락을 미루고 5일 아침 8시 15분 써머빌 소재 선거본부에서 베이커에게 전화해 패배를 인정했다.

5일 100%개표 결과 베이커는 투표자의 48.5%인 1,041,640표를 획득했고 마사 코클



공화당 후보 찰리 베이커가 마사 코클리를 누르고 매사추세츠 주지사로 당선되었다

리 후보는 46.6%인 1,001,279표를 획득해 근소한 4만여표 차이로 승부가 갈렸다.

보스톤 시프트 호텔에서 열린 선거후 당선 축하파티에서 “여러분처럼 우리 선거본부는 고무되어 있다. 지금 당장 매사추세츠주가 노래하게 하고 주 끝에서 끝까지 우리가 희망하고 꿈꿔왔던 곳으로 만들고 싶다” 고

밝혔다. 베이커는 또한 모든 표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패배수락을 거부한 코클리에 대해 “기다릴 수 있다” 고 말하고 온 힘을 쏟아 선거에 집중한 후 패배한 감정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베이커는 코클리의 의사에 따라 5일 새

▶▶8면으로 계속

한인회장 후보 없이 등록 마감 결정권은 이사회로

이사회 추천을 통한 회장 선출이 지역 특색이 되어버린 듯해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제 39대 뉴잉글랜드 보스톤 한인회장 후보 등록이 지난 10월 31일 마감되었다. 올해도 역시 단 한 명의 후보도 나서지 않아 회장 선출에 관한 모든 결정권은 이사회로 넘어가게 된다.

김영곤 선거관리 위원장은 “좋은 후보감이 상당히 많지만 선거과정이나 비용 등을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며 “어쩌면 이사회 추천을 통한 회장 선출이 이 지역의 특색이 되어버린 듯 하다” 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한인회장은 동포를 대표하는 리더로서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 이사회의 추천을 통해 한인사회의 발전과 이익을 위해 봉사해줄 후보가 나타나길 기대해본다” 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지난번 38대 회장 추대를 비롯한 여러 전례를 비추어 봤을 때 이번에도 쉽지 않은 과정이 될 듯하다” 며 “공식적인 결정을 언제쯤 이면 발표할 수 있을지 지금으로선 대답하기 곤란

▶▶4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부동산 매매·부동산법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1불의 행복! 대박이벤트!!

지금, IACE 를 통하여 미주지역에서 한국으로 가시는 왕복항공권을 구매하시면, 체류기간 동안,

인천 ⇄ 도쿄 나리타 항공권
+ 동경 2박3일 호텔숙박권

이 믿을수없는 가격,
\$1에 모십니다!

Japan. Endless Discovery. japantravelinfo.com

IACE TRAVEL
CONNECT TO THE WORLD
24H ONLINE BOOKING
WWW.IACE-KOREA.COM

Korean Line
1-866-619-4223
info@iace-korea.com
3655 Torrance Blvd, Suite 100, Torrance, CA 90503

MORTGAGE MASTER

Ezer Lee
NMLS #859995
Mortgage Loan Originator
P (781) 591-2722
F (617) 395-6865
Kakao Talk ID: ezerlee
elee@mortgagemaster.com
www.mortgagemaster.com/elee
MA LIC # ML0859995

Languages: English + Korean

44 Trapelo Road, Belmont, MA 02478
Mortgage Master, Inc. NMLS #4251/MA Lender/Broker MC4251

뉴스타 부동산의 나원태, 제이슨 전의
경험과 전문성으로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Lexington, Newton, Allston, Brighton, Cambridge, Boston

MA, RI 전 지역의 리스팅 구축 빠른 정보 전달 정확한 정보, 철저한 분석으로 최적의 결과 창출, 완벽한 팀워크를 통한 차별화된 부동산 마케팅 제공

Exclusive Listings: 콘도

- Brookline, MA, 방 2, 학 2, 1523 sq., \$725,000
- BU, Coolidge Corner에서 도보거리
- 햇빛 잘드는 실내, 벽난로, 풀밭이 책꽂이

나원태 Realtor
미주 전체 뉴스타 부동산 금탑 다수 수상
Direct: 617.642.3156
wonra@newstarrealty.com

제이슨 전 Realtor
미주 전체 뉴스타 부동산 금탑 다수 수상
Direct: 617.642.5670
jason.jeon@newstarrealty.com

애나 정
Anna Jung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애나 정의 오랜 경험의 노하우와 전문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최고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주택, 콘도, 렌트, 빌딩, 비즈니스, 분양
우수 학교 전문

617.780.1675
annajung@newstarrealty.com

보스톤 한미문화재단 후원과 감사의 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한미문화재단 (KACF: Korean American Cultural Foundation of Greater Boston, 이사장 김문소)은 오는 15일 토요일 브록라인에 위치한 보스톤 한인교회 ECC 건물에서 후원과 감사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김문소 한미문화재단 이사장은 “지난 한 해 동안의 지원과 격려에 감사를 전한다. 앞으로도 보스톤을 포함한 뉴잉글랜드 지역 한인들의 많은 후원과 관심을 기대하면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본 행사에 많은 한인들을 초대한다” 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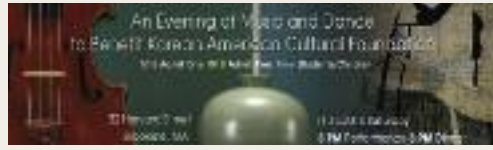
이날 행사의 순서로는 현대무용과 현악이 어우러지는 공연이 1부에 선보여질 예정이며 2부에는 그동안

진행했던 다양한 행사들을 정리하여 동영상으로 발표하면서 서로 교류하는 저녁식사의 시간으로 진행된다.

행사 티켓은 당일에도 구매 가능하며 1인 \$50, 2인 \$80, 학생과 어린이는 무료다. 티켓문의는 다음 이메일 (info@koreancultureboston.org) 이나 전화번호 (617-561-0837)로 하면 된다.

보스톤한미문화재단(KACF)은 한국의 풍부한 예술과 문화 유산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한인 문화 예술가들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2007년에 설립된 재단이다.

최근 기획했던 공연으로는 가야



금과 고전 무용, 판소리에 하버드대학 한국학 연구소의 데이비드 맥칸 (David McCann) 교수가 한국 시조의 해설을 접목시킨 공연은 한국인의 정서 중 하나인 ‘한 (恨)’ 과 서양음악이 어우러진 매우 창조적이고 실험적인 공연으로 평가되고 있다.

행사일정

일시: 2014년 11월 15일 토요일 오후 5시

장 소 : 32 Harvard Street, Brookline, MA

bostonkorean@hotmail.com



강주리의 불펜화 전시회가 뉴햄프셔 대학교 미술관에서 열린다

강주리 불펜화 작품 전시회

“인위적으로 아름다운”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보스톤 출신 화가 강주리의 불펜화 작품 전시회가 12월 14일까지 뉴햄프셔 대학교 (UNH) 미술관에서 열린다.

“인위적으로 아름다운”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자연적, 인조적인 변형에 대한 작가의 관점이 반영된 꽃과 동식물을 표현한 작품들이 소개된다. 특별히 강 씨는 일상적인 소재인 불펜을 사용해 묘사함으로 작품에 풍부함을 더했다.

강 씨는 “변형된 동식물의 인위적

인 아름다움은 관찰자로 하여금 작품에 매혹되면서 동시에 이질감을 느끼게 한다” 며 “자연 선택의 과정에 개입하는 인간에 대한 의문을 자아낼 것” 이라고 전했다.

전시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링크 (cola.unh.edu/pcac/exhibitions)를 통해 알 수 있다.

전시회 일정

일시: 2014년 11월 1일~12월 14일 (아티스트 토크: 12월 3일 정오~오후 1시)

장소: 뉴햄프셔 대학교 미술관(30 Academic Way, Durham, NH 03824)

dyoo9146@bostonkorea.com

서울대 동창회 음악회 • 연말파티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서울대 동창회(회장 장수인)가 오는 12월 13일 토요일 아발론 오디토리움(Auditorium at Avalon, Lexington Hills)에서 ‘작은 음악회’ 행사를 겸한 연말파티를 연다.

동창회 측은 “학구적이면서도 즐겁고 유익한 ‘동문의 밤’ 행사가 기획되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라는

부제 하에 재치 있고 흥미로운 내용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마련되었으며 김경일 동문이 강연자로 나설 예정” 이라고 전했다. 이어지는 ‘작은 음악회’에는 음대 동문들이 악기 연주를 선보이며 사교댄스를 배우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참가비는 \$50이며 학생 및 포닥은 \$20이다. 음식 준비를 위해 사전에 전

화 (978-729-8251)나 이메일 (snu-aane@gmail.com), 동창회 홈페이지 (http://sites.google.com/site/snu-aane)로 참석 여부를 알려야 한다.

동창회 측은 “Waltham St.에 다른 아발론 아파트가 있으므로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는 유의사항도 일렸다.

bostonkorean@hotmail.com

<진료 과목>

- * 일반 치과 * 잇몸 질환 치료
- * 신경 치료 * 보철 전문
- * 보톡스 & 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www.gracesalonsboston.com

영업 시간 월요일~금요일: 10시~7시
토요일: 9시~8시

예약을 하시면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각종 헤어 컷과 펴고 그리고 스킨 케어

젊음과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곳!

- 매직 스트레이튼 Magic Straightening
- 브라질 케라틴 트리트먼트 Brazilian Keratin Treatment
- Threading Threading
- 디지털 펴고 & 셋팅 펴고 Digital Perm & Setting Perm
- 아이론 펴고 Iron Perm
- 헤어 컬러링 Coloring (GOLD WELL 사용)
- 헤어 메니큐어 (코팅) Hair Manicure
- 메니큐어 & 페디큐어 Manicure & Pedicure
- 왁싱 Waxing
- 얼굴 마사지 Facials
- 웨딩 서비스 Wedding Services

Grace Salon

프리미엄 토탈 헤어 살롱

그레이스 컷팅 클럽

617-623-2430

56 Union Sq. Somerville, MA 02143
한국중합식품 옆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미예술협회 기금마련 만찬 성황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한미예술협회(회장 김병국, 이사장 이충시)는 지난 1일 일요일 레지스칼리지(Regis College)에서 내년 문화 행사를 위해 모금 만찬회를 주최해 성황리에 마쳤다.

이충시 이사장의 인사말과 박윤주 부총영사의 축사로 시작된 이날 만찬회에서는 지난 일년간의 활동을 영상으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미예술협회가 주최한 행사로는 피아니스트 백혜선의 실내악 연주, 보스톤 박물관 구정 행사, 국악 연주회, 제 2회 미술 전시회, 음악회 시리즈, 박물관 기행 등이 있다.

예년과 같이 미술품 옥션이 진행되었으며 작가들은 판매액의 50~100%를 한미예술협회에 기증해 젊은 예술인들을 후원하는 데에 기여했다. 특히 올해는 미국인과 중국인 작가들이 기증한 작품들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식사 후에는 올해 파블로 카잘스 국



지난 1일 열린 한미예술협회 기금마련 만찬

제콩쿨에서 우승을 차지한 첼리스트 문태국 씨와 퀸 엘리자베스 국제 음악콩쿨 입상 경력 소유자인 피아니스트 김상영 씨가 연주를 선보였다.

김병국 회장은 “그동안 같이 열심히 일해 온 이사진과 임원, 위원회 회원들, 만찬에 참석한 한인들, 성금으로 협조해주고 추천 상품을 제공한 모든 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고 전

했다. 한미예술협회가 내년 기획하는 공연으로는 소프라노 홍혜경 독창회 등이 있다. 행사에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한미예술협회 홈페이지(www.kcsboston.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새빛교회 10주년 감사 음악축제 및 예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월덤 소재 새빛교회가 10주년을 맞아 오는 8일과 9일 감사 음악축제와 임직예배를 드린다.

감사 음악축제는 8일 토요일 오후

7시에 열리며 감사 및 임직예배는 다음날 9일 오전 11시 30분에 드려진다. 1부로 10주년 감사예배를 드린 후 이어지는 2부에 김우혁, 임재식 안수집사와 김경란, 김경숙 권사의 임직식

이 진행된다. 새빛교회는 730 Main Street, Waltham, MA 02451에 위치해 있다.

dyoo9146@bostonkorea.com



수레아트 갤러리 한인 예술가 그룹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지역 한인 작가들이 뉴햄프셔 라이(Rye)에 위치한 수레아트 갤러리에서 오는 8일 토요일부터 전시회를 가진다

11월 20일까지 열리는 이 전시회에는 다양한 예술 기법으로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표현한 지역 한인 예술가들의 작품들이 소개될 예정이다. 오프닝 리셉션은 8일 오후 4시에서 7시까지 열린다

전시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위치는 수레아트 갤러리 홈페이지(www.sooryeartgallery.com)를 통해 알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유다인 Dain Yoo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백린 Rin Paik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곽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상상 HaSang Hong
오승준 Albert Oh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 TV 사업국
617-955-9459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SAT Pl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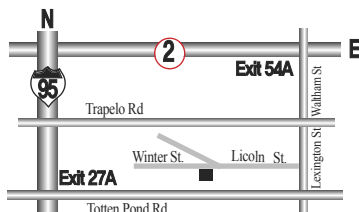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SAT Plus Fall Schedule

Starting September 6, 2014

Class	Time
PSAT / SAT I Prep (Grade 11)	9:00 AM - 11:00 AM Saturday
PSAT / SAT I Prep (Grade 10)	11:30 AM - 1:00 PM Saturday
READING / MATH (Grade 9)	1:30 PM - 3:00 PM Saturday
SAT I Prep (Grade 12)	4:00 PM - 6:00 PM Saturday
Individual Tutoring	3:00 PM - 10:00 PM Sunday - Thursday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SAT I 및 SAT 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최형철 씨 기금마련 골프대회 일정변경

지역한인들의 도움을 보내는 계기가 되길 바라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전신마비 부인을 17년 동안 병간호하다 최장암 말기 선고를 받은 최형철 씨를 위한 기금마련 골프대회의 일정이 오는 9일 일요일로 변경되었다.

행사를 주최한 K씨는 “지난 2월로 예정되었던 기금마련 골프대회와 만찬이 날씨로 인해 이번 주말로 재조정되었다” 고 전했다. 골프대회는 해버힐(Haverhill) 소재 크리스탈레이크 골프 클럽(Crystal Lake Golf Club)에서 오전 10시 샷건(Shotgun)

으로 진행되어 행사일정은 지난주와 동일하다. 서울대 동문인 최형철 씨와 불교 신자인 부인 최혜연 씨를 위해 서울대 동문들과 불교 신자들이 이날 함께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최형철 씨를 지원하기 위한 성금모금 방안에 대해 고심하던 K씨는 기금마련 골프대회를 갖기로 결정하고 누구든지 기부자가 있는 사람을 성금을 보내면 최씨에게 전달하겠다고 지역 한인들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호소했다.

이어 “비록 작은 모임으로 시작하지만 보스톤 지역의 한인들이 함께 힘든 이웃을 돌아보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며 “이번 기금마련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

나지 않길 바란다” 는 마음을 전했다. 성금 모금에 대한 문의는 K씨(978-884-2194)에게 하거나 최형철 씨 주소(Choi, H.C, 50 Memorial Road 18C, Somerville, MA 02145)로 직접 전달하면 된다.

도요타 자동차 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부인 최혜연 씨를 17년동안 뒷바라지하던 최형철 씨는 지난 9월 매스 제너럴 호스피털(MGH)에서 최장암 말기 선고를 받았다. 10월 9일부터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최 씨는 현재까지 도요타와의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최 씨의 사연은 보스톤코리아에서 지난 10월 10일자 기사와 추적 60분에서 다룬 바 있다.

dyoo9146@bostonkorea.com

무료예방접종으로 올 겨울 감기 예방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새생활센터(대표 송연호)가 오는 15일 토요일 매사추세츠 주민과 방문자를 대상으로 두 번째 무료 독감예방접종 및 무료 진료를 실시한다.

이날 제공되는 진료는 내과진료와 치과검진, 건강상담이 포함된다. 내과는 처방전을 무료로 발행하며 치과는 검사 및 예방상담을 한다. 진료는 도착 순서대로 진행된다.

이날 당뇨병 검사 및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하고 싶은 사람은 아침 식사를 거르고 오면 보다 정확한 혈액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확한 건강상담을 위해 BMI(Body Mass Index)와 체지방검사도 실시될 예정이다.

진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보스

톤 새생활센터 송연호 대표(317-374-4786)에게 하면 된다.

무료 독감예방접종 및 진료 안내
일시: 2014년 11월 15일 오후 2~4시

장소: 가족 물리치료 병원(GB Family Physical Therapy)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bostonkorean@hotmail.com



간호사협회 투석 관련 세미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간호사협회에서 오는 12월 7일 일요일 보스톤 메디컬센터(Boston Medical Center)에서 투석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

20년 이상의 투석 간호 경력의 전희 간호사가 강사로 참석하는 이날 세미나에서는 투석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

과 투석 환자에 대한 간호법에 대한 특별한 강의가 제공될 예정이다.

행사 일정

일시: 2014년 12월 7일 일요일 오후 4~6시

장소: 보스톤 메디컬센터(725 Albany Street, Boston, MA 02118)
bostonkorean@hotmail.com



한인회장 후보 올해도 없어

▶▶1면에 이어서

하다” 고 답했다.

현재 38대 한인회장을 맡고 있는 한선우 회장은 “이와 같은 추대 방식이 반복되어 전례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 며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인들

은 가져야 할 것” 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인회 이사회는 차기 한인회장 후보 추천을 위해 오는 10일 월요일 오후 7시에 한인회관에서 소집될 예정이다.

dyoo9146@bostonkorea.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617.871.1482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www.yasuboston.com



야수 레스토랑

자녀를 위해 요리하는 엄마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야수는 작은 나물에서부터 요리 하나하나까지 자녀들을 기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만듭니다. 직접 만들어 손맛이 들어있는 야수의 음식 - 맛과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야수를 찾아주세요.

YASU RESTAURANT
Telephone 617.738.2244
1366 Beacon Street, Brookline, M A02446



단체예약
주문음식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공개수업 진행

학부모, 1일 교사 참가 등 높은 관심 보여



지난 1일 뉴잉글랜드 한국학교가 1차 공개수업을 가졌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튼 소재 뉴잉글랜드 한국학교가 지난 1일 정기 학부모 초청 공개수업 1차 행사를 진행해 학부모들 사이에 적극적인 참여를 불러일으켰다.

남일 교장은 “기초과정은 물론 초급부터 고급, 이중언어과정 학급까지 매년 공개수업 참석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한글과 우리문화, 역사를 가르쳐 아이들에게 올바른 정체성을 심어 주고자 하는 부모의 관심과 참여도가 점점 더 높아가고 있다는 의미로 참 감사한 일” 이라고 밝혔다.

졸업식 다음으로 가장 높은 학부모의 참여도를 보이는 공개수업은 총 3차의 행사로 진행된다. 기초 및 세종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1차 행사가 지난 1일 열렸고 초·중·고급 과정의 2차 행사는 오는 8일에 열릴 예정이다. 음악과 작문, 서예, 미술교육, 사물놀이, 태권도를 포함한 문화교육부문과 특별교육 프로그램은 3차 행사로 진행되어 오는 15일 열린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공개수업에 참석했던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집중도와 이해도를 높이는 다양한 수업방식으로 수업을 받아 참여도가 굉장히 높았다. 늘 많은 준비를 해 오시는 선생님들께 감사한다” 고 밝혔다. 다른 학부모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수업계획이 인상적이었고 한글을 배우려는 우리 아이의 어휘력이 많이 느는 것 같아 감사하다” 고 전했다.

한편 학부모회는 이번 주 2차 행사 후 11시 40분부터 통증병원 윤창 원장을 초빙하여 ‘주부들의 어깨와 목 및 허리 통증’ 에 관련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고 하니 관심 있는 사람은 11시 30분까지 학교로 오면 된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의 다음 행사는 한글 동화구연 및 동시 암송대회가 오는 22일에 개최되고 교내 동요대회는 오는 12월 20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글교육 부문 및 특별활동 부문에 교사로 지원하고 싶은 사람은 남일 교장 (508-523-5389, ksneusa@verizon.net)에게 연락하면 된다. 기타 학교 문의는 학교 홈페이지 (www.ksneusa.org)를 이용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위안부 구술집 ‘들리나요’ 영문판 제목 공모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구술기록집인 ‘열두 소녀의 이야기, 들리나요’ 의 영문판 제목 공모전이 오는 25일까지 진행된다.

전세계 거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 공모 이벤트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제목을 선정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적절히 표현하고, 일본이 부정하는 역사적 사실을 알릴 수 있으며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명칭이어야 한다.

공모전 응모는 이벤트 웹사이트 (<http://snsevents.net/list/event4.php>)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의 다양한 SNS를 이용하여 로그인한

후 공모 이벤트 내용을 공유하고 댓글란에 영문판 제목(영어)과 거주국가, 제목의 작성의도, 배경 등을 적어 응모하면 된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선발해 당첨자들에게 각각 \$500, \$300, \$200을 전달할 예정이다.

공모전 진행을 담당하는 미국의 ‘일본군 성폭력피해자 사이버 역사박물관’ 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역사적 사실을 미국 및 전세계에 알려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는 소중한 기회가 되면 좋겠다” 고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격려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민주평통, 참전용사·노인회 감사행사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보스톤협의회(회장 김성혁, 간사 황우성)가 재향 군인의 날을 맞아 11월 8일 토요일 오후 5시 참전용사 및 한미 노인회 감사초청 행사를 개최한다.

노스 앤도버 소재의 국제 선교회

(57 Peters Street, N. Andover, MA 01854)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는 초대 만찬과 무료 진료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지역한인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격려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 샤부샤부

한식&일식

"2013년 보스톤 잡지 선정 한식1위인 가주순두부 이제 얼스톤과 캠브리지 두곳에서 모시겠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1시~ 밤11시까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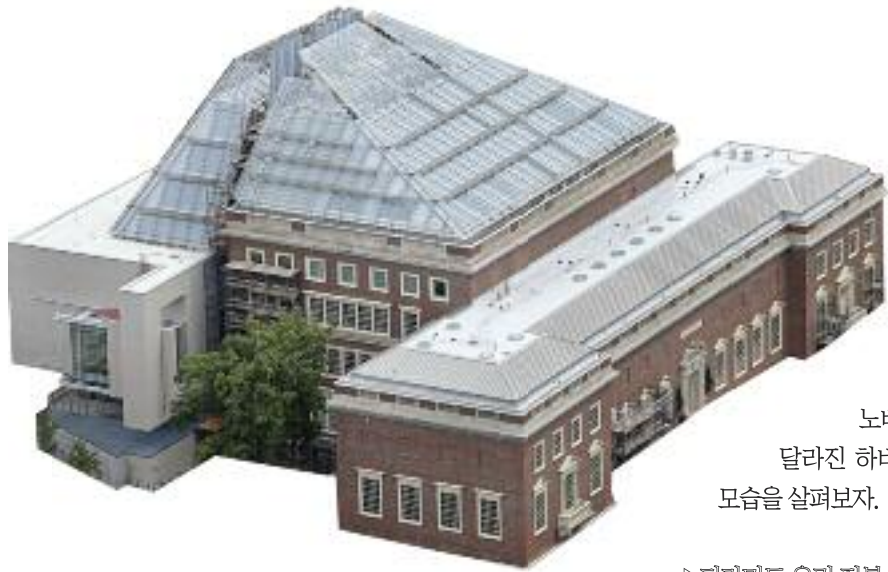
얼스톤 주소: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8540
캠브리지 주소: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6868



단체예약과 문의 가능

리노베이션 후 새롭게 단장한 하버드 미술관 살펴보기

Harvard Art Museums
 Fogg Museum
 Busch-Reisinger Museum
 Arthur M. Sackler Museum



어와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 그랜드 오픈에 앞서 리노베이션을 통해 달라진 하버드 미술관의 모습을 살펴보자.

▶피라미드 유리 지붕

유리와 철 구조물로 피라미드의 형태를 이루는 지붕은 새롭게 단장한 하버드 미술관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으로 꼽을 수 있겠다. 지붕에 장착된 셰이딩 시스템(Shading system)은 유리를 통해 들어오는 빛의 양뿐 아니라 온도와 습도마저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자연광을 건축 요소 중 하나로 여긴다는 렌조 피아노 디자이너는 “유리 지붕은 미술 작품을 인공조명 아래에서 감상하는 것과는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는 장치로 사용되었다” 고 전한다.



▶7층의 구조물

가장 아래층(Lower Level)은 새로 증축된 공간으로 이곳에는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이나 이벤트를 등이 넓게 마련되어 있다. 지역 행사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인도 입장할 수 있는 다목적실로 설계되었다.

1층에는 미술관의 중심부라고 불리는 칼더우드 코트야드(Calderwood Courtyard)가 자리잡고 있다. 15세기 이탈리아의 빌라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된 이 코트야드는 이번 리노베이션을 통해 바닥과 벽 등이 새로운 분위기와 어울리도

Rothko's Harvard Murals' 전이 전시된다. 4층과 5층은 각각 아트스터디센터(Art Study Center)와 스트라우스 연구소센터(Straus Center for Conservation and Technical Studies)가 자리잡고 있다.

▶그랜드 오픈&무료입장기간

하버드 미술관의 그랜드 오픈은 16일 일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한다. 누구나 입장 가능한 무료 이벤트지만 인원제한으로 인해 아쉽게도 입장티켓은 전부 매진되었다. 하지만 실망하지 않아도



록 다듬어졌다. 특히 유리지붕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코트야드까지 내려와 밝고 탁 트인 광경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1층부터 3층까지는 다양한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갤러리가 분포해 있다. 1층에는 현대미술과 동양예술이, 2층에는 세계 각처에서 수집된 하버드 대학의 컬렉션들이, 3층에는 지중해·근동 지역의 예술과 '마크 로스코의 하버드 벽화(Mark

될 것은 무료입장기간이 17일과 18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된다. 월요일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리는 무료입장기간도 입장권을 미리 예약해야 하는데 티켓 예약은 하버드 미술관 홈페이지(<https://tickets.harvardartmuseums.org/Info.aspx?EventID=9>)에서 하면 된다. dyoo9146@bostonkorea.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Harvard Art Museums
 617-495-9400
 32 Quincy Street, Cambridge, MA 02138
<http://www.harvardartmuseums.org>

하버드 미술관(Harvard Art Museum)이 건축 디자이너 렌조 피아노에 의해 새롭게 탄생되어 오는 16일 처음 모습을 드러낸다. 이번 리노베이션은 포그 미술관(Fogg Art Museum)과 부시 라이징어 미술관(The Busch-Reisinger Museum), 아서 M. 새클러 미술관(Arthur M. Sackler Museum)이 하나로 통합된 대공사로 2008년부터 장장 6년에 걸쳐 완성되었다.

새롭게 단장한 미술관은 7개의 층으로 나뉘어 기존의 갤러리보다 40% 가량 공간이 확장된다. 25만점 이상의 작품이 전시되는 이곳은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미술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피라미드형의 유리 지붕과 기프트샵, 카페, 300석의 극장 등이 새롭게 들

무료전화 1-888-666-170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만립
 Tel 617.739.2888
www.utsboston.net

Universe travel services
 100 Hano Street #23A, Allston, MA 02134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시민협회 제2회 차세대 심포지움 성황리에 개최

성공한 한인들의 사례를
통해 배우는 뜻 깊은 시간되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한인미국시민협회(회장 이경태, 이사장 김성군)가 지난 1일 토요일 제2회 차세대 심포지움을 개최해 젊은 한인들의 미주류 사회 진출을 위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한인 단체장, 시민협회 관계자들과 인턴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하버드 법대에서 오전 9시부터 열린 심포지움에는 미국 내 정계와 의료계, 법조계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6명의 연사들이

초청되었다. 그레이스 한 울프(버지니아 주 헌든 구 의원), 윤경복(KACF 사무총장), 제임스 민(도이치 포스트 DHL 국제 무역법 담당부 부회장), 라이언 승주 리(뉴욕대학교 치과대학 교수), 데이비드 림(필라델피아 차관보 지방검사), 션 킴(맥과이어 우즈 LLP 변호사)이 이날 연사로 참석해 차세대 한인들에게 강연과 조언을 제공했다.

이들은 참석자들에게 “각기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움직일 때 비로소 장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번 심포지움에서 첫 번째 연설을 맡은 버지니아 주 헌든 구 의원 그레이스 한 울프는 최초 한인 여성으로 당선

되어 현재 3선에 성공해 임기를 이어오는 중이다. 한 씨는 한인으로서 선출과정에서 겪은 어려운 경험을 나누며 한인 사회의 결속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앞서 성공한 한인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고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말하며 “학교 생활과 앞으로의 일상에 있어 더 적극적이고 노력하는 자세를 항상 잊지 않아야겠다”며 행사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시민협회 주관의 행사나 소식은 홈페이지(www.kacl-ne.org) 혹은 페이스북 페이지(Korean 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를 통해 접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시민협회 주최의 제2회 차세대 포럼이 지난 1일 토요일 하버드 법대에서 개최되었다

보스톤한국사랑회 연평도 포격 4년차 안보 포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한국사랑회(회장 이강원)는 오는 22일 토요일 매드포드(Medford) 소재 한식당 청기와에서 ‘연평도 포격 4년차’ 안보 포럼을 개최한다.

이강원 회장은 “11월 23일은 북한이 대한민국의 연평도에 무차별 포격을 가한지 4년이 되는 날이다. 그날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국민적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후손에게 평화롭고 부강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포럼의 취지를 밝혔다.

안보 포럼은 뉴잉글랜드 한인회 임원들과 해병대 동지회 임원 및 회

원들과 함께 합동으로 개최된다.

이날 포럼에는 김승진 위원이 ‘북한 정권의 대화와 위협과 도발의 양면성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며 이어 유한선 위원이 ‘박근혜 정부의 2년차 대북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할 예정이다. 특별히 노명석 뉴욕 향군 회장이 포럼에 참석하여 ‘한미 저작권 연장의 득과 실의 결과’라는 주제로 강연을 전달한다. 각 주제 발표 후 질의응답과 자유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문의사항은 보스톤한국사랑회 이강원 회장(339-227-2470)에게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이사회소집 및 참전용사 기념식 주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3차 이사회 소집이 오는 9일 일요일 오후 3시 크랜스턴(Cranston)에 위치한 파네라 브레드에서 진행된다.

이날 안건으로는 연말 총회를 위한 준비, 감사 및 이사 선출, 연말 결산, 한인회 사업 보고, 한인학교 현황보고, 한인회관 건립기금 현황보

고, 경제인협회 현황보고 등이 있다.

한편, 로드아일랜드 한인회는 오는 11일 오후 12시 30분 베테랑스 메모리얼 세메테리(R.I. Veterans Memorial Cemetery)에서 연례 참전용사 기념식을 주최할 예정이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기사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락처 : bostonkorean@hotmail.com, 617-254-4654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사고 상해
파산 보호
비즈니스/리스

IRS/DOR/UI
민/형사 소송
이민법

전화: (781)712-1706 CHANG & ASSOCIATES, P.C.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행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t. Ji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기자수첩

마사 코클리, 선거의 밤 파티마저 외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매사추세츠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 베이커에게 아쉽게 패배한 마사 코클리는 지난 4일 페어몬트 코플리 플라자(Fairmont Copley Plaza)에서 열린 선거의 밤 파티(Election Night Party)에 끝내 등장하지 않아 지지자들과 각 언론 매체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었다.

마사 코클리 선거위원회 관계자들과 지지자들은 저녁 8시부터 중간선거 결과를 함께 지켜보며 코클리를 기다렸다. 유난히 접전이래 승패결과가 늦게까지 나오지 않았다. 코클리 선거본부측은 개표가 채 끝나기도 전인 12시 30분께 “오늘 더 이상의 스피커(코클리)는 없을 것”이라며 행사를 마무리 지었다.

코클리는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암묵적으로 패배를 예상한 듯 등장하지 않았고 오랜 시간 동안 팽팽한 개표과정 지켜본 지지자들은 코클리가 얼굴을 비추지 않자 맥이 빠지고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그날 오후 4시 30분부터 자리를 뜨지 못하고 기다린 다양한 언론 매체의 기자들은 허무하게 장비를 싸야 했다.

바로 건너편 방에서 재선의 승리를 안고 쾌재를 부른 매사추세츠 상원의원 에드 마키(Ed Markey)의 파티와는 대조되는 결말을 보인 것이다.

초반 당선 파티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개표가 시작되고 미미하게 뒤쳐지던 코클리가 베이커를 따라잡자 연회장은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로 뜨거워졌다. 이날 참석한 한 코클리 지지자는 “역시 코클리는 매사추세츠의 주지사” 라고 외치며 분위기를 띄웠다



선거의 밤 파티에서 개표 결과를 기다리는 마사 코클리의 지지자들

참석자들은 각자의 스마트폰으로 개표 상황을 재차 확인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코클리의 선제 소식을 실시간으로 알려주었다.

하지만 상황은 급세 역전되었고 다들 스크린 너머 베이커 진영의 기빠하는 모습만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이날 선거는 90% 이상 개표가 진행되도록 승부수가 나지 않아 예상대로 접전이 펼쳐졌다.

코클리가 1% 차이로 베이커에게 계속 밀리는 가운데 처진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러닝메이트인 스티브 캐리건과 하원의원 캐서린 클라크 등이 무대에 올랐다. 캐리건은 “아직 희망을 걸 수 있는 표들이 남아있다. 마지막 한 표까지 쉼”이라며 “긴 밤이, 아니 새벽이, 될 것 같다. 인내를 갖고 기다려줘서 고맙다” 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지자들이 캐리건의 연설 후에 자리를 떠났고

점점 늦어지는 선거 결과에 다들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코클리 위원회 관계자 기자들에게 행사의 끝을 알린 것은 12시 20분께로 아직 선거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한 케냐 언론 관계자는 이와 같은 이례적인 상황에 대해 “코클리는 한마디 없이 이대로 끝낼 생각인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지지해준 사람들에게 이럴 수는 없다” 며 한숨을 쉬었다.

실제로 보스톤글로벌은 이날 새벽 아무런 공식적 입장도 표명하지 않은 채 집으로 귀가하는 코클리의 모습을 포착한 바 있다.

이번 중간선거의 승리는 결국 공화당 후보 찰리 베이커에게 돌아갔다. 두 후보의 표차는 약 4만표 정도로 겨우 2% 미만의 격차를 보이며 매사추세츠 주지사 선거 역사상 가장 치열한 승부가 아니었나 평가되고 있다.

dyoo9146@bostonkorea.com

베이커 근소한 차이로 주지사 당선

>>1면에 이어서

백 당선수락 연설을 연기했고 5일 아침에도 이를 생략했다.

코클리는 5일 아침 베이커를 축하하고 자신들의 지지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그녀는 “민주당 후보가 되어서 특별한 영광이었다, 비록 선거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지만 모든 유권자들이 승리했다” 고 밝혔다. 코클리의 패배로 매사추세츠 첫 흑인 주지사에 이은 첫 여성 주지사의 탄생이란 역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베이커는 중도 개혁가의 이미지로 유권자들에게 호소했으며 드별 패트릭 2기 정부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던 행정관료들의 무능과 비효율성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중도성향, 무소속 유권자 여성들을 타겟으로 부드러운 이미지를 선보이면서 많은 민주당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았다.

하버드를 졸업하고 지난 윌리엄 웰드 주지사 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재정부 장관을 역임했던 그는 다시 주지사로서 비컨힐에 돌아오게 됐다. 그는 관료직 이후 비영리 보험사였던 하버드 필그림 헬스케어의 CEO가 되어 당시 쓰러져 가던 회사를 일으켜 세웠다. 이는 롬니 전 주지사가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을 흑자로 만들어 그 이력서를 바탕으로 매사추세츠 주지사에 선출되고 추후 대선까지 도전했던 것과 유사하다.

베이커는 지난 2010년 현임 드

중도 성향 표방, 워싱턴 공화당과는 거리두기

별 패트릭 주지사에게 도전해 “우리는 지칠만큼 지쳤다” 는 슬로건을 내걸고 패트릭 행정부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강한 보수적 색채를 드러내 패배한 바 있다. 그는 당시 패배를 거울삼아 강하고 보수적인 입장에서 온건한 중도 입장을 취해 선거의 승리를 쟁취하는 능력을 선보였다.

특히 그는 보스톤을 중심으로 한 도시의 유권자들, 여성 유권자들에게 집중하며 비록 이들 표를 조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결국 보답을 받았다. 그는 민주당 텃밭인 매사추세츠에서 승리하기 위해 2,500명의 자원봉사자를 통해 250만번의 전화와 40만 가정 방문으로 열세를 만회했다.

또한 공화당 슈퍼팩의 마사 코클리에 대한 강력한 비난 광고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 무소속 후보로 나선 이반 팔척이 3%가 넘는 민주당 유권자를 흡수해준 것이 베이커에게는 커다란 도움이었다.

공화당 후보인 베이커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한인사회와 특별한 인연은 없다. 과거 미트 롬니 주지사나 드별 패트릭 주지사의 경우 한인사회에서도 선거자금 모금을 하는 등 관심을 기울였다.

editor@bostonkorea.com

COLDWELL BANKER
RESIDENTIAL BROKERAGE

부동산 중개인 김 현 구
Chris H. Kim, GRI Realtor

정직하고 성실하게 도와 드립니다
주택 무료 감정

Cell 617.694.0985

Brookline Office: 622 Hammond Street, Chestnut Hill, MA 02467 (B) 617-566-2447
Newton Office: 1261 Centre Street, Newton, MA 02459 (B) 617-969-2447

Covering Boston, Brookline, Newton, and Greater Boston
Chris.Kim@NEMoves.com

Century 21
SHAWMUT PROPERTIES

1274 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65

송 윤주 Realtor
Yoon Song

Direct: 857-636-0429
Email: Yoonjoo@centry21.com
Web: YoonBoston.com

주택 매매, 콘도, 수익성 부동산 투자, 렌트 전문 고객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Newton, Needham, Brookline, Belmont, Boston, Wellesley, Weston, Cambridge, Lexington 전문

惠民 Park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617-78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주지사 직 익숙한 베이커 인수위 및 조각에 총력

2014 매사추세츠 주지사 선거

웰드 주지사 시절
복지부, 재정부 장관
우익 싱크탱크 재직
보험사 최고경영자



선거 다음날 베이커는 당선 연설을 생략한 채 향후 인사 팀 구축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밝혔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찰리 베이커의 비컨힐 귀환은 무려 30여년전부터 해온 익숙한 일의 복귀다. 따라서 그는 먼저 자신이 함께 일할 팀의 조각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베이커는 보건복지부 장관 재정부 장관,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거주지인 스왓스카트의 시의원까지 지냈다. 또한 주의 우익 싱크탱크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며 주내 가장 큰 의료보험회사를 이끌기도 했다. 지난 2010년 선거 패배 이후에는 벤처 자본가로서 활약기도 했다.

그는 당선 이후 가장 우선적인 일로 최고의 팀을 꾸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미 개표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것을 챙겼을 정도다. 베이커는 “나는 매사추세츠를 가장 밝고 최고의 주로 만들 것이다” 라고 밝혔다. 그의 친구이자 매사추세츠 주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짐 발리 씨는 “그는 누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

는지 이미 잘 알고 있다” 고 말했다. 그의 인사 스타일은 위계적이지 않으며 능력이 되는 경우 어떤 주 공무원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주변의 이야기다. 그는 과거 웰드 주지사 시절 교육청의장이었던 제임스 페이지를 인수위원장으로 임명했다. 페이지는 선거 당일 드벌 패트릭 행정부에 전화해 수요일 당선 후 주지사과 당선자의 면담일정을 잡았었다.

이 면담은 실질적으로 이뤄지진 했지만 페이지가 개표가 끝나기도 전에 미뤄 짐작으로 면담일정을 잡은 것은 성급한 행동이었다는 것이 자체적 분석이었다. 실제적으로 그의 이런 행동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

베이커와 마찬가지로 페이지는 행정 경험과 함께 우익 싱크탱크인 파이어니어 인스티튜트의 대표를 지내기도 했다. 그가 베이커 핵심직으로 들어 앉은 것은 베이커가 자신이 과거 구축해왔던 네트워크에 기대겠다는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

는 이미 자신의 행정부를 채울 상당한 후보군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웰드 행정부 관료, 상공회의사, 하버드 필그림 헬스케어, 벤처캐피탈 회사 등 다양한 곳에서 자원을 구할 수 있다.

또한 그의 선거본부에서 일했던 커뮤니케이션 부장 팀 버클리와 정책담당 엘리자베스 마호니 등을 입각시킬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적으로 베이커를 지지한 민주당의원들의 중용도 관심거리다.

그는 선거기간 동안 즐기차게 민주당과의 협력을 통해 정치를 이끌어 가겠다고 밝혀 온만큼 다른 주의 공화당 주지사들과 달리 경력한 이념적 편향보다는 온건한 정책을 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제적으로 민주당인 절대 다수인 매사추세츠 의회의 협력을 얻어야만 그의 주지사 직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현실을 잘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hsb@bostonkorea.com



코클리, “개 데리고 산책하고 싶다”

두번의 선거 패배, 61세 코클리 정치적 장래 불투명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첫 여성 주지사의 꿈을 접은 마사 코클리는 비록 결과에는 실망했지만 지금까지 자신이 추구해 왔던 것과 선거본부를 운영했던 방식은 결코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사 코클리는 5일 아침 11시 서머빌 선거본부에서 드벌 패트릭 주지사, 엘리자베스 워렌 등 주요 민주당 인사들이 참석하고 300여명의 지지자들이 모인 가운데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코클리는 몇번이고 울먹였다.

“나는 주민들에게 관심을 갖는 주인 매사추세츠의 민주당원인 것이 자랑스럽다. 이 자리에 있게 해준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선거를 도와준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일해 가는 것” 이라고 말했다.

코클리는 “내가 관심 있어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 앞으로 매사추세츠주 사람들을 위해 계속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이것이 어떤 형식이 될 것인지 아직은 모르겠다” 고 말했다.

일부 정치 전문가들은 코클리가 두번이나 주 전체 선거에서 패배했으며 앞으로 민주당 내에서 더 많은 유력한 후보들이 나설 것이므로

마사 코클리의 정치 경력이 이제 거의 마감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날 코클리는 자신의 인생을 뒤 돌아보며 지지자, 동료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여자들을 받지 않던 윌리엄스 칼리지에 처음으로 입학하게 된 것, 자신의 엄마가 대학교육을 받지 못했던 것,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들을 전하며 젊은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전하라고 권했다.

코클리는 1997년 미들섹스 지검 실아동폭력부장으로 재직시 아이를 흔들어 죽인 영국 보모를 기소하면서 스타덤에 올랐다. 1997년 미들섹스 지역 검사에 선출된 후 2006년 검찰총장으로 선출되었다. 2010년 보궐선거에서 스캇브라운에게 패배해 정치적인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그 해 말 다시 검찰총장 재선에 성공, 정치생명의 불씨를 살렸었다.

코클리는 지금껏 주지사 선거 출마가 마지막 공직선거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 해왔지만 5일 이를 밝히지는 않았다. 5일 이후의 일정에 대해 그녀는 남편과 점심을 먹은 후 두 마리 레브라도 리트리버 개들과 함께 긴 산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은혜한의원
Grace Acupuncture & Oriental Medicine

원장 **백승희**
(경희한의대 42기)

각종 상해, 의료보험 취급 / 편리한 주차

781.862.1842

442 Mar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21
www.graceaom.com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름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DongWon Kim DMD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매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Educational Consulting Department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히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Academic Tutoring Department

SAT, SSAT, TOEFL, Writing 전문 학원

대표 강사 부원장: James Kim, Harvard, Yale 철학 전공

책임 강사: Robin Burns,
Stanford Univ. English Major, MS, BA, 수석 졸업,
SAT Verbal 800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Math, Essay Writing, Physics, Chemistry, Biology, History, Spanish, French, Latin, TOEFL, SSAT, ISEE SAT, ACT

\$70-100/hr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집중반	7월6일-8월 20일, 월, 수,	10 AM-1PM	\$1250	실전 테스트 5회
개인 지도	학생이 지정		\$60-\$80 여름 특별가	전 과목

단 주 1회 실전 테스트 일은 10 AM-1:30 PM, 최소 인원 3명

여름 방학 특강 (서울)

개인지도 혹은 4인 이하 소 그룹: 문의 02-579-9731

지도과목: SAT, ACT, AP US History, AP English, SSAT, TOEFL, Reading/Writing

기숙학교 연중 프로그램(안전한 홈스테이, 항공, 교통편 제공)

Program	기간	그룹 지도	개인 지도	제공서비스
추수 감사절	11월 중순-말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성탄 휴가	12월 중순-말	SAT, SSAT,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봄방학	3월중 3주간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이 프로그램 들은 2001년 부터 6년 째 제공되고 있는 정평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학부모가 이 기간 중 한국에서 오시는 경우 편안한 장기 투숙 안내 제공.

- 주말 교통편, 홈 스테이, 학업 지도, 봉사 활동 제공 - 학생이 필요한 과목별 개인 지도, 유학생을 위한 집중 영어 쓰기 지도 제공
- 한 학교에서 3명 이상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오는 경우 할인 혜택
- SAT는 CR과 Writing점수목표가 650-750사이인 학생을 목표로 함. SSAT는 80-99%를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한 클래스임.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402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캄보디아 출신 지압사 MA주 하원의원 당선

2014 매사추세츠 선거

레디 맘 최초 캄보디아인 주 하원의원 된다



캄보디아계 레디 맘(45)의원이 로웰에서 당선되어 주 정계에 입문한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캄보디아계 정치 초보생 레디 맘이 지난 4일 실시된 주 하원의원 로웰지역 선거에서 당선됐다. 로웰시 캄보디아 계의 열렬한 지지를 등에 업고 당선된 레디 맘 의원은 미국내 최초의 캄보디아계 주 하원의원이 될 전망이다.

올해 45세인 지압사 출신의 레디 맘은 18 미들섹스 하원지역구에서 61% 즉 3,847표를 득표해 프레드 바호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12살 때인 1982년 크메르 루주 정권을 피해 미국으로 이주한 맘은 캄보디아인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그는 캄보디아인 상호보조협회, 앵콜 댄스패, 크메르 문화 카운슬 등에서 활동해왔다. 캄보디아 커뮤니티는 그로인해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됐다.

로웰 썬 신문에 따르면 조용한 목소리를 가진 맘은 가족들과 함께 연

단에 서서 8분간 연설했다. 그는 예비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했던 연설보다 훨씬 더 세련된 연설 솜씨를 보였다. 로웰 선은 평가했다.

맘은 “모든 주민들의 관심사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것이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나의 관심사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다” 고 말하고 로웰 시와 비컨힐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 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05년 로웰시의 시의원으로 출마했었던 경험이 있다. 지난 9월 경선에서 4명의 민주당 후보자들

을 물리치고 승리했으며 4일에는 무소속 바호를 물리치고 의원으로 당선됐다.

보스톤 글로브 매거진은 이번 주말판에서 그에 대한 특집 기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영어를 한 마디도 못했으며 한때 아버지를 위해 승려가 되었던 레디 맘은 이제 주 하원의원이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이민자들을 위해 봉사할 예정이다.

그는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한다.

hsb@bostonkorea.com

하버드 출석 점검 몰래 카메라 논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정성일 기자 = 미국 최고의 명문 대학인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수와 학생 몰래 강의실을 촬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 측에서 수업 태도와 출석률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봄학기 2천여명의 학생들을 10여개의 강의실에서 촬영한 것이다.

교수와 학생에게 사전 공지 없이 강의실을 촬영한 사실은 지난 4일 하버드 대학교 교수모임에서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이 자리에서 하버드 대학 교수들은 연구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은 사생활 침해라며 학교측을 비난했다.

하버드 대학의 해리 루이스 컴퓨터 공학 교수는 “연구를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허락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고 말했다.

강의실에 설치된 카메라는 하버드 대학교 교무처의 승인 하에 설치되었다. 카메라는 강의실 화면을 분 단위로 촬영하고, 촬영된 이미지는 컴퓨터로 스캔되어 몇 명이 수업을 참여하고 있는지, 몇 자리가 비어있는지를 자동으로 기록하였다.

하버드 대학교는 현재까지 어떤 수업에서 어떤 학생들이 촬영되었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버드 대학교의 드류 파우스트 총장은 이번 일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jsi@bostonkorea.com



찰스 강에서 바라본 하버드 대학, 평화로워 보이지만 실제로 몰카가 감시기도 했다

정관장

정관장 정품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브랜드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환절기 건강 걱정 끝! 우리가족 건강지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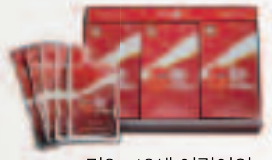
홍삼



만3~5세 유아의
홍이장군 양아롱



만5~9세 어린이의
홍이장군



만9~13세 어린이의
홍이장군 울릉



공부하는 학생들의
아이패스


모든 자녀용 복방제품

10% O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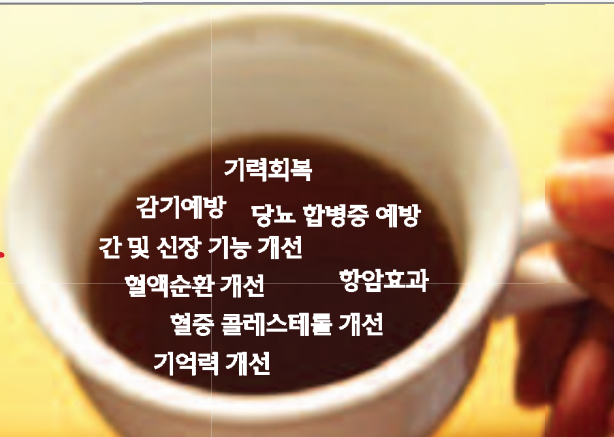
11월12일까지 2주간!

행사 제품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니
서둘러 구입해 주세요~

KGC인삼공사



하루 2번,
건강을 지키는 습관



기력회복
감기예방 당뇨 합병증 예방
간 및 신장 기능 개선
혈액순환 개선 항암효과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기억력 개선

전화주문 서비스

FedEx 로 주문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781-238-0303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MART Burlington점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카지노 유지되고 유급 병가 의무화

생수병 유료화 반대
유류세 물가인상 연계 반대



렉싱턴 소재 한 투표구에서 투표용지에 표기하고 있는 한 한인 유권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지난 4일 치러진 선거에서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4가지 사안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직접 투표로 나타냈다. 올해 주민투표 안건은 매사추세츠 주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법안들이었기 때문에 선거 결과 못지 않게 주민투표 결과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

각 주민투표 법안별로 투표 결과와 그 영향을 살펴보자.

질문1: 유류세(Gas Tax)

작년에 매사추세츠 의회에서 통과되어 법제화된 유류세 자동 인상 법안을 폐기할지에 대해 묻는 질문이었다. 해당 법안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이 자동으로 인상되도록 하는 법안이다.

YES: 53% (1,091,131)

NO: 47% (968,909)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유류세 자동 인상 법안을 폐기하자는 쪽에 YES라고 답했다. 따라서 2013년에 만들어진 법안은 폐기되고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은 갤런당 24센트로 고정된다. 앞으로 유류세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따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질문2: 생수병(Bottle Bill)

맥주나 탄산음료가 담겨 있는 병과

캔에 부과되는 디파짓을 생수나 주스 등의 대부분의 음료수병에 확대 적용할지를 묻는 질문이었다. 디파짓이 추가되면 더 많은 병들이 재활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만큼 초기 구입 비용이 증가한다.

YES: 26.5% (561,635)

NO: 73.5% (1,555,858)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다른 음료수 병까지 디파짓이 확대 적용되는 것에 반대했다. 생수병을 포함한 음료수 가격이 오르지 않고 재활용을 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지 않는다.

질문3: 카지노 법안(Casino Law)

2011년에 통과된 카지노 법안을 매사추세츠 주민들이 바꿀 수 있는 질문이었다. 기존 법은 매사추세츠에 3개의 카지노와 1개의 슬롯머신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YES: 39.9% (840,589)

NO: 60.1% (1,268,040)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카지노 법안을 폐기하는데 반대했다. 즉 기존에 있는 법안대로 매사추세츠 주에 카지노와 슬롯머신이 들어서게 되며, 현재 진행 중인 카지노 리조트 건설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

질문4: 유급 병가(Paid Sick Days)

회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주어졌던 유급 병가를 법으로 의무화 할지를 묻는 질문이었다. 기존에는 관련 법규가 없었다.

YES: 59.4% (1,252,197)

NO: 40.6% (856,280)

앞으로 11명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회사는 직원들에게 30시간당 1시간에 해당하는 유급 병가를 주어야 한다. 유급 병가는 1년에 최대 40시간까지 쓸 수 있으며 해당 법안은 내년 7월부터 발효된다.

jsi@bostonkorea.com

뉴햄프셔 친근한 토박이 진 웨인 택했다

픽업트럭과 반 코트 등 서민 이미지 유세 안 통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뉴햄프셔 주민들은 자신들을 대표할 연방 상원의원으로 매사추세츠에서 건너간 스캇 브라운 대신 민주당 현임 상원의원인 제인 웨인을 택했다.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이 줄줄이 낙마했지만 뉴햄프셔를 잘 아는 토박이로서 유권자에 호소할 웨인 의원은 선택을 받았다

지난 2012년 매사추세츠 연방상원 선거에서 엘리자베스 워렌에게 패배한 스캇 브라운 전 상원의원은 뉴햄프셔에서 재기를 노렸지만 51.6%대 48.4%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다.

웨인은 뉴햄프셔에서 처음으로 주지사와 연방 상원의원을 지내는 등 오랫동안 뉴햄프셔 정가에서 경력을 쌓아온 베테랑 정치인. 뉴햄프셔 주민들은 자신들을 잘 아는 후보를 선택한 것이다.

스캇 브라운 전 상원의원은 웨인과 민주당의 문제점을 공격하는데 방점을 찍었지만 결코 자신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다. 뉴햄프셔의 반 오바마 정서에 편승하고자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스캇 브라운이 주장한 것은 주로 자신이 중도적인 위치를 택할 것에 집중됐다. 뚜렷하게 상원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그는 웨인이 오바마 대통령의 안에 99% 투표했다는 점을 들면서 공격했다. IS의 테러, 에볼라, 그리고 미 국경 안보들을 거론하며 유권자들에게 두려움을 주었다.

반면 3선 주지사 임기를 지낸 웨인은 뉴햄프셔 유권자들에 대한 깊숙히 잘 아는 모습을 보였고 겨우 이사한지 1년된 브라운은 뉴햄프셔가 가장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넓혀진 93번 도로 통근자, 베를린에 신축된 감옥에서 근무하는 간수들, 포츠머스 네이비십야드 근로자들 모두가 웨인이 추진한 정책의 혜택자들이었다.

농장 코트를 입고 픽업트럭을 몰며 독특한 서민 스타일의 스캇 브라운의 선거는 이미 매사추세츠에서 사용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 결국 유권자들의 표심은 이런 스타일의 브라운 보다는 자신들에게 혜택을 가져다 주는 웨인에게 기울었다. hsb@bostonkorea.com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미주 전체 New Star Realty 금 탐 수상

Gina Choi

Realtor, MBA
978-866-3248
ginachoi@newstarrealty.com
http://blog.naver.com/newstargina

안녕하세요. New Star Realty의 지니 최입니다. 1997년에 보스턴 지역으로 유학을 와서 학부와 대학원(MBA)을 마치고 다년간 BOSTON과 CAMBRIDGE 지역에서 직장 생활로 각 지역마다의 장점, 단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업중이며 불경기에도 10년 이상의 가족 비즈니스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자리에 집과 사업체 매매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 Lexington, MA 02420
Tel: (781) 259-4989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 969-4989

EXCLUSIVE




BEDFORD 지역 단독주택

(3 CEDAR LANE, BEDFORD, MA 01730)

For sale: \$ 599,000, For rent: \$ 2,350

3+ Beds, 2 Bath, 2238 sf (Lot size: 1.3 acre)
학군 좋은 Bedford지역 Single House, CUL-DU-SAC,
Private한 곳에 위치, 넓은 정원

공화당 상하원 입법부 장악 ... 오바마케어, 이민법 등 물거품되나

2014 중간선거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4일 치러진 미국의 중간선거에서는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상원(현재 민주당 55: 공화 45)에서도 다수당을 확보, 오바마 대통령 취임 6년만에 미국 정치에서 힘의 균형이 재편될 전망이다.

최근까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하원을 통과한 법안을 부결시키는 상원이 있었다. 이 방패막이마저 없어지면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법안을 보낼 때마다 서명하거나 아니면 거부해야 한다. 이 상황은 정치적 교착상태로 이어질 것이라 진단이 나온다. 하지만 양측이 합의점을 찾아 절충 가능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 기대도 있다.

◇'오바마케어' 백지화 안되면 대화 없어

비관적으로는 정치적 교착상태가 2016년 선거 때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동안의 정치 상황이 이를 뒷받침 해준다. 민주당과 공화 양 당은 주요 이슈에서 사사건건 맞섰다.

특히 보수 강경론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케어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한 대통령과 협력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헤리티지 재단이 만든 '헤리티지 액션'의 최고경영자 마이클 니드햄은 2013년 정부부패(셋다운)은 공화당에 타격을 준 것이 아니라 오바마케어에 대한 값진 논쟁을 촉발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협상 불가' 진영은 대선 레이스가 가까워지면 더욱 큰 목소리를 낼 것



미국의 유권자들은 2014년 우향우를 선택했다

로 보인다. 공화당의 보수 강경 세력을 대변하는 테드 크루즈 의원은 대선 후보의 입장을 굳건히 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 맹공을 펼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공화당이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정부가 작동하지 않는 것을 보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그동안 민주당은 공화당과는 협상한다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봤다. 이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앞으로 남은 2년 임기 동안에 의회를 외면하고 행정 명령과 연방제도에 의거해 온실가스 배출감축, 불법이민자 국외추방 금지 등 진보적 내용의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비관론적으로 보면, 2016년 선거 전까지 중요법안은 거의 하나도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다.

◇대선 승리를 위해 실용주의 노선 앞세울 수도

하지만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모두 장악했지만 강경 일변도 큰 목소리를 내기는 어렵다. 공화당이 긍정적 아젠다를 내놓지 못한다면 2016년 선거에서 대패할 수도 있다. 또 오바마 대

통령이 정치적 유산(공적)을 원한다면 공화당과 협력할 수밖에 없다. 상황을 낙관적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최소한 대통령과 양 당 내 중도와 등에게는 수용할 수 있는 정치 색깔이 약한 몇몇 이슈들이 있고 이것들은 새로운 정치 지형에서도 대화의 주제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무역 협정과 인프라 지출, 심지어 지난 6년 동안 정치적으로 '뜨거운 감자'였던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등에서 이해가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미 행정부는 캐나다 알버타주에 있는 타르 샌즈 원유를 일일 최대 83만 배럴 규모로 텍사스만 정유설비에 보내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결정을 미뤘다. 현재까지 상원 민주당은 지지자들과 환경보전론자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이 파이프라인에 청신호를 보낼 수 있는 입법화를 회피해왔다. 공화당이 상원을 차지하면 오는 1월에 상황은 바뀔 수 있다. 이 지점에서 대통령은 지지자들이 원하는 보다 광범위한 에너지 법제화를 위해 협상을 해야만 한다.

미국 하원 예산위원장인 폴 라이언 공화당 의원은 유리한 위치를 이용해

8년만에 여소야대 현상 공화당 중간선거 압승

(서울=연합뉴스) 최종일 기자 =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신임 투표의 성격도 갖고 있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공화당이 대승을 거두며 명실상부한 '여소야대' 정국이 열렸다.

미국 동부시간 5일 오전 3시 40분 현재 상원에서 민주당은 45석, 공화당은 52석을 확보했다. 나머지 경합 중인 버지니아, 알래스카, 루이지애나 등 3개 주에서는 과반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오는 12월 6일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공화당은 현재 하원에서 241석, 민주당은 174석을 확보했다. CNBC 등은 공화당이 250석, 민주당이 185석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공화당은 하원에서 1946년의 기록(247석)을 뛰어넘는 압승을 기록한다.

선거 전 의석수는 상원(정수 100)의 경우 민주당 55, 공화 45석이였다.

하원(435석)에선 민주당 199석, 공화 233석, 공석 3석이였다. 이번 선거에서는 상원 36석(의원 사직 등에 따른 특별 선거 3석 포함)과 하원에서 야당의 의석수가 얼마나 늘어날지가 관심의 초점이었다.

공화당은 상원 선거에서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평가받던 노스캐롤라이나 등에서 승리했고, 하원 선거에서는 쉽지 않은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 캔자스 등에서도 이겼다.

또 주지사 선거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일리노이주를 포함해 여러 곳에서 승리했다.

특히 공화당은 상원에서 접전이 예상됐던 10개 지역 가운데 8곳에서 승리를 거두며 8년만에 다수당 지위를 탈환했다.

공화당의 상하 양원 장악은 2006년 선거 이후 처음이다.

cji@new1.kr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할 만한 법안들 뿐 아니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들도 대통령 앞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승인을 물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한다면 일자리 창출을 막았다고 비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맞물려 대통령의 리더십이 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야당이 장악한 의회에 효과적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정책을 의논하는 측근(influencer)을 확대하고 협상의 방법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WSJ과 NBC가 지난 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3분의 2가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은 "크게" 혹은 "다소"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이 민주당에 속하고 상하 양원을 공화당이 장악했던 가장 최근 시절은 빌 클린턴 행정부 때이다. 전문가들은 클린턴 당시 대통령에게 복직 개혁 등 다수의 공화당 추진 법안의 처리 공로를 인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적 유연성을 갖췄다면 현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한다. 팩스뉴스는 전했다.

안티바! (TBO)가 티보 플레이(TBO Play)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더 좋은 서비스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Welcome, **TBO**

티보 VIP 할인!

11월, 12월 VIP 할인 이벤트

\$29.99 (2년 약정시)

기회를 잡으세요!

이벤트 기간 2014년 11월~12월

이벤트 내용
이벤트 기간중에 가입 고객은 1년간 VIP \$29.99 (1년 이후 \$34.99)

문의 및 연락처
보스톤코리아 TV 사업국
617.955.9112
지금 연락하세요

KBS, MBC, SBS, SBS Plus, tvN, XTV, O'live, aCN

The Best OnDemand, TBO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주택매매, 구입, 임차/사업체알선

Century 21 Avon

김택운
Realtor

Cell: **(617) 678-9330**

Fax: (617) 497-9947 E-mail: tkim@century21avon.com
1675 Massachusetts Avenue, Cambridge, MA 02138

MED ACUPRESSURE

지압치료(Acupressure Therapy)
햇스톤
속 눈법 연장, 웨이셀

전화 예약 : 617-970-6038 , 617-558-8870
시간 : 월요일 ~ 토요일 (10am ~ 8pm)
주소 : 634 Commonwealth ave (#204)
Newton center, MA 02459
website : http://www.medacupressure.com

'애플 OS 겨냥' 새로운 바이러스 발견

- 와이어러커라 불려
- 애플 폰, 아이패드 등에 원하지 않는 앱 설치



애플폰도 이제 바이러스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유창엽 기자 = 애플 운영체제(OS)를 겨냥한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 정보기술(IT) 보안업체인 팔러앨토 네트워크가 애플의 iOS, OS X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 바이러스를 발견했다며 이에 따라 아이폰, 아이패드 등 애플 제품 사용자들이 새 바이러스에 의한 사이버 공격도 대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와이어러커'(WireLurker)로 불리는 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iOS 애플리케이션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바이러스가 이 iOS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밝혀진 것은 처음이다.

이 바이러스는 iOS로 운영되는 애플 제품에 원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들 애플리케이션 가운데 하나는 USB를 통해 iOS를 공격할 수 있다고 팔러앨토 네트워크는 설명했다.

이 업체의 한 관계자는 "이번 발견은 바이러스 개발기술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애플의 iOS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와 같은 경쟁대상들보다 바이러스에 훨씬 더 잘 견딜 수 있는 것으로 그동안

인식돼왔다.

앞서 러시아 IT 보안업체 카스퍼스키랩의 최고경영자(CEO)인 유진 카스퍼스키는 애플도 바이러스 문제에 직면해 애플과 고객들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난해 경고한 바 있다.

팔러앨토 네트워크는 자체 웹사이트에 와이어러커에 관한 보고서를 올려 애플과 고객들이 스스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yct9423@yna.co.kr



윈도 8이제 뒤안길로, 소매 중지 윈도 7 일부 버전 PC탑재 중단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임화섭 특파원 =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소프트(MS)가 윈도 8의 소매 패키지 판매와 윈도 7 일부 버전의 PC 탑재 판매를 중단했다.

이는 MS가 예고한 일정에 따른 것이다. 현재 MS의 최신 운영체제는 윈도 8.1이며, 내년 하반기에는 '윈도 10'이 나올 예정이다.

3일(미국 태평양 시간) 소프트웨어 업계에 따르면 MS는 지난달 31일 소매점의 윈도 8 패키지 판매를 출시 2년여 만에 공식적으로 중단했다.

이에 따라 소매점들은 재고로 있는 윈도 8 패키지만 판매할 수 있고 새로 MS에 이를 주문할 수는 없다.

다만 윈도 8의 지원은 2023년 1월까지 계속되며, PC 제조업체를 통한 판매도 계속될 예정이다.

MS는 윈도 7 홈 베이식, 홈 프리미엄, 얼티밋 버전의 PC 탑재 판매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이 버전들은 이미 설치된 상태로 출고된 PC로만 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윈도 7 프로페셔널 버전은 PC 탑재 판매가 계속될 예정이다.

또 볼륨 라이선스를 하는 기업 고객은 다운그레이드를 해서 예전 버전을 쓸 수도 있다.

넷마켓세어 자료에 따르면 웹에 접속하는 PC 중 윈도 8이나 8.1을 쓰는 기기의 비율은 16.8%에 불과하며, 윈도 7이 시장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단종된 지 오래된 윈도 XP의 시장점유율은 17.2%로 윈도 8과 8.1을 합한 것보다 더 높다.

공화당 압승에 달러강세... 엔/달러환율 7년래 최고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미국 달러가 5일 공화당의 중간 선거 압승과 민간고용 호조 등으로 인해 강세를 나타냈다. 특히 엔/달러 환율은 7년래 최고를 기록했다.

이날 뉴욕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114.70엔에 거래돼 전 거래일의 113.67엔보다 상승(엔화 가치 하락)했다. 엔/달러 환율은 장중 114.83엔까지 올라 2007년 11월 이후 7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유로화는 이날 1.2484달러에 거래돼 전 거래일의 1.2545달러보다 하락(유로화 약세)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ICE달러 인덱스는 이날 87.535로 전날보다 0.51% 상승했다.

4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했다. 공화당의 압승으로 기업 친화적 정책이 펼쳐지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더 때파적 성향이 되면서 금리인상 시기를

앞당기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됐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민간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인 것도 달러 강세에 영향을 미쳤다.

고용조사업체인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은 이날 지난달 미국의 민간 신규 고용자 수가 23만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22만명을 웃돌고, 지난 9월의 22만5000명보다 높은 수준이다.

ungaungae@news1.kr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 예상치 하회

(서울=뉴스1) = 미국 노동부는 주간(~11월1일)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전주 대비 1만건 감소한 27만8000건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시장 예상치를 8000건 밑돈 수

준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25일까지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가 28만7000건이었다고 당초 발표했지만 이번에 1000건 상향 수정했다.



Come to Chungdahm ReadWrite Vacation Days

Sign Up Now!

No school on November 11th Tuesday?

Vacation Days is an all-day program designed to give students a leg up and have fun during school holidays. Students will work on school assignments, improve their reading and writing skills, and participate in plenty of creative fun.

- When:**
 Vacation Days is offered the following holidays:
November 11th Tuesday
January 19th Monday
February 16th-20th Monday-Friday
April 3rd Friday
April 20th-24th Monday-Friday

Time:
From 9:00am to 3:00pm

Schedule:
 9:00am- 9:30am Homework Hall: Reading and Homework Completion
 9:30am- 11:00am Snack and Outdoor Activities or Indoor Exercise
 11:00am- 12:30pm ReadWrite Class
 12:30pm- 1:00pm Lunch
 1:00pm- 1:45pm Homework Hall and Essay Writing
 1:45pm- 3:00pm Free Choice Fun - Choose your own creative projects, board games, and more!

Price:
 For Chungdahm ReadWrite students: \$60/day
 For other students: \$72/day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www.BostonReadWrite.com/schedul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이메일 info@BostonReadWrite.com 이나 전화 857-404-0170 으로 연락바랍니다. 무료 Trial 클래스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메일이나 전화로 신청하세요!

TASTE OF KOREA

코리아나

KOREANA RESTAURANT

코리아나에서 **블랙앵거스 비프** 를 시작합니다

최상의 품질의 바베큐를 제공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BEST OF BOSTON
2006

BEST OF BOSTON
2001

BEST OF BOSTON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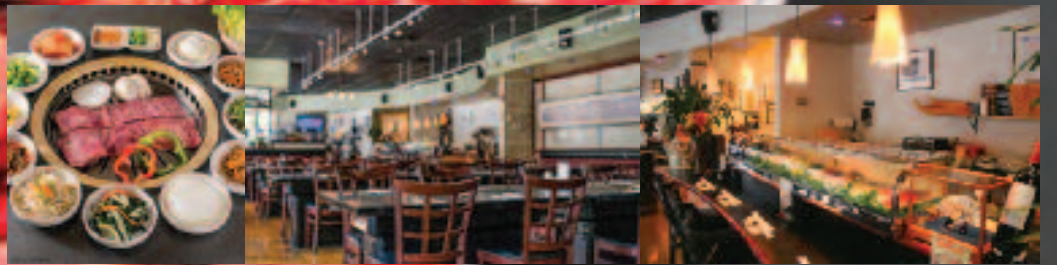


Parking Information

1. 주유소주차, Broadway Gas Station (Mon~Sat: After 6pm), (Sun, Holiday: All Day)
2. 건물 뒤 주차장, Drive Way(Behind Building) (Lunch: 4 Cars), (Dinner: 2 Cars)
3. 도로주차, Broadway Play Ground 옆 (2 Hours Free Parking: 8am~6pm), (After 6pm: Free) (Sun: All Day Free)

*이외에도 Free Parking 가능한 곳이 Restaurant 가까이에 여러곳이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최상급 블랙 앵거스 비프를 사용한 코리아나의 바베큐를 맛보세요



617.576.8661
www.koreanaboston.com

영업시간
일요일-목요일(11:30AM~10:30PM)
금요일-토요일(11:30AM~12:00AM)
158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헤어 앤드 그레이스 살롱
처음 고객님 20% 할인

헤어컷
컬러, 하이라이트, 코팅
트리트먼트
Up-Do
메이컵
매니-페디큐어
왁싱
각종 펌

웨딩헤어+메이컵
일요일도
예약받습니다

예약문의 **508-879-7777**
Natick Mall에서
3분 거리
914 Concord St.
Framingham, MA 01701

해경·소방청 해체, 국민안전처 신설...세월호 3법 타결

11월7일 본회의서 세월호 3법 처리...세월호 참사 199일째 만에 최종 합의

(서울=뉴스1) 김현, 박상휘, 김유대, 김영신, 유기림, 서미선 기자 = 여야는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소위 세월호 3법을 처리키로 했던 마지막 날인 31일 극적으로 일괄 타결했다.

여야는 오는 11월7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3법을 처리키로 했다. 이로써 세월호 특별법은 참사 발생 199일째 만에 최종 합의를 도출하게 됐으며, 206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국민안전처 및 청와대 재난안전비서관 신설

여야는 우선 정부조직법과 관련,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 부서로서 국무총리 직속의 장관급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대통령비서실에 재난안전비서관을 두기로 뜻을 모았다.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일부 업무를 조정해 각각 국민안전처 산하의 차관급으로 치안총감이 본부장인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소방총

감이 본부장인 중앙소방본부로 설치키로 했다.

다만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는 국민안전처 장관의 지휘 아래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해경안전본부는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했으며, 해양교통관제센터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공동관리하도록 했다.

중앙소방본부의 소방·구조·구급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세 도입을 통해 소방예산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지방직인 소방관들을 단계적으로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인력 충원을 추진하도록 노력키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국무총리 산하에 차관급 기관으로 두고, 교육·사회·문화정책에 관한 부총리를 두되 교육 부장관이 겸임토록 했다.

◇유족 추천인사가 특위위원장 맡기로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선 특별법에 따라 세월호참사의 진상조사를 담당할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총 17명으로 꾸리고, 진상규명소위·안전사회소위·지원소위 등을 두기로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세월호 3법 최종 합의 후 악수하고 있다

. 특위 위원 구성은 여야가 각 5명(상임위원 각 1명 포함)씩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2명(상임위원 1명 포함),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명(상임위원 1명 포함)을 지명하며,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3명(상임위원 1명 포함)을 선출키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 상임위원, 진상규명소위 위원장은 야당 추천 상임위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

특위는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되 특위 의결로 1회에 한해 6개월 이내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보고

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해 1회에 한해 3개월 이내에서 활동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위는 세월호 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와 시설에 출입해 자료나 물건에 대해 실지조사를 할 수 있고, 세월호 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시를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응하도록 했다.

특히 정당한 이유 없이 특위 차원의 청문회에 출석·선서·증언하지 않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증인 등에 대해선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기로 했다.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

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엔 동행명령장 발부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조사권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일명 유병언법과 관련해선 다중인명피해사고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상의 추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집행할 수 있도록 했고, 몰수·추징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정보·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요청·압수·수색·검증영장의 도입 등 재산추적수단을 강화토록 했다.

gayunlove@news1.kr

Cheap or Quality?

ASC : Boston's #1 ESL School

Fall class starts on September 2nd!



1 ESL or TOEFL 10% Off

Speak to an advisor now!
10% off total tuition for at least 4 months of enrollment. Limited Offer. Book by **September 2nd** for this discount.

2 What makes us different? These colleges accept...

The Level 5 "TOEFL/IELTS Waiver" applies for		The Level 4 "TOEFL Waiver" applies for
Northeastern Univ.	Pre-MBA Program	Benjamin Franklin Institute of Technology
Cambridge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Quincy College
Lasell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Middlesex Community College
Lesley University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Merrimack College	Undergraduate (lv. 5) Graduate (lv. 6)	The Level 6 "TOEFL Waiver" applies for
Boston Architectural College		Southern New Hampshire University



Main: 1106 Commonwealth Ave. Boston, MA 02215 T. (617) 730-3705
Downtown: 65 Harrison Ave. 6th Fl., Boston, MA 02111 T. (617) 338-5288
Website: www.ascenglish.com

H MART

Yes, We are **OPEN 365** days a year!
SALE WEEK NOV. 7, 2014 - NOV. 13, 2014
ONLY FOR HMART BURLINGTON STORE
 STORE HOURS: SUN~THU. 8:00 AM - 9:00 PM | FRI.~SAT. 8:00 AM - 10:00 PM
 All prices are based on availability. Typographical errors may be present in the prices and descriptions.
 수량에 따라 세일이 일찍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광고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인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CUSTOMER SERVICE
 For coupons, Event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Toll Free No.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RESH! HEALTHY! "TENDER" SWEET!
A KOREAN TRADITION MADE IN AMERICA. SINCE 1982.
 ORGANIC! "SIZZLING" CRISPY! "JUICY"

마트 최고이기 브랜드 특가세일
Big Brands

SUPER SAVINGS!

NOV. 7 - NOV. 16, 2014
 Come enjoy unbeatable deals on some of our best selling items!
 2014년 고객이 선정한 핫 브랜드의 다양한 인기 상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세요!



EAT RED MEAT Sale

마트 신선정육 대특가전
 SHOCKING PRICES ON ALL YOUR FAVORITE MEATS AT HMART. ENJOY THE GIGANTIC SAVINGS ALL WEEK LONG.

<p>BEEF SHORT 찜갈비 RIB CHUNK FOR STEW \$10.99 lb.</p>	<p>냉동 삼겹양지 슬라이스 SLICED BEEF SHORT PLATE \$7.99 lb.</p>	<p>양념 소불고기 MARINATED SLICED BEEF RIB EYE FOR BULGOGI \$6.99 lb.</p>	<p>소 사태 BEEF HEEL MEAT \$6.99 lb.</p>	<p>양념 돼지 별집 목살 스테이크 MARINATED TENDERIZED SLICED PORK CT BUTT STEAK \$4.99 lb.</p>
--	--	---	---	---

NEW CROP Haru Haru Rice

Premium rice at our lowest price, available only at Hmart. Enjoy the flavor of our newest crop, right now at our most special price. Savings that's so delicious you can't pass it up.

프리미엄 하루하루 마이 햅쌀 출하!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고 햅쌀을 섞어 더욱 식감이 좋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프리미엄 하루하루 마이 햅쌀을 마트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p>Fuyu 단감 박스 box \$11.99</p>	<p>Radish 무 박스 box \$14.99</p>	<p>Korean Singo Pear 한국 신고배 박스 box \$27.99</p>	<p>Koimo Sweet Potato 코이모 고구마 lb. \$1.49</p>	<p>Chinese Eggplant 중국 가지 lb. \$0.99</p>
<p>Beef Bones 냉동 사골 lb. \$1.49</p>	<p>Smoked Duck 훈제 오리 lb. \$16.99</p>	<p>Salted Pacific Saury 자반꽂치 lb. \$2.99</p>	<p>Unagi Kabayaki 우나기 8oz./pkg. \$7.49</p>	<p>Scrod Cod 통대구 lb. \$3.99</p>
<p>TONGYOUNG Cleaned & Gutted Dasi Anchovy 통영 손질 멸치 17.6oz. \$14.99</p>	<p>HARU HARU Milled Rice 하루하루 마이 쌀 15 lbs. \$15.99</p>	<p>NONGSHIM Shin Ramyun 농심 신라면 4.2oz. x 16ea./pkg. \$10.99</p>	<p>HAIOREUM Korean Style Beef BBQ Sauce 해오름 소불고기/갈비 양념 2.11 lbs. \$3.99</p>	<p>TONGTONGBAY Fish Tofu 통통배 두부어묵 8.46oz. \$3.99</p>
<p>HAIOREUM Dumplings 해오름 만두 All Varieties/2.65 lbs. \$4.99</p>	<p>FOODCELL Vermicelli 푸드셀 궁중당면 1.5 lbs. \$2.5</p>	<p>HAIOREUM Korean Style Noodles - Somen 해오름 막국수 5 lbs. \$4.99</p>	<p>HAIOREUM Dried Wild Squid 해오름 건오징어 15.8oz. - 6ct/pkg. \$14.99</p>	<p>HANSUNG Kamaboko Rice Cake 한성 찰떡궁합 가마보꼬 1.1 lbs. \$4.99</p>
<p>HAIOREUM Korean Honey Citron Tea 해오름 황금유자차 2.2 lbs. \$4.99</p>	<p>MORTON Salt 몰튼 소금 Regular/iodized - 25oz. \$0.88</p>	<p>SCOTT Bathroom Tissue 스캇 화장지 20rolls/pkg. \$13.99</p>	<p>HELLO HOME Wok Pan 헬로홈 워팬 30cm/ea. \$8.99</p>	<p>QUEENSENSE Dolce Marble Fry Pan 퀸센스 돌체 마블 후라이팬 HF-30/32cm/ea. \$17.99</p>
				<p>Organic King Oyster Mushroom 유기농 새송이 버섯 8oz./pkg. \$3.99</p>
				<p>HAIOREUM Yellow Croaker 해오름 황금빛 굴비 2.86 lbs. \$12.99</p>
				<p>CROWN Couque D'asse 크라운 쿠키다스 Original/Coffee - 7.6oz. \$2.99</p>
				<p>ZOJIRUSHI Food Jar 조지루시 보온 빈찬통 SW-EAE35XA/PS - Silver/Shiny Pink - 0.35L/ea. \$19.99</p>

무상급식 논란 3년 만에 재연되나...여야 공방 가열

여당 "정책 우선순위 재조정 필요"

야당 "이미 사회적 합의 이뤄져"

(서울=뉴스1) 진성훈, 박상희, 유기림 기자 = 여야는 6일 홍준표 경남지사의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 선언으로 촉발된 무상급식 논란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지방교육청의 예산 절감 등 자구노력을 강조하며 현재의 무상급식 방식 자체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상급식이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만큼 차질 없는 시행을 요구하면서 홍지사가 여권의 무상급식 반대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정국 핫이슈로 부상해 서울시장 보궐 선거로까지 이어졌던 무상급식 논란이 3년 만에 다시 정치권을 가열시킬 조짐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상급식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둘러싼 정부·지자체 및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에 대해 "갈등의 원인은 중앙은 중앙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세수가 부족해 재정상황이 열악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결국 재정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교육청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고 있는지, 또 과도한 행사, 선심성 사업 등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잘 살펴보고 따져봐야 될 일"이라고 교육청의 자구 노력에 방점을 뒀다.

김 대표는 지난해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이월 불용액이 중앙정부의 3배에 달하는 4조 1529억원에 달

하는 점을 들어 교육청의 방만한 재정 관리와 비효율적 예산 집행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예산의 적절한 편성과 절약만으로 현 상황을 극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연도별 무상급식 예산 증가와 교육환경 개선예산 감소 상황을 대비시켰다. 무상급식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 무상급식과 관련한 실태 조사를 진행해 보고할 것을 당에 지시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앞으로 특히 교육 분야에 대한 지자체의 예산 불용 문제, 중앙 정부의 보조와 함께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겠다"고 거듭었다. 나아가 지자체와 지방교육청 간 갈등을 계기로 새누리당에서는 교육감 선출 방식 변경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교육감과 지자체장 사이에 갈등이 많이 불거지는 것은 교육자치, 교육감 선거제도와도 관련이 있다"며 "교육자치는 교육자의 자치가 아니라 주민자치다. 그래서 지방자치선거하고 융합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전면 무상급식은 사실 무상이 아니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해지고 있고, 정말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고 있고, 우리나라 과학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영재들을 키워 낼 예산마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어 "정책 집행의 대원칙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울 때"라고 강조하고 무상복지 공약 발표 시 재원조달 방식과 근거를 제시토록 하는 선거법 개정, 교육감 선거제도 재검토 등을 제안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17개 시도 교육청은 무상급식으로 2조 3000여억 원을 지출하면서 학생들의 교육 여건과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써야 할 돈을 모두 써버렸다"며 "재정의 뒷받침이 없는 복지정책은 포퓰리즘 정책이다. 이제라도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무상복지정책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상급식 예산지원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지사를 맹렬히 비판하면서 무상급식이 차질 없이 유지돼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

에 출연, "무상급식은 사회적으로 이미 합의가 된 사안이고 오세훈 전 서울 시장은 (이 사안으로) 물러나기까지 했다"며 "홍준표 경남지사가 이 문제를 너무 정치적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특히 정부 여당이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편성하지 않은 채 시도 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을 줄여 누리과정에 돌릴 것을 주문하는 움직임을 경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아이들을 키우는 것과 밥먹이는 것은 다 같은 문제로 누리과정이란 급식이든 다 지속해야 한다"며 "(무상급식을) 야당과 진보 교육감측에서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무상급식 예산은) 줄이고, 누리과정 예산은 대통령이 시작했기 때문에 편성하겠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수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 교육청에 떠넘기고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이제 첫발

을 내디디고 있는 우리나라 복지 정책의 뿌리를 흔들려는 것"이라며 "무상급식은 흔들림 없이 정착돼야 하며 누리과정에 대한 국고 지원 약속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태연 의원은 이날 "홍지사가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며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우리가 의무교육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밥을 먹여주는 것은 맞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진보성향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무상급식은) 몇 년 전 오 전 시장 때부터 문제가 돼 시끄러웠지만 무상급식은 공짜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일환"이라며 "홍지사의 생각으로 보면 돈이 없으면 교육도 포기하는 말인데 그것은 도지사로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true@news1.kr

새누리, '사·자·방' 국정조사 저울질...성사되면 MB까지?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연일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에 대한 총공세를 퍼붓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수용 여부를 놓고 저울질이 한창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됐던 자원외교 등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면서도 야당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대한 책임론을 부각하며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 선불리 받아드리기 어려운 입장이다.

또 당내 친이계 의원들의 반발도 예상돼 고심이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국

회에서 방산비리 수사를 촉구하는 브리핑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검토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수석은 또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빅딜'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판단해야지 연계해서 판단할 대상이 아니다"며 "각각 별개로 가야 한다"며 일단 선을 그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2년차의 최대 개혁과제로 급부상한 공무원연금 개혁 연내처리와 국정조사 카드를 맞바꾼다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길 수 있어 포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친이계 좌장격인 이재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정조사와 관련해 "좀 지켜보자. 지금 내가 말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말을 아꼈다.

새정치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자원외교 5인방'으로 지목하고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원외교 사업에는 일명 'MB맨'들이 깊숙이 관여했다. '왕차관'이라 불린 박 전 차관이 자원외교 사업을 진두지휘 했으며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 각국 정상들을

만나며 자원외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또 최 부총리는 당시 지경부장관으로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에 관여했고 윤상직 장관도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자원외교 실무를 담당했다.

이 때문에 야당은 국정감사에서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과정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비판하며 최 부총리의 책임을 부각시켰다.

또 새정치연합은 최 부총리의 증인채택은 필수이며, 이 전 대통령 역시 국정조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국정조사가 시작된다면 MB맨들과 최 부총리의 증

인 출석은 불가피하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불려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과장이 간단치 않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인 이인제 의원도 이날 PBC 라디오에 출연해 '사자방' 국정조사와 관련, "국회 차원에서 한 번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전 대통령이 증인 채택에 대해 "정책의 실패에 대해 정치적인,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 사람들이 응당 져야 할 책임"이라고 밝혔다.

haru@news1.kr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여러분의 "디스크"를 수술 없이 치료해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DRX-9000

최첨단 무중력 감압 디스크 치료기로, 디스크 내부를 무중력 상태로 만들어 감압환경을 조성, 밀려난 디스크를 원상태로 복구하는 무통증 치료로 정상적인 디스크를 해하지 않으며, 근육 및 신경 또한 손상시키지 않는 디스크 치료의 필수장비입니다.



원장 윤창 교수

책임 진료

닥터스통증병원은 28년 경력의 물리치료 전문의와 척추신경 전문의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물리치료 및 교통사고 재활치료 전문 병원으로 최신 장비와 의술로, 모든

환자분들의 환부가 손상되기전의 최고 기능을 회복하며, 신체적인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진료 장소(브룩라인, 월섬)



닥터스통증병원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GOODPT.com

브룩라인 지점(Brookline)

617-731-1001

44 Washington St, Suite 104
Brookline, MA 02445

월섬 지점(Waltham)

617-731-1004

221 Moody St.
Waltham, MA 02453

박 대통령, 미·중과 잇단 정상회담, 일본과는 가능성 낮아

중과 다섯 번째 정상회담..미도 세 번째 정상회담 추진
오바마, 시 주석과 회담 예정..한·중·미 정상회담될 듯
일 아베, 시 주석과 스탠딩 회담할 듯..푸틴과도 정상회담

(서울=뉴스1) 윤태형, 조영빈 기자 = 오는 7일부터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미안마, 호주 순방을 계기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뿐 아니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 대통령의 이번 순방기간은 한반도를 둘러싼 핵심 주변국들의 정상간 회담의 장(場)이 될 전망이다.

우선 박 대통령은 오는 10~1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안보 및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국간 주요 관심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간 한중 정상회담은 이번이 다섯 번째로 취임 후 두 차례 있었던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보다 많다.

한편, 한미 양국은 박 대통령의 이번 다자 정상회담 참석을 위한 순방기간 중 한미정상회담 개최를 놓고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3일 "한미가 이번 다

자회의 계기에 정상회담 필요성에 공감하고 두 정상 간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다음 주에 다자 회의가 연달아 열리며 두 정상 모두 일정이 빠곡하다"며 "정식회담이 될지, 약식회담이 될지를 두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상회담 시점이 베이징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가 될지, 미안마 네피도에서 열리는 '아세안+3 정상회의' 및 동아시아정상회의(12~13일)가 될지, 아니면 호주 브리즈번에서 G20 정상회의(15~16일)가 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한미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양측은 한미동맹 강화 방안을 비롯해 최근 이뤄진 전사작전통제권 재연기에 대한 양국 정상 간 입장 표명과 함께 한미원자력협정개정 협상과 에블라 바 이러스 확산 방지 등 글로벌 이슈와 관련한 한미 양국간 협력에 대한 평가도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베이징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 참석을 계기



박근혜 대통령

로 시 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어서 한미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한·중·미 3자 연쇄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

반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의 단독 한일정상회담은 성사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아직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한편, 아베 총리와 시 주석 간의 중일정상회담은 15분 내외의 '스탠딩 회

담'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브스 등 외신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약식회담을 통해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에 대한 '중국의 역사적 지배와 현재(일-중간) 분쟁지역임'을 동시에 인정하는 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중일 정상회담은 일본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일부 외신은 이번 아베 총리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보

도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무산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는 또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뿐 아니라 푸틴 대통령의 방일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상은 지난 달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기간 중 약식으로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일본은 최근 북한-러시아-일본 간 3각 외교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한국,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birakoca@news1.kr

예결위 '박 대통령 고가 헬스기구' 공방 재연

운영위서도 청 운동기구 공방

(서울=뉴스1) 김유대, 유기림, 서미선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6일 종합정책질의에서 청와대의 고가 헬스 장비 구입 논란을 두고 공방이 재연됐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예결위 회의에서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유명 트레이너 유전추씨를 3급 행정관으로 채용하고, 고가 헬스 장비를 구입했다는 의혹을 재차 추궁했다. 최 의원은 특히 이날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청와대가 1억2000만원에 달하는 헬스 장비를 구입했고, 이 가운데 8800만원 상당의 헬스 장비가 박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 본관으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윤 행정관은 대통령의 여성 비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자 "여비서라면 왜 3급이나 주면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쓸 필요가 있나"라며 "유명 헬스 트레이너를 여비서로 쓰고, 고가의 1대 1 수업 헬스장비가(본관으로) 들어갔는데 사용하지 않고 전시물로 두려고 산 것인가"라고 따졌다.

김 실장은 최 의원의 이 같은 추궁에 "(윤 행정관은) 1대 1 트레이너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1대 1 트레이닝 기구도 없는 것으로 안다"며 "청와대 운동기구는 순환해서 이곳저곳에서 사용하고, 대통령 개인 장비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김 실장은 "대통령의 운동기구와 식재료, 생활용품 등은 과거 정부와 다른 나라에서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헬스 기구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청와대 헬스 기구 및 조달청 제출 자료와 관련한 최 의원의 이날 예결위 질의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만류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최 의원의 질의 이후 유호덕 새정치연합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최 의원이 헬스 기구 관련 질의를 준비했는데, (이완구) 여당 원내대표가 와서 '질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다"고 밝혔다. 청와대 헬스 기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예결위 질의에서 "(야당의 의혹 제기)는 정치 공세적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며 "대통령의 신체 등은 국가 안위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알고 있어도 얘기를 안 하는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과거 대통령이(청와대에) 스크린골프장을 설치하고 안마 의자를 구입해

도 얘기를 안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함 의원은 또한 "(대통령이 단전호흡을 하는데) 굳이 고가의 장비를 사서 논란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며 "살 거면 중고로 사라"고 김 비서실장에게 주문하기도 했다.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한 이날 운영위 질의에서도 이와 관련한 공방이 이어졌다. 새누리당은 대통령 '신상 털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엄호에 나섰다.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은 "불필요한 대통령 흡입내기가 국회에서 없으면 한다"며 "역대 대통령이 어떤 운동기구를 사용했고 얼마 주고 샀고 이런 게 논란이 된 적이 없는데 이 정부에서만 일거수일투족, 사용 장비, 구입 자체가 다 논란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이개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대통령 건강이) 국가 기밀로 덮을 성질은 아니다. 심지어 '체제 수호'까지 연결지어 얘기하는 건 지나친 건강부회 아닌가"라며 "대통령이 운동하는 것을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실장은 "대통령이 어떤 도구를 사용해 어떤 운동을 하느냐는 밖에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며 재차 답변을 피했다.

smith@news1.kr

반기문 대망론, 외교부에선...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정 치권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권도전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일며, 반 총장의 '고향' 외교부에서도 이런저런 말들이 나온다. 외교부 입장에서 '최초의 외교관 출신 대통령'의 탄생을 기대할 법도 하지만, "그러실 분이 아닌 것 같다"는 조심스런 시각이 대체적이다.

반 총장의 대권도전 가능성을 두고 회의적으로 보는 이들의 공통된 견해는 반 총장이 본인 스스로를 정치 세력화할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니라는 것이다.

익명의 관계자는 6일 "반 총장을 모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불확실한 대권 같은 것보다 당장 본인이 목표로 했던 일들을 해결하는데 훨씬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일하는 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정하면 워낙 추진력있게 끌고가는 스타일이라서 본인이 그런데 관심이 있었다면 진즉에 그런 분위기가 반 총장 주변에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수년간 반 총장과 지근거

리에 있었던 한 고위 관계자도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기를 꺼리면서도 "반 총장에게 내년은 개발아젠 다와 기후변화문제 등 총장직 10년의 과제를 업적으로 전환해야 하는 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시기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유엔총장이 잣대에 관심 있다는 이야기 나올 것을 우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과거 반 총장의 대권도전론이 불거졌을 때 반 총장을 만났던 외교부 관계자가 의향을 물으니, 반 총장이 "안 사 람이 그거 하려면 이혼도장 찍고 하라고 하더라"며 빼있는 농담을 던졌다고 한다.

반 총장은 앞서 5일(현지시간) 공식 입장을 통해 "근거 없는 얘기들이 불편부당한 위치에서 국제사회 전체를 대변해야 할 유엔 수장으로로서의 직무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식 입장을 밝힌 만큼 그의 총장직 퇴임 뒤 행보를 둔 정치권 내 설왕설래를 불변해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bin1981@news1.kr

하나여행사 HANA TRAVEL



- 국내/국제 항공권 할인
- 한국, 중국, 일본, 유럽, 중남미, 하와이, 캐나다, 알래스카 등 관광 패키지

전문가와 함께 편안한 여행을 설계하세요.

617-713-4262(HANA)
email: hana.travel@gmail.com

Toll Free 1-800-368-6977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PROSPECT DENTAL GROUP, LLC

Advanced Restorative Dental Clinic

프로스펙트 덴탈의 진료는 미래의 당신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Eugene Khang DMD(강유진)

- 한국어 가능
- 응급환자 당일진료
- 주말 진료
- Walk-ins Welcome
- 각종 보험

원장: Eugene Khang DMD (강유진)
진료시간: 월-금: 9AM ~ 6:30PM
토: 9AM ~ 5PM

30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Redline Central Sq.역)
www.prospectdental.com



Salon Sabrina

헤어스타일리스트 영

염색과 파마로 손상된 머리결을 복구시켜 드립니다

전자 모락 트리트먼트



남자컷 25볼/여자컷 30볼/파마 70볼 부터
디지털 130볼 부터/케라틴 매직 220볼 부터 시작합니다.

경력 압구정 김영남 미용실, 롯데호텔 마리 미용실, 송내 부천 박준 오픈 스텝
뉴욕 Fox헤어 스튜디오, SALON LOFTS sunny 운영

617.947.6840
25 church St. Watertown MA

군 사이버사 정치댓글 수사 결과 "끝내 꼬리 자르기"

김관진 실장은 이번에도 수사 조차 안해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도 모두 혐의 부인 '심리전단장 개인 일탈'로 결론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국방부 검찰단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2012년 당시 정치댓글 작성 의혹과 관련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의 정치관계 혐의를 결국 적용했으나 '윗선'의 인지 여부는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아 비판이 일고 있다. 검찰단은 4일 연·옥 전 사이버사령관을 비롯 박 모 심리전단장(3급 군무원) 등 3명과 심리전단 소속 정모(4급 군무원)씨를 각각 정치관계 혐의와 정치 관계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8월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이버사 최종 수사 결과 평소 극우·보수 성향인 이 모 전 심리전단장의 지시에 의한 조직적인 정치관계는 있었으나 국가정보원 등과 연계된 조직적인 대선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냈다.

특히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사이버사를 총 지휘한 두 전 사령관에 대해 '정치관계 특수방조' 혐의를 적용하는데 그쳐 야권은 '예견된 결과', '면죄부 수사결과'라고 맹비난했다.

이번 검찰단 수사에서도 군 당국은 "수사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김 실장은 조사하지 않았다. 사이버사령부는 국방부 직할부대로 그간 야권 등에서는 철저한 상명하복인 군 조직 특성상 김 실장의 개입 가능성을 끊임없이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검찰단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당시 장관에 보고했다는 단서는 전혀 없어 수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며 "두 전 사령관과 이 전단장 모두 김 실장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국방부 관계자도 "김 실장이 보고받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수사할 근거가 없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사이버심리전은 이 전 단장이 책임지고 운영했다"며 이 전단장이 정치댓글 작성의 '몸통'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낸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에 대해서는 비공개 방문조사를 실시해 수사 대상 기준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국방장관은 사이버사령관 등 국방부 직할부대장을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게다가 이번에 기소된 두 전 사령관도 정치관계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어 향후 군사법원에서 무죄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들은 수사과정에서 "이 전 단장으로부터 작전 결과나 방향에 대해 보고 받고 승인했으나 정치 관계는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옥도경 국군사이버사령관(왼쪽)이 출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다만 2명 모두 올 12월 31일자로 전역할 예정이어서 전역 이후에는 재판관할이 민간법원으로 바뀌게 된다.

일각에서는 두 전 사령관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음에 따라 증인 심문 기간이 길어져 1심 재판이 결국 민간법원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이들의 전역이 두 달 가장 남았기 때문에 재판이 빨리 진행되면 1심 재판 정도는 군사법원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의 혐의 인정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baebae@news1.kr

야"군 사이버사 축소·은폐 수사 부끄럽다"

"당시 국방장관인 김관진, 책임져야"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국방부 검찰단이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련 댓글 작성 의혹을 받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관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배후세력을 감추기 위한 축소·은폐 수사"라고 비판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현안브리핑에서 "작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사안임에도 1년이 넘도록 수사를 끌더니 결국 내놓은 수사결과는 참으로 부끄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검찰은) 두 전 사

령관 재직 당시 국방부장관이었고 의혹 핵심에 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수사는커녕 서면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성역은 애초에 수사할 생각도 의지도 없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수사를 통해 현역 군인이 17년 만에 정치관계 혐의로 기소됐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불명예가 아닐 수 없으며, 당시 국방부장관인 김관진 실장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군 당국의 수사가 국민 의혹을 온전하게 해소하지 못한 만큼 법원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smith@news1.kr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정치관계 혐의로 기소

17년만에 현역군인 정치관계 특수 방조 혐의로 기소 재판부, 직원들의 구체적 관여는 모르나 보고는 받아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는 등 정치관계 혐의를 받고 있는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4일 연·옥 전 사이버사령관을 비롯 박 모 심리전단장(3급 군무원) 등 3명을 군 형법상 정치관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현역 군인이 정치관계 혐의로 기소된 것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손 모 중령이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사퇴를 주장하며 시국선언을 한 혐의로 구속된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검찰단은 사이버사령부가 심리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두 전직 사령관이 이미 기소된 이모 전 심리전단장으로 부터 대응할 기사와 대응방안 등을 보고 받고 승인했다는 점에서 정치관계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8월 이들 두 전직 사령관에게 정치관계 특수방조 혐의를 적용해 형사입건한 바 있다. 그러나 결국 군 검찰은 이들에 군형법상 정치관계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조사본부 수사 결과에서는 7100건으로 파악된 정치댓글 수도 총 1만 2800건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 이 가운데 7500여건은 연 전 사령관 재직 시에, 나머지 5300건은 옥 전 사령관 재직 당시 계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검찰단 관계자는 "사실상 우리나라 최초의 정치관계 판결로 볼 수 있는 지난 9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정치관계의 범위를 광장히 넓게 해석했다"며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 정치 댓글 수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직원들의 구체적인 정치관계 활동을 다 알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나 보고를 받은 부분은 인정된다"며 공동정범으로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군 관계자는 "작성 목적과 관계없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방하는 내용은 정치댓글로 인정한 당시 판결에 근거하다보니 댓글 수가 늘어난 것"이라며 "다만 군 형법에서는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 특수방조와 공동정범의 형량이 같아 처벌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이버사 정치댓글 작성의 '몸통'으로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심리전단장의 공소장에 적용된 댓글 수도 늘어나 검찰단은 동부지검과 협조해 공소장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인정된 정치댓글 가운데는 한미 FTA, 박원순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정책,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들이 포

함했다. 관계자는 "내용상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는 내용이면 정치인의 이름이 없어도 정치댓글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단은 이날 심리전단 소속 정모(4급 군무원)씨도 정치 관계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사이버사 수사가 시작된 직후 이 전 단장의 주요 증거 인멸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작전보안 명목으로 개정한 작전예규의 개정 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단장은 수사가 시작되자 작전보안을 이유로 노트북 등 저장매체와 작전관련 서류, IP주소 등을 삭제 및 변경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해 조사본부 포렌식팀도 끝내 관련 데이터를 복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관계자는 "댓글이 게재된 게 주로 트위터인데 트위터는 삭제된 게 없다"며 "내부 컴퓨터만 삭제하고 외부 것들은 손을 대지 못했고 빅데이터 분석을 거쳤기에 1만 2800개 댓글이 거의 전부라고 보면 될 듯 하다"고 말했다. 검찰단이 결국 두 전 사이버사령관을 포함해 4명을 기소함에 따라 사이버사 정치 댓글 작성 의혹 관련 기소자는 이 전 단장을 포함해 총 5명으로 늘었다. 앞서 조사본부가 이 전 단장 등과 함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나머지 19명은 상관의 직무상 지시에 따른 행위라는 점을 고려해 모두 기소유예됐다.

또 당시 국방부 장관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조사본부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검찰단 수사에서도 제외됐다.

baebae@news1.kr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 금 오후 8:00
새벽예배 :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 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The peopl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경렬



새빛 10주년 감사축제
4일교회 10주년 감사축제가 당신을 초대합니다

- 감사 음악 축제: 11월8일(토) 오후 7:00
- 감사 및 임직예배: 11월9일(주일) 오전 11:30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780 Main St., Waltham, MA 02420
NewLightKC.org



뉴햄프셔한인교회

New Hampshire Korean Christian Church

주일예배 • 오후 1시30분
담임목사 • 장계은

12 Station Rd. Bedford, NH 03110 (GPS 주소: 8 Hawthorne Dr. Bedford)
603-264-6799 • 603-264-6798 • www.newkcc.org



성양푸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Andrew's Korean Presbyterian Church

주일미사(한국말)
오전 11시30분 (교중미사)
오후 4시30분 (청년주관)


영어미사
오전 10시

평일미사
(화) 오전 10시30분
(목) 오후 7시30분

고백성사
미사 시작 30분전

서클서비스(요청시)
(http://stdaveluychurch.org/오시는길)
11:15 am, 리버사이드역 → 성당
미사 30분 후, 성당 → 리버사이드역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www.stdaveluychurch.org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종교동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9



보스톤 남부지역 보스톤 새힘교회

주일예배 11:00 AM

617-622-5225
5 Cabot Pl, Stoughton, MA 02072
www.bostonrenewal.org

북부보스톤한인교회
Hanboston

북부보스톤한인교회에서 사역자를 초빙합니다.


북부보스톤교회에서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동역하실 2-3명의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주일학교 (영어로 예배 인도가 가능한 분), 행정, 청장년, 예배, 교육 등

관심이 있는 분은 아래와 같이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northbostonkumc@gmail.com
전화: 978-470-0621
마감일: 11월 23일

사역은 12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주소: 244 Lowell St. Andover, MA 01810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근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소납은 한국에서 온 무초(無超)라고 합니다. 15년간 참선 수행을 하고 이제는 붓사를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처음으로 외국땅을 밟았습니다.

저는 이곳에 한 달여의 시간을 머물면서 이곳 현지인들이 불교와 명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많은 교포분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곳 보스톤에서 한국 불교(선불교)를 알리고, 함께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게 되었습니다.


참선 법회를 열고자 합니다. 참선 법회는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크건 작건 조그만 공간과 방식이 필요할 뿐입니다. (가정집의 마루나 방에서도 가능합니다.) 같이 법담을 하고 참선 수행을 하는 형식이 될 것입니다. 함께 참선 수행을 하며, 좋은 도반의 인연을 만들고, 자등명·법등명의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인연이 되면 한국 불자님들과 미국 불자님들과 함께 이곳에 계속 머물 것입니다. 뜻있는 분들의 많은 연락 바랍니다.

● **수행 이력**
출가전: 동국대(경주) 철학과 학사
동국대(서울) 불교학과 석사
제2기 국선도 생활 강사
출가후: 대한불교 조계종 기본 선원 졸업
승광사, 동화사, 법주사, 월정사 등 10년간 선원에서 수행, 산속 토굴에서 5년간 개인 수행

연락처: mucho007009@gmail.com, 010-3560-7009
저는 지금 Cambridge Zen Center (199 Auburn St. 하버드와 MIT중간에 위치)에 임시로 머물고 있습니다.

무초 합장.



**“ 교육 컨설팅의
처음과 끝을 함께합니다 ”**

교육관련 consulting

- 명문 중.고.대학 진학 상담 및 수속
- 방학 특별 활동 프로그램
- 가디언 업무

주소: 47 3rd St, Suite 201
Cambridge, MA 02141
전화: (617) 225-2200
Fax: (617) 225-2877
이메일: juliet2647@gmail.com



대한통운 보스톤 지사
<http://www.keboston.com>

대한통운 과 CJ 아시아 최고의 물류시장 오픈 !!
뉴잉글랜드의 모든 이사를 맡겨 주십시오.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타주이사
한국 및 타주 자동차 운반

고국의 전지역 일주일 도착을 보장하는 **항공택배**

24시간 이사상담 

978-461-2424 / 1-888-239-9377
e-mail 상담 : huny@keusa.com
51 Knox Trail, Acton, MA 01720

Crouser & Suh PLLC

크라우저 & 서 로펌

이민법/국제법 전문 미국 로펌
한인 변호사들의, 한인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 서비스!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조규성 민법/상법 변호사
단기연수인 비자 (H-3)	
주재원 비자 (L-1)	 양선영 이민 변호사
특기자 비자 (O-1, P-1)	
취업이민 (NW, EB-1, EB-2, EB-3)	
투자비자 (E-2) / 투자이민 (EB-5)	
종교 비자 (R-1) / 비자 변경 및 연장	
가족초청 이민 / 시민권 신청	
추방 재판 / 각종 이민 관련 비지니스, 민사 등 각종 소송 관련	



Crouser & Suh PLLC

1111 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65

Tel: 617.969.7979 / 617.877.3435

Fax: 617.969.4959 www.stevesuh.com / www.suhladyer.com

패트리어츠 파워랭킹 1위 등극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지난 주 경기에서 NFL 최강팀 중 하나로 꼽히는 덴버 브롱코스를 상대로 43 대 21, 대승을 거두었다. 시즌 초반 극심한 부진에 시달렸던 패트리어츠는 최근 5 연승을 달리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4주차 경기에서 캔자스시티 치프스를 상대로 14 대 41로 크게 패배했을 때의 패트리어츠와 그 이후 5연승을 달리고 있는 패트리어츠는 완전히 다른 팀이다. 급기야 NFL 최고의 공격팀이자 수퍼볼 우승에 가장 근접한 팀으로 여겨지는 브롱코스를 상대로 여유 있게 승리하며 향후 AFC 시드 경쟁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었다.

패트리어츠는 블레처리포트에서 선정한 NFL 파워랭킹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현재 NFL 최강팀임을 입증했다. 패트리어츠는 한 주간 휴식을 취한 후, 시즌 후반기에는 비교적 강한 팀들과 상대해야 한다.

블레처리포트에서 선정한 NFL 파워랭킹에서 상위 4팀을 살펴보자.

4위 Green Bay Packers (5승 3패)
패커스는 NFL 9주차가 바이 위크로 경기가 없었다. 보통 경기가 없는 팀은 파워랭킹에 변화가 없지만 이번 주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덴버 브롱코스와 델러스 카우보이스가 경기에서 패하고 필라델피아 이

글스의 주전 쿼터백 니 폴스가 부상을 당해 앞으로의 경기 출전이 불투명해지면서, 패커스의 순위가 상승했다. 패커스는 한 주간 휴식을 마친 뒤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

패커스는 앞으로 남은 8경기 중 7경기에서 승리를 예상할 수 있을 만큼 앞으로 상대할 팀들이 비교적 쉬운 팀들이다. 가장 부담스러운 상대가 12주차에 상대할 패트리어츠이지만, 패트리어츠에 패하고 남은 경기를 승리로 가져간다면 12승 4패로 무난하게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다.

3위 Denver Broncos (6승 2패)
지난 주까지 1위였던 브롱코스는 패트리어츠에 패하면서 랭킹 3위로 내려앉았다. 그리고 패트리어츠와의 경기에서 패배했다는 것은 앞으로 플레이오프까지 내다봤을 때 브롱코스 입장에서 그리 좋은 소식이 아니다.

브롱코스는 패트리어츠에 패했기 때문에 향후 플레이오프에서 패트리어츠를 만날 경우 원정 경기를 치러야 한다. 홈구장에서 무적에 가까운 탐 브래디와 빌 벨리치를 팩스보로에서 상대해야 하고, 페이튼 매닝이 추운 날씨에 경기력이 떨어지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

브롱코스가 패트리어츠에 패했다고 해서 약한 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브롱코스는 여전히 리그 최고의 쿼터백



패트리어츠의 와이드 리시버 줄리안 에들먼은 브롱코스와의 경기에서 2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했다

과 재능있는 선수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퍼볼 우승권에 근접한 팀이다.

2위 Arizona Cardinals (7승 1패)
9주차를 마친 상태에서 카디널스는 NFL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그럼에도 카디널스가 1위가 되지 못한 것은 비교적 쉬운 팀들을 상대했고, 주전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팀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카디널스가 유일하게 엘리트 팀을 상대했던 브롱코

스와의 경기에서는 20 대 41로 패배했다.

카디널스는 계속 승리하고 있는데에는 뛰어난 코치진의 역할이 크다. 브루스 애리언스 감독이 올해의 코치다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면 카디널스는 NFC에서 1번시드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것이다.

1위 New England Patriots (7승 2패)
7승 2패를 기록 중인 패트리어츠는 NFL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팀이 아니

다. 그러나 최근 5경기에서 보여준 모습은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흡집을 갖지 않는다. 최근 5경기과 같은 경기를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다면 패트리어츠는 10년만에 수퍼볼 우승을 차지할 수 있다.

시즌 초반 지적되었던 오피시브 라인이 안정되었고 부상에서 회복한 랍 그롱코스기가 공격의 핵심 역할을 해주고 있다. 새로 합류한 데릴 르비스를 중심으로 한 패스 수비도 수준급이다.

jsi@bostonkorea.com

정철화 프로의 골프 이야기 267



글쓴이: 정철화, Ph.D.
978-726-6979
jungc811@hotmail.com
Stow Acres Country Club
58 Randall Rd. Stow, MA 01775



고구마

오는 것을 보고 함께 일하는 동료가 고구마의 효능에 대하여 얘기해준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농담섞인 말로 중국의 인구가 이렇게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고구마 때문이라는 것이다. 영양이 풍부한 고구마가 중국의 인구 증가를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것을 확인할 길은 없지만 언론에 자주 언급되어 있는 미국 항공우주국 NASA에서 우주시대 식량 자원으로 고구마를 선택했다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영양학적으로 커다란 가치가 있음에는 틀림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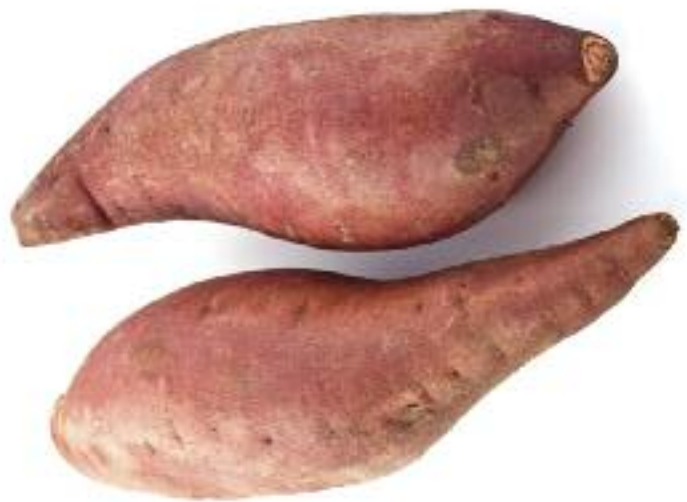
미국 식품 의약국인 FDA에서 말하고 있는 고구마의 영양성분과 효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심장 보호: 고구마 속에 풍부히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B6는 동맥경화를 유발해 심장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물질인 호모시스테인 분해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또한 고구마에는 칼륨도 많이 들어있는데 이는 혈압을 낮추고 심장박동을 알맞게 조절해준다.

2. 혈당 제어: 고구마의 달콤함은 높은 당질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이 달콤함의 원천인 고구마 속 당분은 흔히 우리가 같은 고칼로리의 설탕과는 다른 '자연 설탕' 성분이다. 이

자연 설탕은 혈류에 무리를 안 주면서 천천히 몸에서 자연스럽게 감소 되면서 필요한 에너지를 꾸준히 축적되도록 도와준다. 의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구마는 혈당조절에 민감한 당뇨병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한다. 또한 고구마에는 뼈 형성을 돕는 '망간' 도 풍부한데 이 성분 역시 혈당 수준을 건강히 유지시켜주면서 식욕조절에도 도움이 된다.

3. 면역력 증가와 항염증 작용: 고구마에 가장 풍부한 3가지 영양소를 꼽으라면 비타민C, 비타민A, 비타민E다. 이들은 체내 면역 시스템을 강력히 지원해 각종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준다. 이들 영양분은 항염증 작용도 해 관절염 같은 염증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요즘 자주 가지고 다니는 간식 하나가 있다. 바로 고구마다. 여름철에는 주로 바나나를 가지고 다녔는데 지금은 바나나도 여전히 애용하는 간식이지만 계절이 계절인만큼 고구마에 손이 더 많이 간다. 필자가 고구마를 좋아하는 것을 알아서인지 동생이 고구마를 커다란 박스 가득히 사왔다. 갯수로 따지면 100개도 훨씬 넘는 양이다. 그러고보니 어렸을적부터 유난히 고구마를 좋아했던 것 같다. 찌서도 먹고, 구워서도 먹고 튀겨서도 먹었는데 특히나 어머니가 고구마 잘게 갈죽하게 썰어서 기름에 튀겨주셨던 것은 별미 중에 별미였다. 하도 맛이 있어서 혼자서 만들어 먹어 보겠다고 하다가 기름이 튀어서 팔뚝을 데었던 기억도 희미하게 난다.

회사에 매일 고구마를 몇 개씩 구워가지고



백린
(보스톤코리아 컬럼니스트
역사문제 연구소 연구위원)

일본의 침략전쟁과 조선총독의 고려대장경 간행 (7)

평북 의주군의 무언면에 있는 백마교회의 이기선 목사는 체포되어 일본경찰관의 취조를 받을 때 일본경찰관이 신사참배를 아니하면 죽이겠다.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니 이 목사는 대답하기를 “그야 천국법도 지키고 또 국법(일본법)도 지켜야 되겠지요” 하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경찰관이 다시 물기를 “어떻게 두 법을 다 지킬수 있단 말이나” 고 하자 “천국법은 신앙참배를 절대로 하지 말고 주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였으니 그렇게 해야 하고 국법은 그렇게 하면 죽일려고 하니 죽으면 되지 않겠는가” 하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참으로 존경해 마지 않는 목사님이었다. 평양 산성교회의 주기철 목사님을 위시하여 이기선 목사, 박관준 장로등 70여명이 해방을 기다리지 못하고 평양감옥에서 옥사하고 말았다.

처음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만 강요되었던 신사참배 문제가 1938년 부터 일반 시민에게도 강요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60만 기독교의 교인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총독정체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총독부의 경무국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교회를 폐쇄하고 목사와 장로들을 체포하여 평양의 감옥으

로 보냈다. 신앙이 두철하고 독립정신이 강한 목사들은 미나미 총독의 탄압정책에도 굴복치 않고 끝까지 항쟁했던 것이다. 미나미 총독은 1939년 9월에 ‘반전 운동의 공작’이라는 죄명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목사와 장로 2천여명을 잡아 평양감옥으로 보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거부한 평양의 산성교회를 위시하여 200여교회를 폐쇄시켰다. 극동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었던 조선기독교의 본거지 평양을 송두리채 소탕해 버리려는 것이었다. 미나미총독의 신사참배 정책은 참으로 엄격한 것이었다. 하지만 유교 사상이 철저히며 더구나 60만 기독교인의 반대가 거세 신사참배운동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자 그는 1938년 2월 26일에 내선일체(內鮮一體)라는 구호를 내세워 황국신민화운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조선인 특별지원병 제도’를 확립하여 모병 운동에 나선 것이다. 사실 식민지 백성에게 ‘내선일체’ 라는 말은 참으로 구미에 당기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처음에는 응모한 자가 2900명이나 되었다니 말이다. 그러나 ‘내선일체’란 구호일 뿐 식민지정치에는 하등 변한 것이 없었다. 사실 ‘내선일체’ 라는 말은 ‘조선특

별지원병제도’를 확립 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일본은 중일전쟁을 미리 예상하였던지 1936년에 병역법을 개정하여 신장이 미달한 자나 또 시력이 약하여 병종(丙種)을 받은 자들도 소집하여 입대시킨다고 결정했다. 그런데 그 개혁은 학생들의 병역기피를 사전에 막기위한 방책이었다는 말도 들었다. 사실 남총독이 제시한 ‘일본어상용’ 이나 ‘신사참배’, 그리고 ‘내선일체’ 라는 말은 모두가 ‘지원병 제도’를 확립하기위한 술책이었던 것이다. 어쨌든 지원병 제도가 실시되자 처음에는 많은 청년들이 자원했던 것 같다. 그런데 지원병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은 1921년생 이상이어야 했으며 또 일본어에 능통해야 했으니 당시로 보면 보통학교 졸업생 이상이어야 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일본선생이 조선학생을 때릴 때 “구야식게레바 에라구나레” 라는 말을 잘했다.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말이다. 사실 식민지 백성이 일본사람에게 떨거나 천대를 당하지 않으려면 제국대학을 나와 관리가 되거나 아니면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하여 장교가 되는 길 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것이 어찌 그리 쉬운 일

인가 말이다. 사실 학업에 열중하여 중학교를 졸업했으면 전문학교나 대학교에 진학할 것이지 지원병에 응모하여 사지로 가려고 하는 자가 있겠는가. 지원병제가 생긴 초창기에는 그래도 응모하는 자가 많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것도 반일감정이 농후하고 또 “필사봉공”의 각오로 입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지원하는 자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총독부는 이인석(李仁錫)이라는 상등병을 내세워 신병 모집에 열을 올렸던 것으로 안다. 그런데 그 이인석이라는 자는 실재인물이 아니고 총독부가 모병을 위해 내세운 가명이었다는 말도 있었다. 중일전쟁은 시시각각으로 확대되어 갔다. 일본편을 도와 중국침략편에 가담하는 자가 없다. 미나미 총독은 1939년 2월 26일에 조선 사람에게 일본인과 같이 두자성으로 그 성명을 바꿔야 한다고 명령했다.

‘창시 개명령’이 공포된 것이다. 조선사람의 성은 단자성이다. 일본사람의 성은 두자성이다. 그리고 조선사람의 성은 그 씨족의 원류를 표시하는 특성을 지닌 것이다. 그러나 일본사람의 성은 씨족을 표시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자체와 입지조건에 따라서 주어진 성이기 때

문에 그 의미가 많이 다른 것이다.

중국사람의 성도 단자성이다. 그런데 여진족은 성이 없이 청태조는 이름을 누루하씨(奴兒哈赤)라고 했고 만주국의 황제 부위는 아침가라(愛清覺羅)라고 하는 4자명의 이름이다. 사실 씨족의 근원도 모르는 두자의 한자를 가지고 성이라고 하라고 하니 문제가 없을 수 없는 것이다. 미나미 총독의 ‘창씨개명’에 대한 강요는 ‘갑오경장’시의 ‘단발령’과 같은 조선사람에게는 치명적인 것이었다. 근원도 모르는 한자 두 자를 합해가지고 성이라고 하라니 말이 되겠는가. 미나미 총독은 이참에 조선사람의 씨족관념을 아주 끊어 버리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많은 법학자와 윤리학자들간에 의견이 왕래가 있었다고 들었다. 씨족의 근본은 별 문제로 하고 성을 두한자로 하면 된다는 원칙에 따라 사람들은 본적지명을 성으로 하거나 아니면 본래의 성에 적당 한문자 한자를 더 붙여 성이라고 제출하는 이가 많았다. 제2차 세계대전은 일본패망으로 1945년 8월 15일에 끝이 났다. 사람들이 자기 성을 다시 찾은 것은 1945년 8월 15일 해방 후다.

“보스톤엔 보스톤 **코리아**가 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보스톤코리아는 보스톤 언론으로서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항상 공정하고 바른 길을 걷도록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십시오. 앞으로도 보스톤 한인 역사를 공정하게 기록하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NEWSTAR BOSTON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매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억불의 매출실적 / 50여 개국 다국적사 / 한국 및 캐나다 자회사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영주
617-921-6979



Kwang O Kim
617-792-8615



Joanne Song
617-797-3562



Sue Rong Tsai
617-792-8842



Yukai Sun
860-830-8599



Thomas Park
617-880-9790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최진민
617-877-0387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OT Kim
617-620-8242

단독주택 Single Family



\$499,900
Sharon, MA
3 Beds, 2 Baths, 2235sf.
Flexible floor plan
#1 Best Place to Live in US
이현주 401-935-3397



\$799,900
Woburn, MA
5 Beds, 4 Baths, 4238 sf.
Terrific spacious home for Large family
Anna Jung 617-780-1675



\$650,000
Framingham, MA
4 Beds, 2.5 Baths, 2920 sf.
조용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Near shopping on #9
Jay Lee 781-654-5281



\$659,000
Andover, MA
3 Beds, 2.5 Baths, 2900 sf.
안전하고 조용한 주거 환경
밝고 좋은 구조의 집
Janice Lee 978-806-6023

단독주택 Single Family



\$749,900
Westwood, MA
3 Beds, 2 Baths, 2475 sf.
Updated kitchen, windows, roof, hot water tank etc.
이현주 401-935-3397



\$725,000
Brookline, MA
2 Beds, 2 Baths, 1523 sf.
Near BU, Coolidge Corner
Sunny 2 bedrooms
Jason Jeon 617-642-5670



\$699,000
Lexington, MA
5 beds, 2 baths, 2021 sf.
Endless possibilities to develop
Many acres of conservation
OT Kim 617-620-8242



\$359,000
Billerica, MA
3 beds, 2.5 baths, 2694 sf.
Near Commuter Rail
Nice neighborhood
Kwang O. Kim 617-792-8615

단독주택 콘도 Condominium



\$599,000
Bedford, MA
3 Beds, 2 Baths, 2234 sf.
Quiet and nice place to live
Gina Choi 978-866-3248



\$429,900
Belmont, MA
3 Beds, 1 Bath, 1245 sf.
좋은 학군, 편리한 교통
Anna Jung 617-780-1675



\$239,000
Acton, MA
3 Beds, 2.5 Baths, 1594 sf.
Updated kitchen, floors
Gina Choi 978-866-3248



\$318,000
Hopkinton, MA
2 Beds, 2.5 Baths, 1651 sf.
좋은 가격의 깨끗한 콘도
Michael Yun 617-459-598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Condo
Cambridge/ \$460,000
2 beds, 2 full baths
Greenline extension
Jason Jeon 617-642-5670

Condo
Cambridge/ \$349,000
Charming 1 bedroom condo
Close to Harvard Sq.
Joanne Song 206-734-1407

프랜차이즈
300개 점포 소유 회사
S.J Park 617-304-7001

아파트 건물 투자
아파트 건물
학생 렌트 건물
Cambridge, Boston
S. J Park 617-304-7001

Space for Business
케임브리지 H-Mart 근처 빈자리
한인 비즈니스 최적 위치
S.J Park 617-304-7001

Drop off Store
찾기 힘든 Drop off store
좋은 위치, 고정적인 손님
일년 매출 \$300K 이상
제이슨 전 617-642-5670

Full Plant Cleaner
저렴한 렌트,
안정적인 수입
넓은 파킹
제이슨 전 617-642-5670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미국 부동산 관련 서비스 그룹 / 2004년 1월 / 100여 명의 에이전트 /
다양한 부동산 서비스 / 20여 개의 도시 / 전국 및 해외 서비스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제이슨 전
617-642-5670



헤이줄 송
617-895-7676



Shell Yu
781-526-2416



Janice Lee
978-806-6023



나원태
617-642-3156



Steve Yoo
617-386-3451



신보경
508-361-6064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Gina Choi
978-866-3248

Restaurant  \$799,000 Cambridge, MA Center of Harvard Sq. Including Liquor license 3400 sf. Capacity of 120 people Anna Jung 617-780-1675	SAT Academy  \$50,000 Brookline, MA SAT Tutoring Academy Near many good schools Close to Route 9 and I-95 Julie H. Lee 401-935-3397	Business Consulting  레스토랑 셋업 컨설팅 SJ Park 617-304-7001	Restaurant  \$869,900 Brookline, MA Coolidge Corner 전철역 근처 Restaurant w/ Liquor 5000 sf. 180 인석 Anna Jung 617-780-1675
Dry Cleaner  \$180,000 Salem, MA Dardown Salem area Well established business Kwang O. Kim 617-792-8615	Restaurant  \$299,000 Northampton, MA Restaurant w/ liquor license Well maintained location Kwang O. Kim 617-792-8615	Restaurant  \$179,000 Nashua, NH One of the reputable Asian cuisines in Nashua, NH Jason Jeon 617-642-5670	Deli  \$250,000 Boston, MA Boston downtown 중심에 위치 Great potential to grow Jason Jeon 617-642-5670
Cafe  \$250,000 Boston, MA Cafe w/ 프로즌 요거트, 버블 티, 아이스크림 Anna Jung 617-780-1675	Deli  \$99,900 Chelsea, MA Amazing Deli with lottery, cigarette, ATM for sale Anna Jung 617-780-1675	Grocery  Ask agent for price info. Allston, MA 1100 sf. Hot Business Spot Anna Jung 617-780-1675	Jewelry Business  \$74,990 Natick, MA 좋은 위치, 잘 운영되는 비즈니스 New owner를 위한 training 제공 Michael Yun 617-459-598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Full Plant Cleaner \$100,000 Weymouth, MA 잘 운영되는 비즈니스 Jason Jeon 617-642-5670	Convenience Store \$120,000 Worcester downtown Great business potential Won T. Ra 617-642-3156	병원 건물 렌트 Worcester 3000 SF. S.J Park 617-304-7001
Full Plant Cleaner \$200,000 Middleton, MA Middleton mall 내 위치 Jason Jeon 617-642-5670	커머셜 커머셜 건물 투자 S.J Park 617-304-7001	비즈니스 빈자리 센트럴 sq., 하버드 sq. 올스톤, 뉴튼 센터 비즈니스 빈자리 S.J Park 617-304-7001	APT Rental 보스톤 아파트 전문가! 가격, 지역, 방 갯수 등 원하시는 조건에 맞추어 찾아 드립니다. David Kim 781-956-0409

최고의 실력과 탄탄한 경력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곧 전화하세요 !!!

보스톤 한국콜택시
Boston Hankuk Jonghap Service, LLC

- 공항 픽업/관광 ● 소형 이삿짐/카지노
- 미니밴/승용차 ● 쇼핑물(아울렛 물)

617.461.9270

한인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이민법 전문 변호사



스티브 서

비자 / 영주권
투자이민/취업이민
Lawcity7@gmail.com

www.Stevesuh.com

617-877-3435

Vol 10, No.44 November 7 2014

한인들과 함께하는 좋은 신문 Bostonkorean@hotmail.com

발행처 :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한진택배
HANJIN EXPRESS
보스톤 대리점

Tel 617.782.2424
175 Harvard Ave St14A, Allston, MA

업소탐방 261

맛도 이름도 개성이 넘치는 샌드위치

완스(Wan's)

완스(Wan's)

172 Brighton Ave, Boston, MA 02134
617-783-8787
http://www.alsdeliboston.com/

선 가든 힐링센터

지압 침 기치료

617-953-4988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제시 카 알바, 밥 말리, 데쓰위치(Deathwich), 천국은 이곳에(Heaven is Here), 139...

이게 다 뭐지, 싶은 이 이름들은 올스톤에 위치한 완스(Wan's)의 샌드위치 이름들이다. 맛도 이름도 개성 있게 창조하고 싶었다는 완스의 사장 알(AI)은 본인이 직접 만드는 샌드위치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밥 말리 샌드위치가 실제로 밥 말리와 관련이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즐거운 호기심을 가질만한 독특한 아이디어" 라고 알 사장은 전했다.

심지어 허쉬(Hush)라는 샌드위치는 벽에 걸려있는 메뉴판에 뿌옇게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다. 저건 무슨 메뉴냐고 물으니 알 사장은 시원하게 웃으며 "허쉬는 매년 내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특별 메뉴" 라고 설명했다. "간혹 허쉬를 주문하는 유쾌한 손님들이 있다. 하지만 매년 기가 막히게 만들어 주니 맛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 며 자신 있게 대답했다.

완스의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데쓰위치, 비지본(Bizzy Bone), 파스트라미 (Pastrami), 르우벤(Reuben) 등이 있다. 데쓰위치 같은 경우는 주문이

하나가 들어와도 무조건 두 개를 만들어야 할 만큼 손님들이 줄지어 주문하는 인기 메뉴다. 철판에 스테이크, 돼지고기, 터키를 달짝지근한 데리야끼 소스와 이탈리아인 시즈닝으로 요리한 데쓰위치 샌드위치는 양상추와 토마토가 곁들여진 푸짐한 샌드위치다.

노스이스턴 대학교(Northeastern University) 근처에서 10여년 가까이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해온 알 사장은 약 6개월 전 올스톤으로 가게를 옮겼다. 수많은 언론을 통해 얼굴 도장을 찍은 그의 가게는 학생들 사이에서 유명하다. 아직도 그의 샌드위치 맛을 그리워하며 멀리서 찾아오는 학생 손님들이 많다.

알 사장은 음식의 맛도 맛있지만 무엇보다 손님과의 인간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손님들과 금전적인 관계로 엮이기보다는 친구 같은 관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즐겁다는 알 사장은 "손님들이 편하게 가게로 들어와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가게가 되었으면 좋겠다" 고 한다.

주방에서 샌드위치 만드는 과정을 카메라로 촬영

하고 있으니 카운터 너머로 단골손님들이 "나도 주방으로 들어가게 해달라" 며 장난기 어린 한마디를 건넨다. 이에 알 사장은 질세라 "카메라를 가져오면 들어오게 해줄 것" 이라고 대답해 가게 분위



기를 즐겁게 만든다. 이런 완스에는 늦은 시간에도 단골손님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양도 푸짐하고 맛도 보장된 완스의 샌드위치의 가격은 \$10.25로 모든 메뉴가 같다. 영업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밤 11시까지다.

dyoo9146@bostonkorea.com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 숨쉬는 한 가족 같은 사랑공동체에서 참 기쁨과 평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시겠습니까?

주일예배: 오후 12:30 담임목사: 최형락

보스톤 사랑의교회
www.boston1vechurch.com
1 Church St., Wakefield, MA 01880 (978)869-2596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781-648-0584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보스톤코리아 업소탐방

신청 방법:
전화번호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오리엔트 여행사
Orient Travel

781.665.0004

145 Main st Melrose, Ma 02176
theorienTtravel@yahoo.com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한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신문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현재 한인업소록의 각종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혹 누락된 번호가 있으면 617-254-4654나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즉각 반영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견인	617-338-2352
고등교육위원회	800-632-8075
고등교육정보센터	617-727-7785
공중위생국	800-442-1171
구세군	617-624-6000
국세청	617-536-7469
남서문의	800-829-1040
로간국제공항	617-976-6200
미아찾기	800-235-6426
백배지역	888-477-6721
보스턴공립학교	617-345-7958
보스턴수도	617-635-9000
보스턴시청	617-989-7000
보스턴총영사관	617-635-4500
사우스역	617-641-2830
사회보장국	617-345-7958
성폭행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음/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운전면허	617-351-4500
벨라어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정신청 (Verizon)	617-555-1515
텍스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 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철학자협회	978-407-7554
국제철학자협회	603-889-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골프협회	978-902-8305
NE교육자협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산악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변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추진위원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통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617-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무인협회	508-826-5270
이북도도민연맹회	978-514-3399
한인학교연합회	781-424-5269
FH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인양자(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등학교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 산악회	774-270-1948
백운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978-314-9620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교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영성중고등학교동창회	802-734-2521
이화여고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고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회보	781-933-8822
중앙일보(뉴욕)	718-361-7700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가톨릭	
구세군 몰든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몰든교회	617-792-8780
그레시안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내수아한미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성도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대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 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밀알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의교회	978-869-2596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산성교회	617-997-6165
보스톤 새생명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톤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성령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보스톤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톤안식일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리장로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우살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아름다운교회	617-869-815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이 벨렐교회	978-274-2369
엘리스 한인장로교회	413-549-6493
엘리스 시온교회	413-549-9200
우시 교회	508-799-4488
웨스트프론티어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종은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434-382-9450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하버드 한인교회	617-770-2755
하버드 한인교회	617-441-5211

꽃	
미스티학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드슨꽃집	781-894-1843

금융/투자

인덱펀드(모기지)	617-777-2929
에이저 리	781-591-2722
이중스파이낸스	617-799-6158

방송/에어콘/히팅

JK 플라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도레미 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울스트링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길 동물병원	978-658-5282

떡/진치/반찬

형제떡집	978-975-3303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킴클럽	617-331-1011
단오 헤어살롱	617-206-4560
뷰티룩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얼굴방	617-437-0378
웨스트메인헤어	508-734-0446
안디옥 교회	978-534-3394
티케이헤어디자인	781-788-7675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인	978-772-7886
헤어 스킨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지혜헤어스타일	617-818-5596

돌상 대여

해피돌상	617-583-2339
------	--------------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영국	617-650-6656
한국디지털위성	617-567-1346

변호사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국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국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중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 서 변호사(미인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커맨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변호사	617-860-0171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978-475-5656
그레이스 길 가정의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드광학(0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우신경정신과

심리상담	617-566-1055
양미아웨일리카운셀링	508-728-0832
인디안힐리안상담소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치료료병원	781-365-1876
덕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정신건강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규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퍼럴리덴탈	617-471-6970
이영원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	617-871-1482
퀸지치과	617-471-2184
퍼스트치아시덴탈그룹	617-273-2233
프로스펙트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메이치과	781-894-1127
아이리덴탈	781-861-8978
ASHLAND FAMILY DENTAL	508-881-7272
상충학비철임플랜트	781-894-1470
전문치과	401-729-2711

보석

국제보석상	617-523-2553
메타판보석	617-298-6661
우리보석	781-272-2400

보험

고영복(메트라이프)보험	978-646-3042
스타비(남술)김/류영생	617-538-7851
이윤항 보험	781-325-3406
조중은 종합보험	781-255-1134
베스트치아시인종합보험	617-782-8800

비디오

나비스(촬영/편집)	617-756-5744
------------	--------------

부동산

가나안부동산(손득한)	617-290-0623
김중희부동산	978-866-7789
김현구부동산	617-694-0985
김현정부동산	617-388-8527
백영중부동산(뉴스타)	978-239-0141
송기백부동산	781-510-9924
송현미부동산	617-835-7664
손옥원부동산	508-737-8636
신한철부동산	617-947-6293
에이블부동산(채경)	617-868-2253
오성희부동산	617-275-3109
이경혜부동산	800-867-9000
이정선	781-874-2087
이도경(condo & rental)	781-771-0047
정혜윤부동산(EXT.125)	603-770-3491
정윤숙부동산	617-236-8600
조현경부동산	508-249-5838
프루덴셜(이효숙)부동산	203-255-2800
프루덴셜(김종미)부동산	603-845-2138

사진관

김아람 포토그래피	617-529-0427
나비스 스튜디오	617-756-5744
영스타디오	774-253-1800

생선가게

매터팬시마켓	617-298-2260
매일전치미시	781-862-7984
보스톤피시	617-282-2980
브룩라인피시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신문) ▶수표 보내주소: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청기와식당에서 웨이트레스 경험자 구합니다. (풀타임/파트타임)
T. 781-424-2872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N [매 매] 세탁소매매

건물+세탁소(33만불)
.9년간 같은 주인경영
.경쟁자 없음
.살기좋은 백인동네
.미 독립기념일 1주간 문닫고 휴가
.은퇴관계로 매매
.Chatsworth, GA(Dalton근방)
T. 706-980-9510 Mr Kim

N [구인]

한식당주방장과 부주방장 구합니다
작은 동양 마켓안 한식당 주방장과 보조 각 1명씩 더 모집합니다
현재 주방장 보조 서빙 2명 디시워셔 하시는분 일하고 있음
식당테이블 17개 주 6일 근무, 주일은 쉽니다(인수가능)
Warner Robins GA I-75 EXIT 160근처
T. 615-714-8016

MANAGER/SUPERVISOR AT DRY CLEANING FACILITY

Direct day-to-day assembly, delivery, and shipping department at a dry cleaning facility. Coordinate with Cleaning Department. LOCATION Brockton Mass. EXPERIENCE in Dry Cleaning business, good English, and references required. SALARY: Start \$13/hour for first 90 days, Negotiable, afterward based on demonstrated abilities. TO APPLY Fax application and resume to (888) 790-4171.

미용가위, 애견가위 세일즈 하실 분 구합니다. 가위 가는 기술 전수합니다.
T. 917-513-7771

딜리버리 및 영업사원 모집

매사추세츠/뉴햄프셔지역 가족세탁 공장에서 의욕적으로 일할 딜리버지 및 영업사원을 모집합니다.
연령제한 없음, 미니밴 소유자.
TEL 929-600-3512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N [매 매]

필리 치즈스테이크 샌드위치 가게
연매출 :\$340,000
순이익 :\$160,000 이상
매매가 :\$160,000
루지애나 주 뉴올리언즈 지역
C. 504-729-8688
T. 985-646-1771

N [구인]

시카고 지역에서 일하실 사이딩쿠루 구합니다.
T. 847-307-1812

벌링턴에 위치한 일식집(산수갑산)에서 주방보조 구함 (풀타임)
T. 718-690-00891

Looking Korean interpreter

Looking for an experienced certified Korean interpreter. Certification should be from a qualified program, would prefer experience but will consider new certificate holder. Must be able to interpret in a variety of community settings. As an independent contractor you can set your own hours and earn an above average hourly wage. Please send your resume to susan_kelliher@ccab.org or call 617-464-8122. Immediate openings.

세탁소 팝니다. 부유한 동네 Drop-Store

관심있는 분 연락 바람
T. 857-636-2611

N [매 매]

만테나 빌링스에서 가족같이 일하실 성실한 마사지사 구합니다.
안전한 곳이고 숙식제공 되고 수입 보장 함.
T. 406-259-6211

N [호텔직원구인]

사바나지역(Savannah, GA)
.룸서비스(여자)
.하우스맨(남자)
.오버나이트서비스맨(남자)
.게스트서비스맨(남자)
.전직원 숙박제공
시간당 \$9.50부터
주 40시간제
T. 678-689-7751

4989 부동산매매는
뉴스타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FIXALL

바이러스 치료, 데이터 백업/복구
맥OS/윈도우/리눅스 설치/복구
각종 컴퓨터 수리 및 업그레이드
홈 네트워크 설치
TEL 617-710-4952

N [마사지구인]

노스 다코타 인테리어 휘니시 기술자 구합니다.
인테리어 휘니시, 케비넷도어, 트림, 유 경험자 환영.
미네소타&노스다코다 지역 포함.
T. 952-292-6090

Get Educated. Do More. CLASSES STARTING SOON! 888.873.5082



CSI is the perfect choice when it comes to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CSI is ranked by SEVP as one of the top five F-1 and M-1 approved schools with the largest popula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Whether you are trying to apply for a student visa or transfer from another school, CSI can help.

- CSI가 다른 학원들과 다른 특징 ?**
- 저렴한 학비
 - 인턴십을 통한 CTP획득 기회
 - 영어 프로그램 공식 여름 방학
 - 국제 학생입학 : 해외 학생들의 비자변경, 학교 편입을 도움

ESL Programs - \$3600 per year
English Programs - \$4200 per year
Skill Building Programs - \$4700 per year
*Books and supplies not included in tuition



CAMPUS LOCATIONS

Chicago • Skokie • Lombard • Gurnee • Elgin
Charlestown/Boston • Worcester

Computer Systems Institute is approved by the Division of Private Business and Vocational Schools of the Illinois Board of Higher Education and is authorized under federal law to enroll nonimmigrant alien students. Student visa and work authorization are issued to those who qualify.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graduation rates, the median debt of students who completed the programs, and other important information, visit our website at: http://www.csinow.edu/about/calconsumer information. Program offering varies by campus. Tuition prices effective as of 5/1/14.

류승완 감독 "서울독립영화제 수상으로 인생 바뀌었다"

1999년 '현대인'으로 수상

(서울=뉴스1스포츠) 장아름 기자 = 류승완 감독이 '서울독립영화제'와의 인연을 공개했다.

류승완 감독은 5일 오후 5시 서울 중구 정동 환경재단 레이철 카스홀에서 열린 '서울독립영화제 2014' 기자회견에서 "심사위원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하다. 내가 1999년 '현대인'으로 수상할 당시 영화제 심사위원이 이창동 감독님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이어 "당시 굉장히 좋은 영화들이 출품 많이 했는데 영화제에 작품을 내놓고 영화제를 즐기지도 못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특히 동생인 배우 류승범이 아파트 앞에서 군고구마 장사를 할 당시였다. 아파트 앞에서 군고구마를 팔다가 류승범이 대신 전화 한통을 받았다. 군고구마 배달전화인 줄 알았는데 본선 진출 소식 전화더라. 본선에 진출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또 류승완 감독은 "전혀 예상치 못한 수상으로 인생이 바뀌었다. 이후에 나머지 영화들을 만들 수 있었다. 그 수상을 계기로 이후 촬영장에서도 모든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활기차게 작업할 수 있었다"며 "거창한 심사 원칙보다 마음을 움직이는 영화를 지지할 것이다. 나 역시 언제나 '서울독립영



화제'에 출품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누구를 넘어서야 할 것인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여 좌중을 폭소케 했다.

류승완 감독은 '서울독립영화제 2014'의 경쟁 부문 심사위원으로 위촉됐다. 그는 고영재 프로듀서, 남동철 부산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부지영 영화감독, 임순례 영화감독과 본선 상영작 총 46편(단편 35편, 장편 11편) 중 영예의 대상(상금 2000만 원)을 포함, 7개 부문의 약 6000만 원 규모의 시상 책임을 진다.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하는 서울독립영화제는 영화진흥위원회와 한국독립영화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독립영화의 대표 축제이다. 한 해 동안 만들어진 독립영화들을 정리하고 평가

하는 자리로, 매년 연말에 개최된다. 장르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한 해의 독립영화를 아우르고 재조명하는 축제의 장으로서 연대와 소통의 공간을 지향한다.

'서울독립영화제 2014'는 독립영화의 본질을 되짚고자 40주년 슬로건 '독립본색'에 걸맞은 비전을 지닌 독립영화를 선발한다. 프로그램은 ▲경쟁부문 ▲새로운 선택 ▲특별초청 ▲35mm 단편 영화 특별전 ▲해외초청 등 다섯 개 섹션으로 구분되며 국내 115편, 해외 10편, 총 125편의 영화를 선보인다. 내달 5일까지 9일간 CGV아트하우스 압구정과 광화문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에서 진행된다.

aluem_chang@news1.kr

MC몽 멸공의 핫불 논란에 진중권 일침

"독재 정권 시절 군가"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 팀 기자 = MC몽 멸공의 핫불 논란에 진중권 교수가 일침을 가했다.

진중권은 지난 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정의의 관점에서 MC몽의 행실을 비판하는 것은 온당한 일이나 그 방법으로 독재 정권 시절에 지겹게 들었던 군가를 리바이벌시키는 것은 내게는 물취향해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군가 3공의 추억은 이제 그만. 병역 문제는 병역 문제, 음악적 작업은 음악적 작업이다. 굳이 연결시킬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든다. 그렇지 않아도 육은 충분히 들어먹은 것 같은데, 그걸로도 성이 안 차는 사람들이 많은 듯하다. 그래서 이 상황이 불편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MC몽은 이날 자정 총 13곡이 수록된 정규 6집 'MISS ME OR DISS ME?'(부제 그리움)을 발표하고 5년 만에 컴백했다. 이후 MC몽의 신곡 '내가 그리웠니'는 국내 9개 음원 차트를 올킬했고 앨범 수록곡들 역시 차트

상위권에 오르며 관심을 받았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멸공의 핫불' 군가를 검색하며 병역 기피 혐의에 휩싸였던 MC몽의 컴백에 대한 반발심을 드러냈다.

'멸공의 핫불'은 우리 군 10대 군가 중 하나로 '아름다운 이 강산을 지키는 우리 사나이 기백으로 오늘을 산다. 포탄의 불바다를 무릅쓰면서 고향땅 부모형제 평화를 위해 전우여 내나라는 내가 지킨다. 멸공의 핫불아래 목숨을 건다'라는 가사가 담겨 있다.

진중권 교수의 일침에 누리꾼들은 "MC몽 멸공의 핫불, 반발은 이해하나 진중권 교수 말도 일리가 있네", "MC몽 멸공의 핫불, 얼마나 싫었으면 이렇게까지 할까", "MC몽 멸공의 핫불, 어느 쪽 편도 들기 어렵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star@news1.kr



곽정은, 19禁 논란에 "마녀사냥 당하지 않겠다" MC몽 멸공의 핫불, 무슨 가사?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기자 = 19금 발언으로 화제가 된 칼럼니스트 곽정은이 "마녀사냥을 당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곽정은은 6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내 일을 매도하고 싶은 사람에게 조금도 사과할 생각이 없다"며 "성적인 금기에 억눌려 건강하게 자신의 욕구를 분출하는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회에서 섹슈얼한 소재를 가지고 글을 쓰고 말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이성적이고 무논리한 마녀사냥의 피해자가 될 생각도 없다"고 전했다.

또 그는 "섹시한 남자 장기하"라고 말하면 올바른 표현이고, '침대위가 궁금한 남자 장기하'라고 말하면 무조건 옳지 못한 표현인가? 발화의 맥락을 무시한 채 무조건 성희롱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람들에게야말로 묻고 싶다. 앞뒤 안가리고 한 사람의 직업적 발언을 폄하한 것이야말로 '희롱'이 아니냐고" 라고 말했다.

또 "만약 '곰곰 생각해보니 그때 불쾌했다'고 그가 이야기한다면 나는 사과할 것이다. 하지만 당사자가 문제없다고 하는 일에 대해 단지 성적인 욕망에 대해 발언했다는 이유로 나와 내 일을 매도하고 싶은 사람에게 조금도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녀는 "성희롱 여부와는 별개로, 공중파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위의 발언이었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생방송이 아니라 방영 일주일 전에 녹화였고, 이것이 공중파에 적절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해 셀프 검열을 하는 것은 온전히 제작진의 몫으로 존재한다"고 말했다.

곽정은은 "마녀사냥" 녹화장에서 나도 당황할 정도의 수위를 가진 이야기나 표현들이 테이블 위에서 오가지만, 이 프로그램이 대다수 시청자들에게 유쾌한 프로그램으로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적절한 편집의 선을 지킨 제작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star@news1.kr



MC몽 멸공의 핫불, 무슨 가사?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기자 = MC몽 멸공의 핫불 논란과 관련해 가사에 관심이 쏠린다.

가수 MC몽은 지난 3일 자정 13곡이 수록된 정규 6집 'MISS ME OR DISS ME?'(부제 그리움)을 발표하고 5년 만에 컴백했다.

정규 6집이 공개된 이후 신곡 '내가 그리웠니'는 국내 9개 음원 차트를 올킬했고 앨범 수록곡들 역시 차트 상위권에 오르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우리나라 10대 군가 중 하나인 '멸공의 핫불'을 검색하며 병역 기피 혐의에 휩싸였던 MC몽의 컴백에 대한 반발심을 드러냈다.

'멸공의 핫불'에는 "아름다운 이 강산을 지키는 우리 사나이 기백으로 오늘을 산다 / 포탄의 불바다를 무릅쓰면서 고향땅 부모형제 평화를 위해 전

우여 내 나라를 내가 지킨다 / 멸공의 핫불아래 목숨을 건다"라는 가사가 담겨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MC몽 멸공의 핫불,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듯", "MC몽 멸공의 핫불, 이런 군가가 있는지 몰랐다", "MC몽 멸공의 핫불, 가수 컴백에 군가가 등장할 줄이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star@news1.kr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4년 10월 27일 ~ 11월 2일

1위
KBS2 주말연속극
가족끼리 왜 이래
30.7%



2위 KBS1 일일연속극 고양이는 있다 24.3%

3위 KBS2 일일드라마 빠꾸기등지 22.0%

- 4 KBS1 KBS9시뉴스 18.0%
- 5 KBS2 해피선데이 15.9%
- 6 KBS1 한국인의밥상 15.6%
- 7 MBC MBC아침드라마(모두다김치) 15.1%
- 8 KBS2 개그콘서트 14.9%
- 9 MBC 주말특별기획(전설의마녀) 14.8%
- 10 SBS 아침연속극(청담동스캔들) 14.7%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4.99에 볼 수 있는 안TV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 01 헤븐엔딩 (Feat. 조원선 Of 롤러코스터) 에픽 하이
- 02 BORN HATER 에픽 하이
- 03 12시 30분 비스트
- 04 화장 지웠어 (Feat. Zion.T, HA:TFELT) 개코
- 05 손대지마 에일리
- 06 스포일러 에픽 하이
- 07 시간과 낙엽 악동뮤지션
- 08 신촌을 못가 포스트맨
- 09 그게 나야 김동률
- 10 틈 소유, 권순일

숫자 퍼즐 (Sudoku)

		6		8				9
4		9					8	5
5		8			1			4
6		1			9			
	7							3
			8			1		4
	9		1				3	2
	6	2					4	5
3				7		9		

11월 9일 - 11월 15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쥐띠 | 마음을 활짝 열고

● 운수:혹시라도 놓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차근차근 잘 살펴 보아야 합니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만한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 금전: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기기 늘 요즘만 좋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큰 계약도 성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애정: 마음을 활짝 열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봐 주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이 통하니 편해집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9, 14일 길일, 10, 11일 주의.

토끼띠 | 스스로 찾아야

● 운수: 어떻게든 위안거리로 삼을만한 것을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전: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 얻는 것이 있습니다. 매매하기에 적절한 타이밍이 왔으니 잘 활용 하면 이득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 애정: 두 사람의 사이가 많이 진전되는 때입니다. 싱글은 가까이에 인연이 있으니 멀리서 찾지 말고 주위를 둘러보세요. 87, 75, 63, 51, 39, 27년생은 12, 15일 길일, 10, 13일 주의.

말띠 | 뜻밖의 행운이 오니

● 운수: 남의 말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소신대로 일처리를 하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입니다. ● 금전: 투자나 매매에 있어서 큰 기쁨이 따릅니다. 매사를 순리대로 처리하면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 애정: 메이크업이나 헤어스타일의 변화 등 외모에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뜻밖의 행운이 오니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세요. 90, 78, 66, 54, 42, 30년생은 11, 15일 길일, 13, 14일 주의.

닭띠 |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 운수: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첫걸음을 시작해야 합니다. ● 금전: 들어올 돈이 자꾸 미루어지니 마음이 답답하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이득이 따라올 것이다. ● 애정: 화려한 사랑이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계절을 타는지 지나간 추억에 젖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9, 14일 길일, 13, 15일 주의.

소띠 | 새로운 변화를

● 운수: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로운 변화를 주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사를 하거나 이전을 하기에 적합한 때입니다. ● 금전: 생각지도 않게 들어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장바구니 부담을 크게 줄여줄만한 일이 있겠습니다. ● 애정: 멋진 사랑을 할만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할만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10, 13일 길일, 11, 14일 주의.

용띠 |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 운수: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아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 금전: 원가를 사려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시세에 비해 턱없이 싼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 애정: 사실 여부를 떠나서 한 번 의심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의심스럽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9, 13일 길일, 11, 14일 주의.

양띠 | 우연한 만남이 예상되는

● 운수: 말을 안 해도 혼자서 척척 알아서 잘해주는 사람이 있겠습니다. 어디서 이런 복덩이가 들어왔나 하는 기분이 들 것입니다. ● 금전: 좋은 물건을 싸게 구입을 하게 되니 크게 절약이 됩니다. 돈을 쓰면서도 이익을 본 것 같은 것입니다. ● 애정: 우연한 만남이 예상되는 시기입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용기를 내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세요. 91, 79, 67, 55, 43, 31년생은 9, 12일 길일, 11, 14일 주의.

개띠 |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 운수: 칭찬을 해줄만한 일이 있을 때 제대로 해주어야 합니다. 칭찬의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전: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묶어두기보다는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상태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은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애정: 상대가 병주고 약주는 행동을 하니 마음도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9, 15일 길일, 13, 14일 주의.

범띠 | 벌집을 건드린 격이

● 운수: 가만히 내버려두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일을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괜히 벌집을 건드린 격이 될 수 있습니다. ● 금전: 금전 문제로 서로 불편해질 수 있는 때입니다. 지금은 길게 대화를 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애정: 이미 상대를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도 아직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11, 15일 길일, 9, 12일 주의.

뱀띠 | 에너지를 재충전해야

● 운수: 틈틈이 쉬면서 에너지를 재충전해야 합니다. 더 이상 무리하면 결국은 체력의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 금전: 촉만 믿고 거래를 하다가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리스크를 고려해서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 애정: 지금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한 일이라도 금방 후회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도록 하세요. 89, 77, 65, 53, 41, 29년생은 10, 14일 길일, 12, 15일 주의.

원숭이띠 | 순서를 정해서 처리해나가야

● 운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씩 순서를 정해서 처리해나가야 합니다. ● 금전: 자신이 살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자신에게도 큰 득이 되지 않습니다. ● 애정: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한 행동이 상처를 주거나 불편을 끼치는 일이 될 수 있으니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0, 13일 길일, 12, 15일 주의.

돼지띠 | 흔들리지 말아야

● 운수: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스스로 초라해지고 불행해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됩니다. ● 금전: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태산이 아니라 돌부리입니다. 사소한 것이라고 너무 가볍게 여기다가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애정: 이미 인연이 있거나 짝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금방 들릴 수 있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3, 14일 길일, 9, 15일 주의.

'빅매치' 이정재, "근육 몸매 위해 18kg가량 몸무게 늘렸다"

(서울=뉴스1스포츠) 장아름 기자 = 배우 이정재가 액션 연기를 위해 몸을 만들었던 과정을 공개했다.

이정재는 6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CGV 압구정에서 열린 영화 '빅매치'(감독 최호) 제작보고회에서 극 중 등장하는 고난도 액션 연기에 대해 "사실 부담이 많이 됐었다. 초반부터 (액션) 분량이 너무 많아서 시간 내에 다 찍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몸을 어떻게 만들었냐는 질문에 "이 영화를 하기로 결정하고 몸무게부터 늘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원래 70~71kg를 왔다갔다 하면서 88kg까지 늘렸다. 근육량을 점점 늘렸다"고 답했다.

또 이정재는 "육식상 근육량을 더 늘리고 싶었는데 더 이상은 안되더라"며 "점심 먹고 오후부터 격투기 훈련도 해야 해서 운동량이 너무 많으니까 힘들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정재는 '빅매치'에서 타고난 승부사 기질과 집념을 가진 불굴의 파이터 최익호 역을 맡았다. 최익호는 천재 악당 에이스(신하균 분)에게 납치된 형을 구하기 위해 도심 전체를 무대로 한 사상 초유의 미션에 도전하게 되는 인물이다.

'빅매치'는 도심 전체를 무대로 천재 악당으로부터 형을 구하기 위한 익호의 무한질주를 그린 오락 액션 장르의 영화다. 배우 이정재, 신하균, 이성민, 보아, 김의성, 라미란, 배성우



손호준, 최우식 등이 출연한다. 오는 12월 개봉 예정이다. aluem_chang@news1.kr

연미주의 완벽 보디라인 피트니스 화보 공개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팀 기자 = 배우 연미주가 건강한 섹시미를 뽐낸 풍기는 화보를 공개했다.

연미주는 피트니스 매거진 '머슬 앤 피트니스(Muscle & Fitness)' 11월호를 통해 탄탄하고 완벽한 보디라인을 선보였다.

공개된 화보에서 연미주는 선명한 11자 복근과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몸매를 자랑했다. 특히, 땀에 젖은 채 덤벨을 들고 있는 모습은 구릿빛 피부와 어우러져 건강미와 섹시미를 동시에 드러냈다.

연미주는 화보와 함께 진행된 인터뷰에서 지난 2008년 불의의 사고를 겪고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

기 등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를 공개했다.

star@news1.kr



윤종신, 솔로 출격 규현 응원

(서울=뉴스1스포츠) 권수빈 기자 = 가수 윤종신이 슈퍼주니어 규현의 솔로 활동을 응원했다.

윤종신은 6일 자신의 트위터에 "슈주의 진짜 보물은 이 친구죠! 노래 좋습니다.. 라이브로 들어본 1인!"이라는 글과 함께 규현의 공식 홈페이지 주소와 사진을 게재했다.

규현은 오는 13일 자정 멜론, 지니, 네이버뮤직 등 각종 음악 사이트를 통해 첫 미니앨범 '광화문에서' 전곡 음원을 공개하고 솔로 활동에 나선다. 윤종신은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서 함께 MC를 맡고 있는 규현에게 방송 동료이자 선배 가수로서 응원을 보낸 것.

규현은 이날 공식 홈페이지, 페이스북, SM타운 등을 통해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다. 가을 분위기가 물씬 나는 모습으로 어떤 음악을 들려줄지 기대감을 모았다. 뛰어난 가창력과 감성으로 인정 받고 있는 규현인 만큼 그가 들려줄 음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ppbn@news1.kr



홍진영, 신곡 '산다는 건' 음원 공개 기념 셀카

(서울=뉴스1) 온라인팀 기자 = 3기수 홍진영이 신곡 '산다는 건' 음원 공개 기념 셀카를 선보였다.

홍진영은 6일 자신의 SNS에 "오늘 '산다는 건' 음원공개 됐어요.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홍진영이 블랙 민소매 티에 화려한 목걸이를 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특히 홍진영은

날렵한 턱선과 무결점 피부를 자랑해 시선을 사로잡는다.

앞서 이날 정오 홍진영은 신곡 '산다는 건'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산다는 건' 뮤직비디오에는 MBC '우리 결혼했어요 시즌4'에서 가장 부부로 연을 맺고 있는 남궁민이 출연해 눈길을 끌었다.

suyoung0403@news1.kr



천지보살

운명사주궁합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론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김씨의 뿌리(20)>



김은한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김씨와 왕망을 연결해준 효원황후 왕정군 (孝元皇后 王政君: BC 71~AD13)

효원 황후 왕정군은 한나라 10대 황제 원제의 황후였다. 18세 때 궁녀로 입궁하여 원제의 황후가 되었고 84세로 임종할 때까지 그녀는 7명의 황제를 겪었고 다섯 황제의 죽음을 권력의 정상에서 지켜본 한나라 역사의 산증인이었다.

후일에 한나라를 뒤엎고 신(新)나라를 세운 왕망은 왕정군의 남동생 왕망의 아들이었다. 김일제의 증손자 김당(金當)의 어머니 남대부인(南大夫人)의 형부가 왕망으로 왕씨와 김씨는 사돈지간이 된다.

당시에 황후로 간택하려면 규수의 집안이 명문세가 이든지 규수의 미모가 아주 출중하여야 가능한 일이었다. 왕정군의 집안은 행세하는 집안이었지만 그렇게 대단한 명문세가는 아니었다. 미모 역시 평범하였지만 미인에는 들지 못하였다. 그녀가 황후가 된 것은 운이 아주 좋아서 황후가 되었다.

한선제는 황제가 되기 전에 평민 출신의 허평군(許平君)과 결혼하여 유석이라는 아들을 두었는데 허평군이 광광의 처 현아에게 독살 당했다는 사실을 이미 말한 바 있다.

선제가 황제가 되자 유석이 자연스럽게 태자로 지명받았다. 당시에 유석은 사마씨라는 태자비와 금슬 좋게 살고 있었는데 그만 사마씨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

죽기 전에 사마씨는 태자에게 “첩은 원래 죽을게 아닌데 다른 비빈들이 저주해서 죽는다” 는 원한에 찬 말을 남기고 죽었다.

그런 연유로 해서 태자는 비빈들을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는 상심 속에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일반 가정의 남자라면 부인을 잃고 홀애비로 지내도 타할 수 없지만 일국의 태자는 후사를 이을 다음 왕손을 출산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가 있기 때문에 홀로 지내는 것이 허용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부왕 효선제는 태자를 폐위시킬 생각을 하게 되었다. 태자 유석의 계모 왕황후는 정숙한 여인이었다. 태자가 빨리 여자를 가까이하여 소생이 출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궁녀 5명을 뽑아 그 중에서 한 명을 태자가 지명하기로 하였다. 그 5명 중에서 한 명이 왕정군이었다.

하지만 태자 유석은 여전히 죽은 사마씨를 생각하며 비통해 있었기 때문에 앞에서 있는 다섯 명의 궁녀들 중에서 태자비를 선택할 의욕이 전혀 없었다. 고개를 들어 여자들을 보지도 않고 손가락으로 제일 가까이 서 있는 궁녀를 가리켰는데 운 좋게도 그 여자가 바로 왕정군이었다.

왕정군이 태자비로 간택은 되었지만 태자는 왕정군에게 일질 관심이 없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딱 한번 들렸는데 운 좋게도 임신하였고, 또 운 좋게도 아들을 출산하였다.

태자 유석의 무관심 속에서 황손이 태어났지만 한선제는 몹시 기뻐하며 친히 유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 유오는 후일에 한나라 11대 성제(成帝)가 된다. 궁중에서는 아들이 귀해지면 어머니도 귀해지는 법이다(母以子貴). 왕정군이 후사를 이을 황손을 운 좋게 맨 먼저 출산한 공(?)으로 태자 유석이 효원제(孝元帝)로 즉위하자 당당하게 효원황후가 되었다. 태자 유석은 황제가 되기 전에 좋아하는

후궁이 두 명 있었는데 부씨(傅氏)와 풍씨(馮氏)였다. 왕정군이 유오를 출산한지 얼마 되지 않아 부씨는 유강(劉康)을 낳고 풍씨는 유흥(劉興)을 낳았지만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 왕정군의 아들 유오가 이미 태어났기 때문이다.

원제는 왕정군의 소생 유오가 황태자가 되고 왕정군이 황후로 정해진 뒤라서 황후 다음가는 소의(昭儀)라는 명호를 따로 만들어 부씨, 풍씨를 소의로 삼았다.

왕정군은 황후라는 명호는 있었지만 제대로 대우를 못 받고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지만 BC33년에 한원제가 43세의 나이로 사망하자 아들 유오가 한성제로 즉위하니 왕정군은 황태후가 되어 전권을 휘어잡게 되었다. 한성제의 효성황후(孝成皇后)는 허광한 집안 허가(許嘉)의 딸을 취해 황후로 책봉하였다. 그녀는 딸을 낳았지만 곧 사망했고 그 이후로는 소생이 없었다.

한성제가 황제가 되면서 민심이 불안해졌는데 세인들은 그 탓을 후사가 없는 허황후에게로 돌렸다.

허황후에 대한 한성제의 총애도 시들어가자 허황후의 친언니 허알은 황후에 대한 황제의 관심을 찾으려고 이미 한성제의 아이를 가진 후궁 왕미인과 왕봉 등을 저주하곤 했다. 하지만 이 사건이 탄로나자 황태후 왕정군이 크게 노하여 허알 등을 사형에 처하고 허황후는 폐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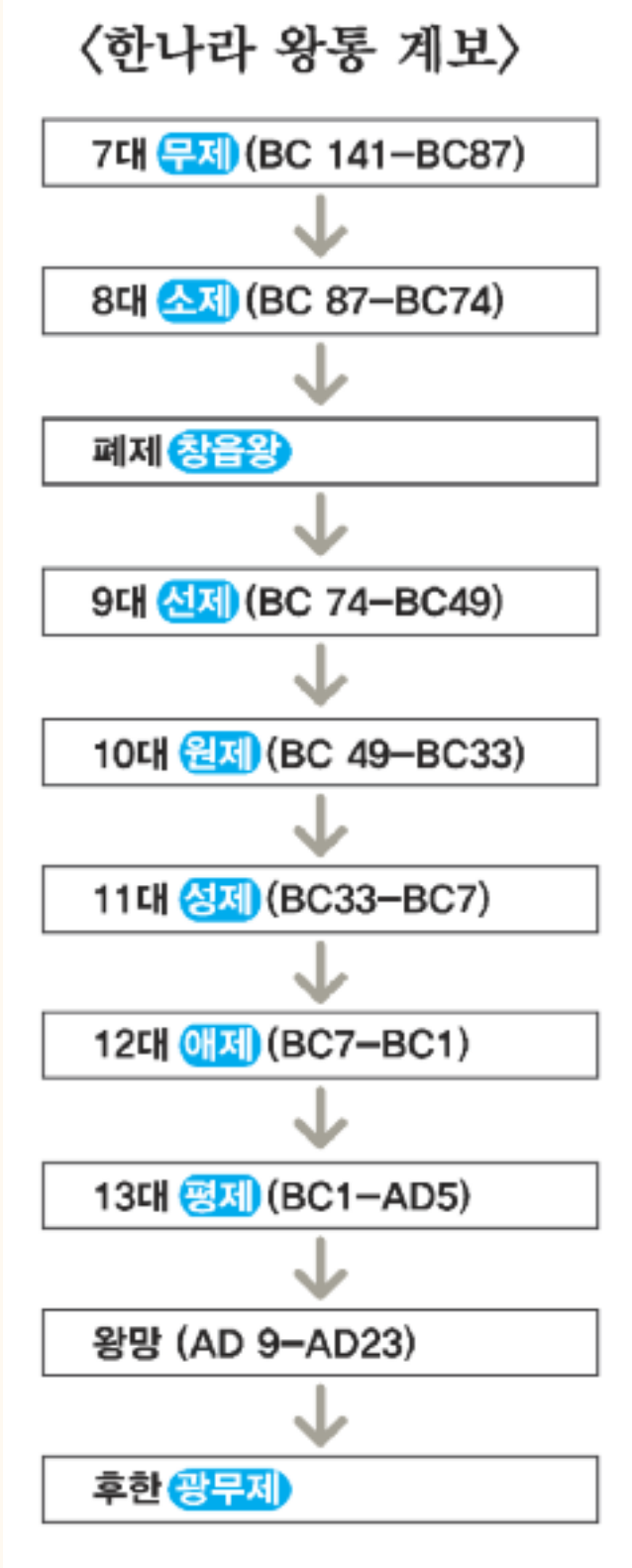
이처럼 왕정군은 황후로는 별볼일 없었지만 한원제가 사망한 다음에는 황태후가 되어 한나라 제일의 권력자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오라비 왕봉을 대사마 대장군으로 봉하여 전권을 장악하게 하였고 자신의 5형제들을 같은 날 한꺼번에 제후로 봉하였다. 후일에 한나라를 멸망시킨 왕망도 24세의 나이로 등용되었다가 38세 때는 대신으로는 최고 지위인 대사마 대장군이 되었다. 이는 그의 숙부 왕봉, 왕상, 왕음, 왕근에 이어 왕씨로는 5번째로 보정 대신이 된 것이다.

BC1년에 왕망은 9살 밖에 안된 평제(平帝)를 황제로 옹립하고 자신의 딸을 황후로 삼았다가 4년뒤에 평제를 독살하고 2살짜리 유영을 제위에 올리고 섭정을 하다가 AD8년에 한나라를 폐하고 스스로 황제가 되어 천명을 받들겠다는 뜻을 선포하였다.

왕망은 왕손을 왕정군 태후의 거처로 보내 황제 권력의 상징인 옥새를 받아오게 하였다. 왕정군이 격노하여 왕망을 욕하였지만 이미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혔으니 어찌할 수 없었다. 그녀는 옥새를 꺼내 힘껏 땅바닥에 내던지며 소리치기를 “가져가거라, 난 늙었으니 곧 죽지 않겠느냐? 내 죽어 너희들 가족을 모두 멸할 것이니 두고 보거라.”

말이 씨가 된다고 왕망은 AD9년에 황제가 되었다가 14년만인 AD23년 후한 광무제의 군사에게 목숨을 잃게 되었다. 이러한 사유로 왕망의 핵심 지지 세력인 김씨들은 광무제의 보복을 피해 중국을 떠나 야만했었던 것이다.



한나라 왕통 계보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성공적인 학업성적을 좌우하는 Academic Writing 향상 및 SSAT/ SAT/TOEFL 목표점수 달성

2014 추수감사절 학업 향상 프로그램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23일과 27일은 제외)

오전 9:30 부터 오후 4시까지
집중강좌

SAT

- Vocabulary
- Grammar
- Critical Reading
- Essay

TOEFL



ETS Official Test & Teaching Center

*개별과목 선택가능하며, 선택에 따라 학비가 결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



“많은 학생들이 TOEFL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shortcut만 찾다 오히려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THAS의 특별한 TOEFL 수업방식을 바탕으로 연습한 덕분에 TOEFL 고득점은 물론 학업도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 R.Kim (TAHS Student)
Johns Hopkins 대학 입학



“For this important time in a student’s career, we provide the edge to get ahead and master the skills necessary for these exams. I really enjoy teaching and developing the students’ academic abilities, and I feel that it really does make a difference.”

- William Jameson (TAHS instructor)
Harvard University



“TAHS helped me to gain the greatest result in a very short time. It was not only a test preparation institute, but moreover was my mentor, who encouraged me and brought confidence in me. Above all those things, the best thing about the academy was that it wasn’t just a place for me to go and study, but also was a place where I felt cared regarding my happiness and future. I believe it was an excellent choice in my life that I chose to take classes at the Academy at Harvard square.”

- V. Maeng (TAHS Student) Wellesley College



The Academy
at Harvard Square

617-492-2722



하버드역에서 1분
30 JFK ST, 3RD FL., CAMBRIDGE MA 02138
www.theAcademy.ac



“매주 2만여명의 독자를 직접 찾아갑니다”



보스톤코리아 이메일 발송 서비스

- 2만여 회원들에게 인터넷 지면보기 전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어 보스톤 코리아가 매주 신문 발행과 함께 이메일로 2만여 회원들에게 인터넷 지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매주 새로운 소식을 전세계 어디에서나 웹사이트에서 또는 지면보기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소식, 깔끔한 디자인
새로운 소식을 깔끔한 디자인으로 전해드립니다. 컴퓨터는 물론 태블릿, 스마트폰에서도 저희 보스톤코리아를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보스톤이안 2014도 볼 수 있어
보스톤 및 미주 생활 가이드로 교육에서 의료 그리고 각종 생활정보를 eBook 또는 보스톤코리아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보기가 어려우시다면?
이제 이메일 주소로 신청하세요!
픽업 장소가 마땅치 않아 보스톤코리아를 보지 못하는 분들은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이메일 보기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신영의 **세상 스케치**

472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11월에 서면...

음력 동짓달 추운 겨울날에 태어난 이유인 지 나는 무더운 여름날보다 찬 기운이 도는 겨울의 길목에서 만나는 이 계절이 참 좋다. 특별히 사계절을 모두 만나고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곳에 산다는 것이 내게 감사이기도 하다. 그 사계절 중 가을과 겨울의 셋길의 십일월을 그 어느 계절보다도 좋아한다. 이른 아침 코끝이 짙~해지고 옷깃을 여미게 하는 십일월. 이 십일월이 되면 나는 뭘지 모를 설렘에 혼자서 즐거워진다. 이렇게 주섬주섬 마음에서부터 새로운 시작의 바람이 분다. 남들은 따스한 봄날에, 꽃피는 봄날에 가슴이 설렌는데 나는 언제나 십일월이면 가슴이 설레고 마음이 꿈틀거린다.

십일월 /신영

붉게 물들이던 햇살은
여름내 뜨거운 사랑 나누더니
가을 나뭇가지 끝에 매달려 있다

주고도 모자라
서성이는 그리움의 그 사랑
떠난 자리 남아 기다린다

만나고 헤어지고
떠나고 보내는 인연 속에
네 자리 내가 있고
내 자리 네가 있다

바람은 불고

물은 흐르는데
어찌 너와 나만 멈출까.

아픔도 지나면 기쁨이고
슬픔도 삼키면 맑아지듯
네 고통이 내 몸을 돌고 돌아
내 마음과 영혼을 만날 때

너와 나
하나의 맑은 영혼으로 남으리.

내 나이 마흔에는 '멋진 여자'로 살고 싶다고 마음의 간절한 기도를 올렸었다. 아마도 그때가 단풍잎 비바람에 떨어지고 낙엽이 흩날리던 서른 아홉 해 11월쯤일 게다. 그리고 내 마흔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그렇게 십년을 정말 멋지게 신바람 일렁거리게 살았다. 그 멋진 삶 속에는 잊지 못할 아픔과 고통과 시련이 함께했음은 물론이다. 그것은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우리의 삶인 것이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참고 견디는 인내를 배웠으며 더욱 멋진 삶을 위해 뒤편과 값을 치렀는지도 모른다. 지난 10년을 가만히 돌이켜 생각하니 감사가 절로 차오른다.

이제 미국 나이 쉰을 맞고 원하나를 마중하고 있다. 그럼 한국 나이로는 쉰둘이 된다는 얘기가. 아직은 젊고 기운 있어 뭐든지 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한다. 내 나이 마흔에

'멋진 여자'로 살고 싶었던 마음처럼 내 나이 쉰에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살고 싶다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올렸다. 어린아이가 크려면 심하게 흥여 양이를 하던가 무섭도록 큰 병을 앓든가 하는 것처럼 나 역시도 마흔아홉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의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난 그렇게 쉰을 맞으며 아름다운 여인으로의 시작을 머뭇거리지 않고 성큼 한 발을 내디뎠다. 정말 '아름다운 오십'을 위하여 그렇게.

'때'라는 것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 나이 오십에 올라서야 이제 조금씩 알 것 같다. 그 '때'는 나 자신 스스로가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어떤 일이 되었든 간에 내가 원한다면 열심히 그 일을 위해 성심성의껏 노력하고 기다려야 기회가 주어진다. 이 세상에 노력 없이 되는 것이 그 하나라도 있을까 말이다. 요즘은 정말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누구의 수고라 할지라도 그 수고의 값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간다. 자신의 삶이 소중한 만큼 다른 이의 삶도 귀한 까닭이다.

이렇듯 아침저녁으로 코끝이 짙해지고 옷깃을 여미게 되는 11월에는 뭘지 모를 꿈틀

거리는 기운이 가슴 속에서부터 올라온다. 무엇인가 설렘과 함께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저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꿈틀거리는 것이다. 나뭇가지의 잎들이 하나둘 바람에 흔들리고 잎을 떨낸 나무들이 깊은 호흡을 시작하는 이맘때쯤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깊은 호흡으로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어쩌면 그들과 마주하며 힐링을 시작하는 시간인지도 모른다.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니 상쾌해지고 그 말간 기운의 에너지가 좋아서 펼쳐져리며 무엇인가 시작하고 싶어지는가 싶다.

11월에 서면 마음의 설렘이 시작되고 가슴 속에서 일렁이는 꿈틀거림이 나를 요동치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11월은 내게 시작의 계절이다. 이런 말간 기운을 곁의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 감사하다. 옛그제는 아트쟁이 셋이서 우연하게 만났는데 나와 비슷한 기운을 가진 동생과 함께 있으니 어찌나 즐겁고 행복했던지 시간가는 줄 모르고 지냈다. 두 동생을 바라보던 조용한 언니가 그 기운을 받았는지 덩달아 신바람이 일어 좋아라 한다. 이렇게 서로에게 좋은 기운을 나누며 살고 싶다. 큰 욕심보다는 지금에 누릴 수 있는 분량만큼 그렇게 만나고 느끼고 표현하며 그렇게 누리길 소망해본다.



한담객설閑談客說:
선생하는 즐거움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찬바람이 세차게 몰아쳤다. 따라 나섰던 비는 눈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예보는 적중했는데, 함박눈이 내렸다. 내리는 눈썹은 실내 통창으로 내다본 길거리 풍경과 어우러졌다. 붉은 눈발은 빗꽃잎 바람에 휘날리는 듯했던 거다. 커피는 더웠고, 실내는 따뜻했다. 쳐다보는 눈발도 오히려 푸근해 보였는데, 보스톤에 첫눈이 내렸다.

한국신문에 실린 컬럼중에 한 토막이다. 읽으면서 선생님이 오히려 느꼈을 감동을 놓칠 수 없었다. 이 맛에 선생 노릇 하는지도 모른다. 아이들에게서 배운다.

'몇 년 전의 이야기다. 역시 한 초등학교 가을운동회. 5학년 학생들의 포크댄스 놀이를 앞두고 담임선생님은 "아차" 했다. 할머니와 둘이서 어렵게 살고 있는 제자 생각이 났기 때문이다. 급히 문방구에서 운동복을 사

왔고, 제자를 찾아 어서 입으라며 건네주었다. 아이가 난처해 하며 멀리서 순서를 기다리는 급우들을 가리켰다. 다른 반 아이들은 모두 운동복을 갖춰 입고 있었는데 자기 반 아이들만 한결같이 평상복 차림이었다. 운동복이 없는 친구를 위해 모두가 운동복을 입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부끄러워서, 그리고 기뻐서 담임선생님은 한동안 울먹였다고 한다.' (한국일보, 정병진, 10-10-2014)

한국군대에 있을 적이다. 논산훈련소 훈련을 끝내고, 후반기 교육을 받았다. 교육 중 점잖은 문관인 교관님이 화가 난 적이 있다. 일차려의 벌은 선착순달리기였다. 선착순, 달리기에서 먼저 달려야 하고 남보다 앞서도 착해야 한다. 훈련장을 한 바퀴 돌때 마다 대여섯 명씩 먼저 도착한 병사들은 다시 뛰지 않아도 된다. 달리기를 못하는 병사에게는

고역인 벌이다. 잔머리를 굴렸다. 고귀한 전우애가 발동했다. 모두 같이 뛰어갔다가 모두 같이 들어오자고 이야기했다. 그대로 실천했다. 청사(?)에 빛날 전우애도 살릴 겸, 애교성 반항이었고 항명이었다. 결과는 말해야 덤도 안된다. 반응은 혹독했고, 오후 내내 흙바닥에서 굴렀다. 갈증에 땀범벅되어 무지 고생했더랬다. 팔꿈치와 무릎이 모두 까졌던 거다. 교관을 골탕먹이려다 골병들 뻔 했다. 순수한 아이들에게 학우에는 진한 감동인데, 잔머리 굴린 병사들의 전우애는 더 큰 시련이었던 거다. 교관님, 그날 저녁 아마 위궤양이 도졌을지도 모른다. 교관도 선생인데, 그에게 못할 짓을 저질렀다.

맹자가 말했다. 군자君子에게 세가지 즐거움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천하의 영재를 모아 가르치는 것이란다. 누구나 그렇듯, 내

게도 스승님이 몇 분 계신다. 살아오면서, 고비마다 길을 일러 주셨다. 때론 직접 내 손목을 잡고 이끌기도 하였고, 내 등을 억지로 떠밀기도 하셨던 거다. 그런 선생님들께 제대로 술 한잔 올려드리지도 못했고, 더운 국밥 한그릇 대접도 못했다. 앙금으로 남았고, 스승님께 진 빚을 청산하지도 못한 거다. 참 무심한 제자인게다. 하지만 스승님들께선 여전히 자랑스런 제자인양 대견해 하실거라 스스로 위안 삼는다. 그렇다고 내가 천하의 영재는 아니다. 단지 스승님들께 선생하는 즐거움만 드렸다는 거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6)

보스톤코리아

KOREAN GUIDE & MAP

보스톤 가이드 앤 맵



이제 미국과 중국 고객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코리안 가이드 앤 맵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코리안 가이드 앤 맵이 곧 출간됩니다. 이 가이드 앤 맵은 미국 및 중국 학생, 관광객 등을 타겟으로 미국내 호텔, 관광지, 학원, 어학원, 대학 등에 전격 배포될 예정입니다.

미국내 호텔, 관광지, 학원, 어학원, 대학 및 한국 공항

3만부를 내년 2월 발간하여 3월부터 3개월에 한번씩 재배포되는 가이드 앤 맵은 여러분의 매출을 한단계 높여드릴 것입니다. 보스톤코리아가 선정하는 코리안 가이드 앤 맵의 베스트 업소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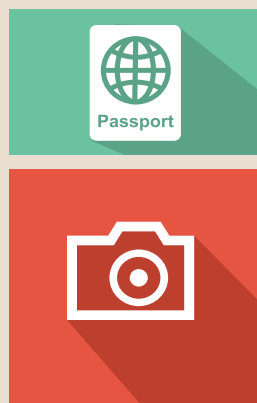
3만부를 3월부터 3개월에 한번씩 재배포

이제는 더 많은 미국, 중국, 아시안 고객들을 한국 업소로 불러들여야 할 때입니다. 지금 선택이 내년 매출을 좌우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보스톤코리아로 연락하십시오.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코리안 가이드 앤 맵

미국내 호텔, 관광지, 학원, 어학원, 대학 및 한국 공항

3만부를 3월부터 3개월에 한번씩 재배포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55 무예도보통지의 마상육기馬上六技(5)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고 무예도보통지에 마상기에(마상6기)를 추가하면서 격구의 자세한 내용이 현존한다.

또한 조선시대 초부터 성행한 지상격구(보격구步擊毬, 보행격구)는 초기에는 주로 궁궐에서 이루어졌으며 격방이나 장시를 많이 즐겼다. 격방은 궁중이나 넓은 마당 여기저기에 구멍을 파놓고 걸어 다니면서 공을 구멍에 넣는 놀이로 현재의 골프와 유사하다. 장시는 뛰어 다니면서 구멍에 공을 넣는 놀이인데 현재의 필드하키와 유사하다. 실록에 의하면 세종은 종친들을 궁내로 불러 보행격구를 하였고, 세조 때는 수심명씩 무리를 지어 경기를 하였다. 특히 격방은 궁녀들을 비롯하여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유희였다.91)

이렇게 마상격구와 지상격구가 습무와 유희의 여러 형태로 발전해오면서 상하층의 모든 백성들이 즐겼는데 임진왜란 이후 17세기로 접어들면서 기마격구가 병술로서의 효율성이 떨어지자 지상격구도 함께 상류층으로 부터 점차 쇠퇴되었다. 하지만 일반 백성들의 놀이로서는 계속 유지되면서 '장치기'로 변모되었다. 동아일보의 기록에 보면 1920년에 전국에서 32개의 남녀팀이 출전하여 수원에서 대회를 하였으며, 1931년에는 열레공대회라는 이름으로 전국대회를 열기도 하였다.

결론적으로 마상격구는 페르시아 지방에서 시작되어 인도와 티베트 거치고 당나라를 통

하여 삼국시대에 우리나라에 전래되었다. 삼국시대에 습무나 유희의 형태의 격구가 고려시대로 들어오면서 궁궐에서 왕과 왕족을 중심으로, 중기에서 무신들 중심으로, 후기에는 저자거리에서 상하층 모든 백성들이 참여하는 대규모의 행사로 전승되었다.

조선시대에 접어들면서 격구는 한층 더 발전되고 성행하였다. 태조와 태종의 격구 실력은 백성들이 경이의 눈으로 관전하였고, 세종은 용비어천가에서 태조의 격구를 찬양하였으며, 무과시험으로 채택하여 놀이적 성격이 줄어들었다. 초기 100여년간의 왕과 왕족, 무관들의 습무에서 시대가 흐름에 백성들의, 특히 남자아이들의 겨울철 놀이인 장치기로 변모하였고, 또한 상류층 유희에서 단오때의 집단 세시풍속적으로 온 백성들이 즐기는 놀이로 변하였다. 그리고 마상뿐만 아니라 지상에서 보행격구는 여러가지의 다른 형태로 발전하였다. 다음에는 무예도보통지의 '격구편'을 중심으로 좀더 상세한 격구의 종류와 경기방법과 장비 등을 살펴 본다. 격구와 폴로(Polo)는 왼손잡이는 할 수 없다. 우완과 좌완이 함께 구장에서 말뿔을 하면 말들이 충돌하기 때문에 오른손잡이만 현대의 Polo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물론 오른손을 사용한다면 누구나 경기가 가능하다.)

89) 보물 제1463호(2006년4월28일 지정), 한글 창제 후 가장 먼저 지은 최초의 한글 문헌의 서사시/악장이다. 1445년(세종27년)에 지어 1447년에 간행하였다. 권제, 정인지, 안지 등이 저술했으며, 성삼문, 이개, 박팽년 등이 주석을 달았으며, 정인지가 서문을 쓰고 최항이 발문하였다. 총 12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은 목조, 익조, 도조, 환조, 태조, 태종 등 조선 선대 6대의 사적과 조선 건국의 위대함과 시련 등을 노래했고, 그 모든 것이 하늘의 명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서술되어 있다. 서울역 사박물관(새문안길, 2002년 개관),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규장각 등에 보관되어 있다.

90) 전문 풀이를 옮긴다. "놀음놀이에 쓰이는 방울(공)이시매 (당나라 선종은) 말 위에서 (공을) 이어 치시나 양편의 공치기 선수만이 기뻐한 것입니다.

임금의 명으로 노는 공치기이매 (태조는) 말 곁에 엮막으시니, 사방 팔방으로 통한 거리에 모인 도읍 사람들이 다 놀라니."

91) 이렇게 역사적으로 고증을 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특히 여자)에게는 골프를 즐기고 잘할 수 있는 유전인자가 있다. 젊은 남자들이 세계 골프계를 석권하는 것이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님을 역사가 입증하고 있다.

오늘, 다시 읽는 미국사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소피아
us.herstory@gmail.com

칼럼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WisePrep 소피아선생님 (617-600-4777, us.herstory@gmail.com)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Ku Klux Klan의 어제와 오늘 (1)

정식명칭보다는 약어인 KKK로, 아니 그 보다는 할로윈 유령마냥 눈만 뚫린 하얀 두건, 십자가, 횃불과 같은 이미지로 기억되는 Ku Klux Klan 쿠 클럭스 클랜. 잘 알려져 있다시피 KKK는 과격한 백인우월주의 단체이며, 한때 미국 전역에 약 400만명에 달하는 회원을 거느렸던 단체이기도 하다. 오늘은 그 KKK를 조명해보려 한다.

탄생: 재건시대, 증오에서 탄생한 KKK

1865년 4월 9일, 남북 전쟁의 최전방이었던 버지니아 북부의 애포매톡스(Appomattox) 법원 청사 근방에서 지난 5년여간 총사령관으로 남부 연합군을 이끌던 로버트 리 (Robert Lee) 장군이 항복하면서 남부 연합군은 하나씩 무기를 내려놓게 된다. 같은 해 5월 남부연합의 대통령 제퍼슨 데이비스 (Jefferson Davis)가 체포당했다. 연합군의 항복이 여러 전선에서 차례로 이어졌다. 1865년 11월 6일, 남부연합 해군 소속 CSS 셰넌도어 (CSS Shenandoah)호의 항복을 마지막으로 남북전쟁은 끝이 났다.

5년을 넘게 끌었던 전쟁이 결국 북부의 승리로 끝났을 때, 남부 전역은 초토화되었다. 남부 백인들의 상실감과 박탈감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을 게다. 북부-공화당에 대한 그들의 반감은 한때 남부 대농장주들의 소유물로 취급되던 "과거 노예" 이자, 현재의 "해방인 (freed

men)" 이 되었던 흑인들에게 향했다. 의회 중심으로 보다 강경한 재건 정책이 입안되기 전까지, 1865년에서 1866년 사이 많은 남부 주들이 앞다투어 과거의 노예 단속법 (Slave Code)의 주어만 살짝 바꾼 흑인 단속법 (Black Code)을 통과 시켰다.

KKK가 태어난 것도 이즈음이다. 시작은 퇴역군인들의 친목모임이었다. 과거 남부 연합군의 일원으로 연방 (북부)에 맞섰던 퇴역군인들 일부가 테네시주에서 몇 차례의 모임을 가지면서 남부인들의 정치적인 권리 확장이라든가, 전쟁 이후 구겨진 자존심의 회복을 이야기하던 와중에, 남부 연합 재건의 결의를 다짐하며, 전쟁 당시 남부 연합의 기병대장 출신 네이턴 포레스트 (Nathan Forrest)가 주도하는 비밀조직이 결성되었다. 1865년 12월 24일이다. (오늘 칼럼과는 별 연관이 없다만, 유명한 영화 포레스트 검프의 주인공 "포레스트"의 작명은 바로 네이턴 포레스트에 대한, 일종의 오마주!였다.)

어쨌거나 증오에서 태어난 KKK는 흑인에 대한, 그리고 흑인 해방을 지지했던 백인들에 대한 적대감을 공감, 협박, 집단 린치 혹은 방화와 같은 극단적 폭력을 통해 드러냈다. 특히 흑인들이 정치적인 힘을 가지는 것을 철저히 반대하기도 했다. KKK활동에는 인종주의에 대한 흡사 종교적인 맹목성까지 가미되곤 했는데,

폭력의 수위가 극에 달하면서 연방 의회는 클랜 법 (Klan Act, 1870)을 통과시켜 KKK의 폭력 행위를 단속하기에 이른다.

부활: 불관용의 시대, 그리고 미국이라는 편협한 정체성

1870년대 이후 남부는 KKK 활동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사회 전체의 인종주의 성향이 강화되긴 했었다. 어쨌거나 공식적으로는 잠잠했던 KKK가 1915년, 군인 출신의 감리교 목사 윌리엄 시몬스가 조지아주 애틀랜타 근방 스톤마운틴에서 2차 쿠 클럭스 클랜의 출범을 선언하면서 매우 과격한 방식으로 재건되었다.

부활한 2차 KKK는 과거처럼 흑인에 대한 적대감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남동부 유럽 출신 이민자, 아시안, 카톨릭교도, 여성 참정권 운동가 등 WASP (White Anglo-Saxon Protestant) 남성의 세계에 속하지 않는 모든 이들을 "미국의 적"으로 규정하고, 이렇게 규정된 "적"들에 대한 집단적인 린치와 테러가 횡행했다. 게다가 과거 KKK가 남부의 비밀결사 조직이었다면, 새로 결성된 2차 KKK는 1920년대 전국적으로 약 4백만명 가량의 회원을 거느린 거대 조직으로 성장했다. 심지어 이들의 헤드쿼터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세워질 정도였으며, 공공연히 KKK 단원거나 KKK활동을 지원하는 정치인들이 주정부와 의회에 진출했다. 이렇게

KKK의 광기에 가까운 테러는 암묵적으로 용인되었던 이 인종차별적인 증오범죄 조직에 개신교 목사인 KKK단원이 약 4만명에 달했다는 사실도 놀라운 대목이다.

2차 KKK는 왜 결성된 것일까? 미국영화사의 첫 장편으로 기록된 국가의 탄생 (The Birth of a Nation)이 1915년 초반 개봉되었다고 한다. 그리핀스가 감독한 이 영화는 기술적으로 그리고 영화사적으로 중요하지만, 남북전쟁과 재건시대의 흑인에 대한 왜곡되고 부정적인 이미지와 함께 KKK 단을 영웅적으로 미화시켰다는 점 때문에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단지 국가의 탄생이라는 영화 때문에? 1915년 이후 세를 불렀던 2차 KKK는, 산업혁명과 이민의 물결, 그리고 개혁시대를 거쳐 다른 1차 대전 전후라는 시대가 만든 괴물이었다. 새로운 이민에 대한 혐오에 종교적, 이데올로기적, 그리고 문화적 순혈주의가 "미국은 너희들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아집에 가까운 애국심(!)이 만들어졌던.

2차 KKK역시 1925년 이후 쇠락의 길을 걷다가 사실상 와해 되는데, KKK가 내세웠던 명분 때문이라기보다는 횡령, 탈세, 파벌싸움 등 내부적인 문제가 컸다. (계속)

Hanca Education Center
한카교육원 교육프로그램

* 한카교육원은 간이식당과 대형 스크린을 갖춘 멀티미디어룸을 포함
9 개의 강의실을 운영하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캐나다 최고의 교육도시
문화중심 도시 몬트리올!!
세계 최대 이중 언어 도시
몬트리올!!


북미의 파리, 몬트리올에서 불어공부하자!

몬트리올 유학은

- 불어와 영어를 사용하는 이중언어 환경에서 수준높은 교육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한카교육원의 유학프로그램은 북미한인언론인협회(KAFA)에서 인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몬트리올 유학 프로그램의 특징



초중고 불어학교 / 영어학교 조기유학
- 불어학교 / 영어학교 또는 영.불어 통합학교 중 선택
- 숙소비, 학원, 학비, 홈스테이 비용 포함 관리 유학 연간 \$39,000(CAD)

불어/영어 단기유학
- 현지 공립학교에서 교육



불어 & 영어 여름 캠프 2015 June
- 몬트리올의 여름을 즐기며 배우는 불어







성인 불어/영어 직업교육(이후 이민가능)
- 부모 유학비자로 자녀의 공립학교 무상 교육가능(EMSБ 교육청)

성인 불어/영어 연수
- 불어 교육청 / Language school / etc.

McGill University 입학준비반
- 세계 10대 대학, 저렴한 생활비와 학비




TALK 카톡으로 빠르게 상담하세요
ID : hanca3333

전통의 힘!! 새로운 패!! 한카교육원이 전문과 혁신적으로 더욱 강해졌습니다.
한카교육원에서는 조기유학, 영어, 불어, 수학, TEFAQ 등 최고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333 Boul. Cavendish Suite 100, Montréal Québec, Canada H4B 2M5
한카 교육원 http://hancastudy.com

 CÉH École de Langues/Mathématiques
HEC Language/Mathematic school
tel: 1.514. 600.3444
070.4498.1106
hancastudy@gmail.com



윤희경
보스톤봉사회

2015년 오바마케어 가입하기

2015년도 ACA (Affordable Care Act 의 약자. 오바마케어의 정식명칭) 보험 가입신청기간이 11월 15일부터 2015년 2월 15일까지로 발표되었다. 이 기간은 신규보험가입, 현 ACA보험의 변경 혹은 계속가입 신청을 하도록 한 것이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년 중 단 한 번 있는 기회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1월 1일부터 유효한 보험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12월 15까지 가입신청을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MA 주의 담당기관인 Connector는 가입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고 한다. 작년과 같은 인터넷 불통 재발 방지를 위하여 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였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은 온라인 가입신청서, 보험혜택 혹은 매스헬스자격 유무를 즉시 알려 줄 수 있는 성능이 있다고 한다. 또한 가입 첫날 예상되는 40,000 명의 동시 접속도 소화할 것이라고 한다. 참여 보험회사도 작년보다 많은 11개로 늘어 선택의 폭도 넓어졌다. 의료보험료는 2%, 덴탈은 6% 이내의 적은 폭으로 인상되어, 가입자에게는 좋은 소식이라고 하겠다.

1. 누가 신청해야 하나?

매스헬스, 메디케어, 그리고 직장보험을 갖고 있지 않은 모든 MA 주민은 가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컴먼웰스케어를 갖고 있으면, 내년 1월 31일 폐기됨으로, 가입신청을 되도록 빨리하여 ACA 보험으로 바뀌어야 한다.

2. 현재 ACA를 갖고 있더라도 새로 가입신청을 하여야 하나?

현 가입자에게는 각 보험회사로부터 안내편지가 우송될 것이다. 월 보험료 변경, 의사와 병원의 변동 또는 보험자체의 종료 여부 등이

통보될 수도 있다.

한편 보험가입자의 2015년도 소득이 작년과 다르다면, 보험혜택도 아울러 바뀌게 될 수 있다. 상기한 여러 이유로 신규 가입 신청을 하여야 한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현 보험에 자동 가입될 것이라고 하나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 수도 있다.

3. 현재 임시매스헬스를 갖고 있다면? 임시카드를 발급한 이유는 작년엔 서류심사를 제대로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취한 일시적 조치였다. 내년 초에 다 폐기 됨으로, 물론 가입신청을 하여야 하나?

영주권이 없는 합법적 체류자는 모두 ACA에 가입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체류기간이 길지 않아 연방세금보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즉 세법상 Resident Alien이 아니면, ACA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벌금은 내지 않는다.

4. 일시 체류자도 가입하여야 하나?

영주권이 없는 합법적 체류자는 모두 ACA에 가입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체류기간이 길지 않아 연방세금보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즉 세법상 Resident Alien이 아니면, ACA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벌금은 내지 않는다.

5. 가입 입신청은 어떻게 하나?

11월 15일 부터 개장되는 MA 주 보험인터넷쇼핑몰 'MAhealthconnector.org' 에서 신청한다. 이번에는 순조로운 사이트 운영이 예상되어 온라인 신청을 권한다. 신청서는 정부지원을 요청하는, 그리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 따른 2가지가 있다. 가입신청서가 필요하다면 상기 사이트에서 다운 받아 우송하거나, 전화로도 가입신청할 수도 있다. RI 주의 쇼핑몰 주소는 'healthsourceri.com' 이고, NH 주는 'healthcare.gov' 이다.

6. 가입에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

가족의 생년월일, 소셜시큐리티 번호의 기초 자료 이외에, 2015년도 예상소득(모든 식구

소득의 합), 영주권 등이 필요하다. 식구 중에 누가 보험이 있다면 보험계약번호가 필요하고, 혹은 ACA 보험회사가 보낸 보험 ID. 이다.

7.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없더라도 신청할 수 있나?

합법적 거주자라면 물론 할 수 있다. 소셜시큐리티번호 없이 신청하면, 정부에서 가입 여부를 추후 결정하여 알려 줄 것이다.

8. 2015년도에 참여하는 보험회사, 보험료, 보험혜택 등은 언제 알 수 있나?

쇼핑몰이 개장되어야 알 수 있다.

9. MA 주에서 보험료와 의료비지원 혜택을 받기 위한 소득범위는?

10. 2015년 무보험 벌금은 얼마인가?

식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
보험료지원이 가능한 소득범위 (FPL 100- 400%)	\$11,670-46,680	\$15,730-62,920	\$19,790-79,160	\$23,850-95,400	\$27,910-111,640
보험료와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 소득범위 (FPL 100-300%)	\$11,670-35,010	\$15,730-47,190	\$19,790-59,373	\$23,850-71,550	\$27,910-83,730
매스헬스를 받을수 있는 최대소득, (FPL 133% 미만)	\$16,150	\$21,707	\$27,310	\$32,913	\$38,516

소득은 MAGI 임 (이는 모든 세금을 포함한 총 봉금액, 자영업인 경우 순수익에 약 7.5%가산한 금액) FPL: 연방정부가 정한 가구당 극빈자소득액수임

개인은 \$325 혹은 소득의 2%, 둘 중 많은 액수, 가족은 \$975 혹은 소득의 2%, 둘 중 큰 액수.

ACA의 폐기를 선거공약으로 내 건 공화당이 금번 중간선거에서 대승하여 상, 하원의 다수당이 되었다. 그러나 ACA의 폐기는 이미 물 건너 간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2015년도 예상 가입자가 2014년 가입자보다 50% 이상 증가한 1천3백만이 될 것이라고 한

다. 2016년 차기 대통령 선거까지는 가입자가 2천 5백만이 넘을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폐기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ACA 입법의 주 목적인 의료비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긍정적 첫 결과가 나온 점이 다른 이유이다. 가입자 예상수가 늘어남에 따라 전국적으로 참여하는 보험회사가 25% 더 늘어났고, 판매하는 보험품목도 66% 늘었다고 한다. 심화된 경쟁으로 인상폭이 급격히 줄어, 보험료 인상폭이 단 4% 내외라고 한다. 5% 미만의 의료비 인상은 근년엔 들어본 적이 없었다.

의료보험은 자신과 가족의 안녕을 위한 필수다. 벌금이 문제가 아니다. 이것저것 조건 따지고 알리고 하기 전에 일단 가입신청을 하여,

자신의 부담정도를 알고난 후, 가입여부를 결정하자. 기회는 일년에 딱 한번이다.

의문점은 HealthConnector 전화 (877) 623 6765, 혹은 보스톤봉사회로 연락하기 바란다.

“보스톤엔 보스톤코리아가 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보스톤코리아는 보스톤 언론으로서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항상 공정하고 바른 길을 걷도록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십시오. 앞으로도 보스톤 한인 역사를 공정하게 기록하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앤티비(enjoy & TV)가 티보 플레이(TBO Play)로 새롭게 도착합니다

더 좋은 서비스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Welcome, **TBO**

티보 VIP 할인!

\$29.99

(2년 약정시)

11월, 12월

VIP
할인 이벤트

기회를 잡으세요!

이벤트 기간

2014년 11월~12월

이벤트 내용

이벤트 기간중에 가입 고객은

1년간 VIP \$29.99

1년 이후 \$34.99

문의 및 연락처

보스톤코리아 TV 사업국

617.955.9112

지금 연락하세요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세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255)

수익률이 주식시장보다 적은 이유

매년 보스턴에 델바(DALBAR)라고 불리는 경제연구소에서 "투자자 습관의 양적 분석(Quantitative Analysis of Investor Behavior)"이라는 제목으로 연구결과를 발표합니다. 연구 자료는 1984년부터 2013년 말까지 30년입니다. 이 기간에는 1987년 주식시장 폭락을 비롯한 3번의 주식시장 침체기와 1990년 주식시장 폭등과 주식시장 회복 모두를 포함합니다.

연구 조사의 놀라운 결론 하나는 주식시장 자체의 수익률(S&P 500 Index)은 11.1%이지만 투자자 자신의 수익률은 단지 3.7%라는 사실입니다. 무려 일반 투자자는 7.4% 수익률을 포기한 것입니다. 7.4%라는 수익률은 \$50만 불이 10년 후 \$100만 불로 불어나는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최근 은행에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수익률이 1% 이하인 것을 고려하면 엄청난 손실입니다.

투자자는 투자하기 전 연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나의 소중

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이성적으로 판단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한 개인의 지식과 경험은 매우 국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시각장애인이 코끼리의 몸을 만져본 후 코끼리는 이리하다'라고 결론 내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일반 투자자가 잘못하는 이유 몇 가지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자신이 투자 전문가로 착각

델바 연구소에 의한 결론은 개인 투자자가 투자 전문가가 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투자에 관한 책 몇 권(대부분 투자 대박 비법), 인터넷에 떠도는 투자 지식, 전문가라고 칭하는 사람들의 의견, 친지들이 전하는 투자 정보, 등에 의해서 하는 투자는 실패하는 투자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책 몇 권을 읽고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은 후 사람의 심장 수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람의 자만심은 사회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투자 결정하는 데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코넬 대학의 두 교수가 연구한 자료(Unskilled and Unaware of It: How Difficulties in Recognizing One's Own Incompetence Lead to Inflated Self Assessments)에 의하면 본인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인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심대 청소년과의 의견 충돌을 비롯해서 아내들이 잔소리(?)하는 이유를 남편들이 모르는 경우와 비슷합니다.

자주 바뀌는 투자 종목

하루에 서너 번씩 포트폴리오를 확인하는 투자자는 투자종목을 자주 사고팔게 됩니다. 바버와 오딘의 연구결과(The Journal of Finance)에 의하면 트레이드를 수시로 하는 투자자는 장기투자한 투자자와 비교할 때 수익률이 훨씬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월가를 비롯한 모든 금융회사는 막대한 광고와 선전으로 투자자로

하여금 투자종목을 수시로 사고팔게 부추깁니다. 투자자가 트레이드를 자주 할수록 금융회사는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미국 곳곳에 주식 브로커 사무실이 있는 이유입니다.

과거 수익률에 의한 투자 결정

투자할 때 항상 나오는 경고문 "과거 수익률은 미래에는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무조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 일반 투자자는 이러한 말에 무관심합니다. 본인에게만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수익률을 미래에 반복할 수 없다는 연구자료가 끊임없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종목마다 집중 관심

투자종목 하나하나에 너무 집중하면 포트폴리오 전체를 보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농구, 축구, 야구, 모든 운동경기에는 선수 역할이 각각 있습니다. 개인 선수의 기량은 다소 부족하지만, 팀워크가 잘 이루어진 팀이 우승합니다. 특히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특

정한 투자종목보다는 포트폴리오 전체 구조가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뚜렷한 투자계획이 없음

투자하는 이유 혹은 목적이 있다면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등에서 자주 언급되는 주식 폭락, 상승, 핫(hot) 주식 종목, 등 감정에 호소하는 소리에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하는 뚜렷한 목적이 없다면 '주식 대박' 혹은 '주식 폭락' 등의 정보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재정계획을 제대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세금, 보험, 상속, 투자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은 물론 경험도 필요합니다. 대부분 투자자는 각자의 직업이 있기에 시간도 없고 흥미도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도움을 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을 수 있는 재정설계사와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감정 가격과 주택 경기

최근 2-3년 동안 매물 부족으로 주택 가격이 단기간 급격히 오르면서 바이어들의 내 집 마련이 수월하지 않다. 가계 수입이 주택 가격 인상을 따라 잡지 못하기 때문이다.

할 수 없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작은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다만 요즘 매물이 전보다 많이 늘어나서 선택의 폭이 넓어져 그나마 바이어들에게는 내 집 마련에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그런데 갑작스레 오른 주택 가격과 은행에서 조사하는 감정 가격간의 차이가 커서 바이어들이 용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은행에서 바이어에게 용자를 승인할 때 먼저 바이어의 신용, 수입, 재정 상태를 검토하며 다음에는 해당 주택의 시장 가격을 감정을 한다. 이때 구매 가격이 은행에서 조사한 감정 가격을 상회할 경우 그 차익을 바이어가 더 다운페이 하도록 요청한다.

만약 더 다운페이를 할 수 있는 여유 돈이 없다면 주택 구매를 포기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 이는 가격이 단기간 급격히 오른 시장에서 종종 목격되는 현상으로 바이어에게는 큰 실망을 안기게 된다.

최근 몇몇 케이스를 알아보자.

K씨는 작년 부터 은행 매물을 구입하기 위

해 오퍼를 넣다가 여러 번의 실패 후 드디어 계약을 맺고 맺었다.

하지만 최근 은행들이 숏 세일 매물이나 은행 매물들을 예전처럼 할값에 처분하지 않고 최근 3-4개월 전에 팔린 가격과 연동하여 일반 매물처럼 가격을 산정해 매매한다. 즉 일반 매물과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매매되는 것이 요즘 추세이다.

그래서 K씨는 은행 매물이나 감정 가격에 큰 문제없이 무난히 용자가 나오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바이어에게 용자를 해 주는 은행에서 보낸 감정사로부터 받은 감정가격은 최근 팔린 시세 가격보다 2만달러 정도 더 낮게 나왔다. 용자를 해 주는 은행 측에서는 주택 시장에서의 위험으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보다 더 보수적으로 까다롭게 감정을 하기 때문이다. 할 수 없이 주택 구입을 포기하는 상황에 놓였다.

또 다른 케이스는 은행매물이 아닌 일반 매물이었다.

아무래도 은행 매물보다 약 1만달러 높게 나온 가격이라서 요청 금액보다 1만달러를 낮게 오퍼를 넣어 계약에 들어갔다. 역시 주택 감정 가격이 구입 가격에 미치지 못해 용자를 얻지

못한 상황에 이르렀다. 다행히도 바이어가 여유 돈이 있어서 추가로 1만달러를 더 초과짓고 계약을 종결했다.

요즘 주택 가격이 소폭이나마 상승하는 반면, 은행 측에서는 아직도 보수적으로 용자를 해 주는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빚어진 일이다. 전처럼 매물이 나오자마자 10-20개의 복수 오퍼가 들어오는 매물 부족 상황은 아니더라도 좋은 컨디션의 주택일 경우에는 복수 오퍼가 들어오기 일수여서 감정 문제가 종종 용자에 폭탄으로 작용한다. 감정가격 문제를 미리 염두에 두고 주택을 구입하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요즘이다.

한편 셀러 입장에서 보면 적절한 리스팅 가격 설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셀러와 바이어가 서로 밀고 당기는 현 시장에서는 계약에 들어갔어도 가격이 너무 높으면 오히려 감정 문제로 중간에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셀러는 무조건 집값을 올리려고 하는 것 보다는 일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온라인 정보가 쏟아지면서 바이어들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일반적인 가격 흐름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주택구매에 나서고있는 게

요즘 현상이다. 심지어 원하는 집주변의 매매 가격까지 훤히 알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때문에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적정한 가격으로 매물을 시장에 내놓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변화하는 시장에 대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백영주

Clara Paik
Principal Broker
Boston New Star Realty Branch Owner
New Star Realty & Investment
Realtor, ABR., GRI.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617-969-4989, 781-259-4989
Fax 617-969-4959, 781-259-4959
Cell 617-921-6979, 978-239-0141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Website: ClaraPaik.com & newstarrealty.com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고국방문 검진&성형&전문치료&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새미치과 특별할인

새미의 이벤트	오스템 임플란트 -150만원 120만원	무삭제 라미네이트 -80만원 60만원	오스템 미백 1회 20만원 +1회 제공
---------	-----------------------------	----------------------------	-----------------------------

고국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임플란트 시술받으세요!

대표원장 이두형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 동서대학교 치과 과장
-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치과학교실 외임교수
-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정회원
-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영회원

새미치과 임플란트 치아미백 치주치료 심미보철 예방치료

휴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에피끄 에스테틱 특별할인

에피끄 에스테틱이 특별한 이유!

- 럭셔리 인테리어와 고급관리
- 1:1 전문관리와 프라이빗 룸
- 동안 미스 스킨 케어 마사지
- 이태리 최상의 브랜드 사용
-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관리사

스페셜 힐링 케어 - Facial care + Healing back care - 120 min 19만원 → 15만원	스페셜 힐링 스칼프 케어 - Healing scalp care + Facial care - 120 min 20만원 → 16만원	스페셜 슬리밍 케어 - Facial care + Slimming leg care - 120 min 25만원 → 20만원
전신 홀리스틱 아로마 케어 - 아로마 전신케어 + 강력보습케어 32만원 → 26만원	전신 고주파 케어 - 고주파 전신케어 + 강력보습케어 38만원 → 30만원	나이가 드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아름답게 나이 드는 방법은 있다. 에피끄만의 특별한 관리로 시간의 흐름을 잠시 멈춰보세요

휴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남성 비뇨기 정밀검진 특별할인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휴람 특별가 정밀검진을 통해 당신의 비뇨기를 점검해보세요

배뇨장애 + 발기장애 + 갱년기 + 조루 + 비뇨기암 검진
-95만원 → 80만원

남성&여성 비뇨기과 수술전문병원
한국 성과학 연구소 운영

주요수술
전립선비대증, 발기부전, 성기확대술,
조루수술, 요실금수술, 질성형술,
정관수술, 정관복원술 등

이윤수 & 조성완 비뇨기과

휴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대한민국 1등 성형외과 특별할인

안면 윤곽술, 안면 거상술, 윤곽, 리프팅을 잘하는
한국 성형외과에서 자신감을 찾으세요!

안면거상술 (얼굴) -700만원 400만원	안면거상술 (목 포함) -800만원 500만원	실루엣 리프트 -300만원 200만원
안면윤곽술 (광대) -450만원 350만원	안면윤곽술 (사각턱) -450만원 350만원	안면윤곽술 (턱끝) -450만원 350만원

상담 및 문의 보스톤코리아 617-583-2993

행사기간 2014년 8월 ~ 11월



정준기 원장 교육 칼럼

하버드 대학교(Harvard University) 8

정준기 원장 (보스톤 교육원)
 Tel: 339-234-5255 / 5256 / 5257
 Fax: 339-234-5258
 Email: bostoneducation@hotmail.com
 Web: bostonedu.org



〈과학: Science〉

자연 과학은 우리가 관찰하는 여러 현상들을 설명, 예측하고 가끔은 조절하는 학문이다. 미국의 많은 고등학교들이 대체적으로 최소 2년간의 과학 과목을 필수적으로 수강하게 한다. 대부분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3년의 과학 학습 과정을 갖는다. 그러나 하버드의 경우 학생들의 전공과 상관없이 생물, 화학, 물리 과목과 적어도 하나의 AP 과목을 수강하길 원한다. 특히 심리학(Psychology), 천문학(Astronomy), 지질학(Geology), 고고학(Anthropology) 과목의 수강이 생물, 화학, 물리 과목을 대체할 수 없고, 가능하면 고등학교 과학 과목을 4년간 수강하기를 강력히 추천한다. 바람직한 과학코스를 살펴보자. 물리(Physics, 9학년), 화학(Chemistry, 10학년), 생물(Biology, 11학년), AP any science(12학년) 또는 생물(Biology, 9학년), 화학(Chemistry, 10학년), 물리(Physics, 11학년), AP any science(12학년). 물론 중간에 어떤 하나의 AP 과학 과목이 수강된다면 더욱 더 이상적인 과목 선정이 될 것이다.

〈리서치와 작문: Research & Writing〉

미국 대부분의 대학들이 분석적 작문(Analytical Writing)을 필수로 요구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습하는 문학, 역사, 과학, 철학 등의 모든 분야에서 바로 분석 능력과 표현 능력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단지 책을 읽고 쓰는

능력 보다는 자신이 흥미를 가지고 있는 분야를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하버드에서는 리서치와 작문 능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내용들을 요약해보면, SAT2와 AP 과목의 시험들은 학생들이 수강한 학과 과목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객관적인 도구가 된다. 고득점이 절대 좋은 대학으로의 입학 보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버드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가능하면 영어 4년, 하나의 외국어 4년, 역사 3년(미국, 유럽, AP History), 수학 4년, 과학 4년(물리, 화학, 생물, AP 과목 1)을 수강하고, 리서치와 작문 경험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물론 미술과 음악 과목도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일정 분야를 수강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버드를 졸업한 유명인들

하버드를 졸업한 유명한 인재들은 무수히 많다. 물론 하버드가 미국 최고의 대학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하버드에서 받은 교육이 훌륭해서 많은 인재가 나왔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이다. 현직 입학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하버드 대학의 가장 큰 교육목표는 "21세기를 위한 지도자들을 준비하는 것(Prepare Leaders for the Twenty-First Century)"이다. 단지 공부만 잘하는 학생보다는 리더십, 창의력, 열정, 목표의식, 그리고 모험정신이 있는 학생들을 선호하는 대학이다.

하버드를 졸업한 유명 인사들을 살펴보자. 하버드 출신 노벨상 수상자는 47명, 하버드 교수와 연구원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수가 수상했다. 풀리처상 수상자는 48명, 주지사는 32명, 미국 대통령 8명, 로즈 장학생(Rhodes Scholar)은 335명이나 배출했다.

미국 대통령: 존 아담스(John Adams), 존 퀸시 아담스(John Quincy Adams), 루더포드 오드 헤이즈(Rutherford B. Hayes), 시어도어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 프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 존 케네디(John F. Kennedy), 조지 화이트 부시(George W. Bush),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왕족: 프레데릭(Frederik, 덴마크 왕자), 마사코(Masako, 일본 공주), 모하메드 사바 알 살렘 알사바(Muhammad Sabah Al-Salem Al-Sabah, 쿠웨이트 왕자)

타국 대통령: 사바티안 피에네라(Sebastian Pinera, 칠레), 후안 산토스(Juan Santos, 콜롬비아), 호세 피구에라스(Jose Figueres, 코스타리카), 펠리페 칼드론(Felipe Calderon, 멕시코), 카를로스 셀리나스 데 고르타르(Carlos Salinas de Gortari, 멕시코), 차이아 엘베크도르지(Tsakhagiin Elbegdorj, 몽골), 알레한드로 톨레도(Alejandro Toledo, 페루), 벤자르 부토(Benazir Bhutto, 전 파키스탄 수상), 벤자민 네타야후(Benjamin Ne-

tanyahu, 이스라엘 총리), 안토니스 사마라스(Antonis Samaras, 그리스 총리), 마양쥬(Ma Ying-Jeou, 대만) 등.

비즈니스: 빌 게이츠(Bill Gates, 졸업 못함), 마크 Zucker버그(Mark Zuckerberg, 페이스북 창시자), 헌팅톤 하트퍼드(Huntington Hartford, 부동산, 석유 갑부) 등.

예술: 레오나드 번스테인(Leonard Bernstein, 지휘자), 요요마(YoYo Ma, 첼로 연주자), 토미리 존스(Tommy Lee Jones, 영화 배우) 등 무수히 많은 유명 인사를 배출하였다.

하버드는 입학은 힘들지만 입학 후 학교가 학생들 개개인에게 도움을 주는 범위가 한계가 없을 정도로 적극적이다. 졸업 후에도 역시 많은 분야 선배들이 후배들을 도와주고, 학교에서도 다양한 리소스를 통해 직업 찾는 것을 돕고 동시에 이력서 작성법과 수정도 도와준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졸업 후 전문적인 분야에 취직을 하지만 특정 졸업생들의 경우는 리서치나 인턴쉽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것을 찾기도 한다. 하버드 졸업장이 결코 최고의 직업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하버드에서도 꾸준히 노력하고 자신의 길을 찾아 충분한 경험을 하는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얻고, 하버드가 제공하는 다양한 리소스를 정말 잘 활용한 학생들만이 사회에서 성공하고 있다는 점은 인지할 필요가 있다

미국 유학 성공 가이드



오승준 (Albert Oh)

SD Academy 원장
 SDAcademyOnline.com
 617-505-1852, 510-387-0735
 info@SDAcademyOnline.com

필자가 지난 칼럼에서 수없이 말해온 점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대학 입시에서는 학생의 여러 다른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원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12학년 때는 원서 작성, 추천서 부탁, 성적표 확인, 인터뷰 준비, 에세이 작업 등 입시의 단계별로 준비해야 하는 크고 작은 사항들이 있다. 사실, 학생들의 시간 관리는 입시를 코앞에 둔 졸업반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중요하다.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더욱 어려운 수업과 점점 더 시간이 걸리게 되는 과제물은 물론, 과외 활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면서 방과 후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간을 잘 배분하고 여러 일정을 관리하는데 있어 부모는 든든한 후원군이 되어야 한다.

고등학교에 처음 진학하면서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가장 처음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은 바로 교과목 선택이다. 특히 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저학년이라도 수준 높은 상위 단계의 수업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사립 고등학교 학생이나, 공립학교에서라도 Placement test(배치고사)를 통한 월반을 생각하는 학생이라면 9학년 때부터 과목 선택이 매우 중요해진다. 이때, 학교에서 제공하는 Course catalog(혹은 Program of Studies: 수강 편람 - 학기별로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는 교과목에 대한 설명이 담긴 카탈로그)를 함께 읽어 보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일은 학부모의 역할이다. 아무리 학교나 학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해도 자녀의 능력과 재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부모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관심을 보이는 분야에 맞게, 그리고 냉정하게 학생의 장단점을 평가해서 과목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 카운셀러(College Counselor)를 본격적으로 접하게 되는 10학년 때도 학부모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필자의 지난 칼럼 [학부모/교사 면담]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영어가 부담스럽거나 학교를 방문하는 것이 귀찮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학생에게 맡기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필자가 대입 진학에 대한 상담을 하며 보아온 경우 중에 가장 최악은 SAT 점수나 학교 내신 성적이 부모의 기대보다 낮아서 실망한 학부모가 정작

중요한 시기에 학생의 버팀목이 되어 주기는 커녕 '알아서 해라'라는 식으로 방치해 두는 경우였다. 물론, 지나친 간섭이나 기대는 학생에게 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학과목 교사와 카운셀러를 능동적인 자세로 만나 친해지고,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거나 학생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시간 관리를 도와주는 등 올바른 조언을 해주는 것은 학부모의 일이다.

학부모의 역할 중에서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바로 대학교 학자금이다. 매년 학비는 점점 더 올라가기만 하는데 학비 때문에 대학에 진학할 수 없거나, 중산층은 대학 학자금 보조를 전혀 받을 수 없다는 등의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가 많다. 특히 자녀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라면 FAFSA(연방 학자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기본인데, 영어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모두 학생에게 맡겨 버리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정말 많다. 세금 보고서 상의 용어가 많이 나오고, 학생들은 잘 모르는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실하게 기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학부모가 직접, 적어도 함께 작성하는 것이 좋다. FAFSA는 연방 보조금뿐만 아니라 주 정부 보조금, 대학별 재정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첫걸음이므로 확실하게 신청하는 것이 좋다.

사실 미국의 대학 입학 과정은 미국의 대표

적인 사회 시스템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래에 있을 인턴십, 대학원 지원, 그리고 취업 과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주인공은 학생인 것을 잊지 말자. 하지만 명문대에 합격한 학생들의 인터뷰를 보면 언제나 그 뒤에서 동기 부여를 충분히 해주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르쳐주는 학부모가 있다. 기본적으로 학생이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고,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동기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시험을 보는 능력이 좋은 학생일지라도 스스로 세운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없다면 성공할 수 없다. 높은 목표를 가진 학생일수록 동기가 필요하고, 그만큼 동기를 제대로 부여해줄 수 있는 학부모가 있어야 한다. 명문대 합격 학생 뒤에는 명품 부모가 있다.

오승준 (Albert Oh)

Copyright (C) 2014.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승준 원장의 미국 유학 성공 가이드는 SD Academy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칼럼 내용이나 상담, 수업에 관한 문의는 전화(617-505-1852) 또는 이메일(info@sdacademyonline.com)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문대 입학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

www.pospay24.com



POWERED BY
WorldPayTM
Authorized Representative Agent of

POSPay



 Leaf

무료기계(2중계약 없음)

One Touch Solution POS
24시간 이내 입금

모바일페이 (iPhone, Android)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 알선:20% 현금다운, 크레딧 700+
상가건물,콘도,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런드로맷(Laundromat) 많음
주유소,식당,편의점,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스프링필드 지역, 부동산,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60,000
21E Test 완료, 은행융자 가능

보스톤 남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10,000 매매가격 \$39,000

동양 그로서리, 연매상 \$415,000 다운타운 보스톤

보스톤 서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80,000 이상 소유자 은퇴

런드로맷, 여러 장소, 다양한 규모, 연매상 \$60,000 - \$180,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소유자 은퇴

커피 카페, 캠브리지 하버드 법대 근처, 매매가격 \$100,000

보스톤 남쪽 아이스크림, 연매상 \$400,000 프랜차이즈

보스톤 고급 몰 커스텀주얼리 연매상 \$180,000 좋은 매매 가격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 급매매, 연매상 \$120,000 매매가격 \$69,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다운타운 보스톤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금액 협상가능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00,000+

뉴햄프셔 드랍오프 스토어, 연매상 \$82,000 매매가격 \$35,000

세탁소 뉴튼지역, 연매상 \$180,000+ 매출 계속 증가, 내부 리모델 완료

스넥(프레첼)가게, 매매가격 \$39,000 연매상 \$300,000 주인 부재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70,000 소유자 은퇴

요쿠르트, 아이스크림 연매상 \$65,000 좋은 매매가격

드롭오프 스토어 연매상 \$155,000+ 부유한 동네

알링턴지역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45,000 변화가 좋은 위치

보스톤 남쪽 피자/델리/한식 성장가능성 많음. 연매상 \$330,000

메인주 포틀랜드지역 컨비니언스, 연매상 \$600,000 E-2 비자 가능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 연매상 \$360,000 매매가격 \$235,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아침, 점심 5일 오픈, 건물안 위치 연매상 \$180,000, 좋은 매매가격

보스톤 북쪽 주유소+컨비니언스 (2 비즈니스), 연매상 \$1.4M

뉴튼 세탁소: 연매상: \$120,000+ 훌세일: \$100,000 오너 파이낸스(50%)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 연매상 \$140,000 Wash & Fold 많음 소유자 은퇴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

-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 최고 에세이 편집자
-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섬머/윈터 프로그램

- 전문적인 관리 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가디언 업무

- 수시 교사 면담 및 성적관리
-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 및 실행
- 다양한 경시 대회 준비, 섬머 및 교외 활동

SAT I,II 주말 Intensive Class

SAT I Class

1. 대상: 시험을 앞둔 10,11,12학년

2. 특징:

- 실전문제풀이 중심으로 다가오는 시험대비 및 최종점검
- 종일 프로그램(9:00-5:00)
- 4주 단위로 상시 등록가능
- 실력있는 강사(영문학 박사로 본원에서 4년 강의중)

3. 수업일정

9:00- 9:30 단어테스트
9:30-11:30 class(reading/writing)
11:30-12:30 점심식사
12:30- 5:00 Full set 실전문제풀이

SAT II Math II C Class

- 다년간 경험의 공학박사 강사
- 학생들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강의

2014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 프로그램 일정: 11.22(토)~30(일)

(11.27일 추수감사절 당일은 휴강)

2. 프로그램 내용

- SAT I/SSAT/TOEFL Class(3명이상)
- SAT 2 Subject Test Prep (Math/Science/History/Language)
- All subjects for private tutoring
- National Contest Prep(AMC 10&12)

3. 프로그램 참가자의 숙식 및 교통편 알선

* 자세한 프로그램 정보: www.bostonedu.org

아카데믹 프로그램

1. SAT 1,2 /AP/SSAT/TOEFL 및 전 학과목 개인수업 가능

- 학생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강의
- 최고 전문가들의 강의
- Skype수업 가능

2. Reading/Writing class

- 현직 영어교사 강의
- 다양한 장르의 체계적인 글쓰기 교육
- 독서후 토론을 통한 비판적 사고력 향상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28 Wheeler Rd. #301, Burlington, MA 01803 3

tel. 339.234.5255~7 / fax. 339. 234. 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services@bostonedu.org